

## 2011년도 동학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 공동주최 춘계 학술대회



- 일시 2011년 5월 23일(월)  
12:30-17:30
- 장소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국제회의장 110호
- 주최 동학학회/성신여대 동아시아 연구소
- 후원 동학학회 후원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1년도 동학학회 순계학술대회

2011 공동주최 순계 학술대회



- 일시 2011년 5월 23일(월)  
12:30-17:30
- 장소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국제회의장 110호
- 주최 동학학회/성신여대 동아시아 연구소
- 후원 동학학회 후원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본 『동학학회 자료집』 제46집은 동학학회의  
지난 월례발표회와 춘계·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에 이어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 인쇄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학회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51075  
예금주: 쇠민자(동학학회)

## 초대의 말씀

동학학회와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인물을 통해 본 동학사상의 계승’을 주제로 순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학과 포스트 동학 시기 대표적 인물들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고찰은 동학 본래의 정신을 규명하고, 그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그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동귀일체의 이상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용담유시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 <동학농민혁명군의 진압 인물과 그 행적>, <선도교 파견 유학생과 단기동맹> 등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동학혁명군의 성격과 동학의 사상사적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밝히고, 동학혁명군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학을 연구하고 있는 역사학, 정치학, 종교학, 철학, 국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학제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동학의 사상적 지평을 넓히고, 동학의 고유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학술대회가 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상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날, 예지로 가득 찬 여러분의 참여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5월

동학학회 회장 최민자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윤진표

## 순 서

◇ 등록 (12:30-13:00)

◇ 개회식 (13:00-13:30)

개 회 사 :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

축 사 : 임운길 (천도교 교령)

◇ 제 1 부 학술 발표 (13:30~15:00) 사 회: 윤진표(동아시아연구소 소장)

제 1 주제: 유태웅의 생애와 민족운동

발표자 : 성주현(한양 사이버대 교수)

토론자 : 임상옥(숙명여대 교수)

제 2 주제: 박달성의 동학인식과 문학운동

발표자 : 조규태(한성대 교수)

토론자 : 허 수(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

제 3 주제: 이돈화의 동학사상과 정치이념

발표자 : 임형진(경기대 연구교수)

토론자 : 김은실(성신여대 연구교수)

◇ 휴식 (15:00~15:20)

◇ 제 2 부 학술 발표 (15:20~16:50)

사 회: 이정희(공주대 교수)

제 4 주제: <응답유사>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

발표자 : 임금복(성신여대 강사)

토론자 : 김용환(충북대 교수)

제 5 주제: 동학농민혁명군 진압 인물과 그 행적

-미나미고시로(南小西郎), 이두항, 조희연, 장기렴, 이도재를 중심으로-

발표자 : 강효숙(원광대학교 강사)

토론자 : 최홍규(경기대 명예교수)

제 6 주제: 천도교 파견 유학생과 단지동맹

발표자 : 이용창(민족정기교육연구회 책임 연구원)

토론자 : 이계형(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전문연구원)

◇ 제 3 부 종합토론 (16:50~17:30)

사 회: 황선익(상명대 명예교수)

◇ 폐회



## 목 차

### ◇ 제 1 부 학 술 발 표

|      |                      |     |
|------|----------------------|-----|
| 제1주제 | 유태웅의 생애와 민족운동        | 성주현 |
| 제1주제 | 토론                   | 임상옥 |
| 제2주제 | 박달성의 동학인식과 문화운동      | 조규태 |
| 제2주제 | 토론                   | 허 수 |
| 제3주제 | 이돈화의 동학사상과 정치이념      | 임영진 |
| 제3주제 | 토론                   | 김은실 |
| 제4주제 | <응답유사>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 | 임금복 |
| 제4주제 | 토론                   | 김용환 |
| 제5주제 | 동학농민혁명군 진압 인물과 그 행적  | 강효숙 |
| 제5주제 | 토론                   | 최용규 |
| 제6주제 | 천도교 파견 유학생과 단치동맹     | 이용상 |
| 제6주제 | 토론                   | 이계영 |

### ◇ 부 록

- | 동학학회 학술대회 개최 연혁 since 1998
- | 동학학회 홈페이지 안내
- | 동학학회 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안내



◇ 제1주제

향암 유태홍의 생애와 민족운동

성주현(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상임연구원)

1. 머리말
2. 동학에 입도하고 동학혁명에 참가하다
3. 남원교구를 설립하고 3.1운동의 서장을 열다
4. 민족연합전선의 신간회를 조직하고 이끌다
5. 맺음말



## 1. 머리말

남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근대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은 근대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대의 여명을 여는 동학과 동학혁명, 3.1운동, 신간회운동 등 일련의 민족운동은 남원의 근대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일련의 민족운동에서 동학 및 천도교의 역할이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인물이 香菴 柳泰洪(1867-1950)이다.<sup>2)</sup>

유태홍은 20대 초인 1890년경 동학에 입도하면서 반봉건 반외세의 사회 개혁사상에 눈을 떴다. 동학에 입도한 이후 남원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1893년 삼례교조신원운동에서 전봉준과 함께 전주감영에 의송단자를 전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김홍기, 황내문, 이기동 등과 함께 남원에서 기포하였으며, 김개남과 함께 남원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김개남이 청주로 복상하자 남원에 남아 운봉전투를 지휘하였다.

그리고 동학혁명 이후에는 越山渡水하면서 유리절식을 하는 등 연명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1904년 동학교단의 문명개화운동인 진보회를 조직하여 후의단발을 이끌었으며 1906년 천도교 남원교구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후 남원교구의 주요 교역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3.1운동과 신간회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일제강점기 남원지역 민족운동의 중심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해방 후에는 남원지역의 건국위원장을 맡아 건국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 남원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정유왜란, 남원고사 등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남원의 근대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개척 분야가 아닌가 한다.

2) 유태홍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윤영근, 윤영근, 「근대사의 파도를 온몸으로 살아낸 지도자-남원 항일운동의 선각자 유태홍」, 『문화저널』 105, 1997.2, 전북문화저널사와 줄고인 「남원의 항일운동가 향암(香菴) 유태홍(柳泰洪)」, 『신인간』 569, 1998.1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태홍에 대한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방 전까지 유태홍의 생애를 통해 그의 민족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동학에 입도하고 동학혁명에 참가하다

향암 유태홍은 1867년 9월 2일 전북 남원군 이백면 周智峯 아래 木斗里<sup>3)</sup>에서 아버지 柳福烈(1839-1879)과 어머니 순흥안씨(1838-1919)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靈光으로 中祖 柳資澤의 18세 孫으로 누대에 걸쳐 남원에 세거하였다. 유태홍 家는 오랫동안 孫이 귀하여 독자로 대를 이어왔는데, 아버지 대에 이르러 2남2녀를 둘 정도로 손이 번창하였다. 유태홍의 원명은 時洪이고, 자는 士興, 호는 香菴이다.<sup>4)</sup> 그가 태어난 목두리는 科里로 백암면에 속해있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과리, 입촌리와 파과리 일부를 병합하여 과리와 입촌리의 이름을 따서 과림리(科笠里)라 하고 이백면에 편입되었다. 과리라는 지명은 柳寄童이란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 벼슬을 하며 살았기에 '과리'라고 했다는 설과 벼슬한 사람들이 운집하여 살았다하여 불리었다는 설이 있다. 또한 과리마을의 주봉인 주지봉은 해발 630미터로 신선이 노닐었다는 전설이 있다.

유태홍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은 없지만, 범상치 않아 커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한다. 그러나 13세에 아버지를 여윈 유태홍은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낸 유태홍은 조선말기 만연된 부조리한 사회에 적지 않은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던 차 남원일대에 동학이 포교되자 1889년 동학에 입

3) 윤영근의 글에 의하면, 유태홍은 '1869년 남원군 이백면 남계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족보에 따른다. 이는 3.1운동 당시 남계리에 거주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 『靈光柳氏族譜』 坤.

도하였다.

남원지역에 동학이 처음으로 포교된 것은 1862년이였다.<sup>5)</sup> 하지만 이 시기의 동학은 널리 유포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1885년에 이르러서 남원지역에 동학이 본격적으로 포교되었다. 당시 임실에서 활동하던 崔鳳成<sup>6)</sup>이 남원 오수에 사는 姜允會와 그의 종형 金洪基에게 동학을 전하였다.<sup>7)</sup> 김홍기는 최봉성의 사위였다. 이후 김홍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1890년 즉 한창 청년기인 22세 때 유태홍은 金榮基 · 金鍾友 · 李起冕 · 李起東 · 黃乃文 · 李圭淳 · 崔鎭岳 · 邊洪斗 · 鄭東勳 등과 함께 동학에 입도하였다.<sup>8)</sup>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태홍이 동학에 입도한 것은 날로 쇠퇴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날로 강성해가는 외세의 침입에 전율과 분노를 느껴서였다고 한다.<sup>9)</sup> 유태홍은 동학의 보국안민과 척양척왜의 사상에 공감하고 동학에 입도한 것이다.

동학에 입도한 이후 유태홍은 남원대접주 김홍기, 그리고 함께 입도하였던 김영기, 김종우 등과 더불어 동학의 포교에 전념하였다. 그로 인해 이해 말경에는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남원지역 동학의 교세는 크게 신장하였다. 2년 후인 1892년 동학교단에서 동학의 공인과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이해 겨울 전주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교조신원운동은 삼례에 앞서 공주에서 먼저 전개되었지만 동학의 공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동학교단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삼례에서 전주 감사를 대상으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삼례에서 전개된 교조신원운

5) 『宗理院史附東學史』, 남원종리원, 1924, 포덕 2년조. 이 자료는 유태홍 등의 구술을 남원군종리원 주임종리사 崔炳鉉이 1924년 9월에 채록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1862년 남원지역의 동학 포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布德 2年 辛酉 6月에 大神師 湖南으로 向하사 山川風土 人心風俗을 觀하시고 本郡에 到하사 廣寒樓下 烏鵲橋邊 徐亨七家(當時 藥房)에 留하시고 主人 甥姪 孔昌允家에 宿寢하사 留數十日에 徐亨七 孔昌允 梁亨淑 梁局三 徐公瑞 李敬九 梁得三 諸賢의 同情으로 布德하시다.”

- 6) 崔鳳成은 자는 贊國, 호는 芝圃이며 1873년 동학에 입교하여 壬辰癸巳 교조신원운동과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다. (『천도교임실교사』)
- 7) 표영삼, 「전라좌도 남원지역 동학혁명운동」, 『교리교사연구』 2, 교서교사편찬위원회(천도교중앙총부), 1999, 4면.
- 8) 『宗理院史附東學史』, 포덕 30년조.
- 9) 윤영근, 앞의 글, 30쪽.

동에 대해 『종리원사부동학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全三十三年(1892년-필자주) 壬辰 秋에 大神師(수운 최제우-필자주) 伸  
寃 次로 各道 道人이 全州 參禮驛에 會集할 時에 本郡 道人 數百이 往  
參하야 議送할 새, 官吏의 壓迫危險으로써 訴狀을 告呈할 人이 없어서  
疑訝惶恐 中에 左道에 柳泰洪, 右道에 全琿準氏가 自願出頭하여 觀察府  
에 訴狀을 提呈則 觀察使가 營將 金始豊을 命하여 出兵 散會하였고<sup>10)</sup>

이에 의하면, 유태홍은 남원지역의 동학교인 수백 명을 지휘하여 삼례에  
서 전개된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였고, 전봉준과 함께 전라 좌우도를 대표  
하여 소장을 전라 감영에 제출하였다. 즉 삼례교조신원운동에서 전라 좌도  
를 대표한 유태홍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宗理院史附東學史』에 의하면 이듬해 1983년 정월에 전봉준이倡  
義文을 지어 각 관아에 붙일 때 유태홍은 구례지역을 담당하였다. 이밖에  
남원에는 김영기, 운봉에 金聖基, 곡성에 金在泓이 각각 담당하였다. 남원  
유생 金在洪이 쓴 『영상일기』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  
다.

10) 『宗理院史附東學史』, 포덕 33년조. 이에 비해 『天道教南原郡東學史』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全三十三年 壬辰 冬에 大神師 伸寃의 件과 各郡 官吏 土胡丁 性格을 改善키 爲하여 各道 道人 三萬餘名이 公州觀察府에 訴狀을 提出다가 未果하고 全州 參禮驛에 又 大會하여 徐秉學의 文筆로 訴狀을 陳送하여 議送코자 할 새 官吏壓迫의 威嚴으로 因하여 訴狀을 告呈할 人이 없어서 躊躇彷徨 中에 右道에 全琿準 左道에 柳泰洪氏가 自願出頭하여 觀察府에 訴狀을 提呈한즉 觀察府가 營將 金始豊을 命하여 火鎗軍(一名 羅伍軍) 三百 餘名을 率하고 全州 寒川에 來하여 通知 曰 東學 魁首가 誰인지 來하라함에 徐仁周(號日海) 答曰 營將 金始豊이가 此處로 來하라 한즉 始豊이 率兵施威하고 參禮 卽來하여 兵率을 左右에 羅立하고 裂目視之 曰 爾等이 如何 聚黨하여 太平聖世에 民心을 眩惑하느냐. 徐仁周 答曰 忠君上孝父母의 道로 安心修道하며 各安其業하거늘 爾官吏輩가 修道人을 傷害하여 掠財殺人하기에 抑鬱의 心을 不勝하여 議送을 提呈한 일이 어찌 民心을 眩惑한 일이나. 金始豊이 拔劍斲地 曰 이 칼로 斬之하리라. 칼 반아라 한데 徐仁周 完然이 答曰 칼 반기야 어렵지 않다. 치러면 치라 한데 金始豊이가 日時間이나 裂視하다가 正坐하며 謝曰 내가 日前에 들은 바 東學이 亂黨이라 하기에 나의 堂姪兄弟가 東學에 犯하였다 하기로 絶對로 禁하였더니 今日에 와본즉 前言과 反對로 事實 寬大한 道인즉 上官에 告達하여 依願解結하여 줄 터이니 各歸其家하여 各修其道하고 各安其業하라 하기로 卽時 解散할 새”

동학이 倡義를 칭하면서 은밀히 전라도 여러 고을 관아에 榜文을 붙였다. 그 내용은 倭洋

과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횡행하지만 전혀 제어할 수가 없어 자신들이 그들을 소멸시키려고 행동하니, 관에서 각기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아, 이 무리들이 倭洋을 배척하는 것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가상하지만, 그들 스스로 난리의 화근이 되지 않을 것이 없었다.<sup>11)</sup>

또한 유태홍은 이해 2월 8일 광화문에서 전개한 교조신원운동에도 참가하였다. 이어 보은에서 개최된 척왜양창의운동에도 참가하고자 하였지만 거리와 시간상 보은에 이르지 못하고 원평에 모여서 척왜양창의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원평에서 보은으로 가려고 진산에 이르렀을 때 보은의 동학 교인이 해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원으로 되돌아왔다.<sup>12)</sup>

1894년 1월 10일 고부기포를 기점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유태홍도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유태홍은 고부기포와 무장기포, 그리고 백산대회 등으로 이어지는 1차 동학혁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남원의 동학 조직 전체가 1차 동학혁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왜 남원의 동학 조직이 1차 동학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유태홍도 자신의 구술을 정리한 『宗理院史附東學史』에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sup>13)</sup> 다만 『영상일기』에 의하면, 고부의 동학군이 영남지역 침범을 막기 위해 남원 운봉 팔랑치에 주둔하였는가<sup>14)</sup> 하면

11) 「영상일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2009, 9-10쪽.

12) 『宗理院史附東學史』, 포덕 34년조.

13) 그런데 동학사에 의하면 1차 동학혁명 시기에 남원에서 김홍기, 이기동, 최진학, 김태옥, 김종학, 이기면, 이창수, 김우칙, 김연호, 김시찬, 박선주, 정동훈, 이교춘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113쪽)

14) 「영상일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25쪽.

초토사가 남원부에 슈을 내려 소 10마리와 말 20필을 납부하라<sup>15)</sup>고 하였던 것으로 보아 남원지역에서는 관군의 방어가 여느 지역보다도 치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지역에서는 직접 동학군이 기포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봉준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호남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되자 남원지역의 동학세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혁명 대열에 동참하였다. 더욱이 김개남이 남원에 진주하면서 남원지역의 동학군은 폐정개혁을 단행하는 등 집강소 통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유태홍 역시 동학혁명 대열에 적극 참여하였다. 김개남이 남원에 주둔하였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소三十五年 甲午에 稅政改革인 革命運動에 金開男 全瑋準이 本郡에 來하여 五營(前營, 後營 左營 右營 中營)을 設立하고 四十九日 留陣할 새 每營에 一元將, 二元將, 軍守將, 營將을 置하였다.<sup>16)</sup>

전주화약 이후 전주성을 철수한 전봉준은 김개남과 호남지역을 순회하였다. 그리고 전봉준은 호남 우도를, 김개남은 호남 좌도를 각각 관할지역으로 분할하였다.<sup>17)</sup> 김개남은 자신이 관할할 호남 좌도의 근거지를 남원으로 선정하였다. 6월 25일 남원에 주둔한 김개남은 五營을 두는 한편 省察, 統察 등 수십 명을 두었다.<sup>18)</sup> 유태홍을 비롯하여 남원의 동학지도자들은 김개남을 도와 동학 조직을 체계화하는 한편 폐정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 시기 남원지역 동학군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영상일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50쪽.

16) 『중리원사부동학사』, 포덕 35년조.

17) 「갑오약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79쪽.

18) 『천도교남원군동학사』, 포덕 35년조.

적(동학군-필자주)의 괴수 김개남이 남원에 들어갔는데, 잔악한 행동이 특히 심하여 민간의 총과 말을 찾아내었다. 먼저 들어간 자가 이미 탈취하여 떠났는데 뒤에 온 자가 또 수색하여 빼앗겼다고 말을 했지만, 도리어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고 여겨 온갖 형벌과 옥을 하였다. 총과 말을 돈으로 대신 추심하여 빼앗아가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 적당이 각 곳에서 都會하였는데, 그 무리가 수천 명이였다. 여러 고을에는 모두 접주가 있는데, 대접은 수만 명이 있고 소접은 수천 명이 있었다.<sup>19)</sup>

즉 동학군은 총과 말로 군세를 확보하는 한편 각 지역에 都會를 두었다. 이들 중 큰 접은 수만 명, 작은 접은 수천 명에 달하였다. 이로써 남원은 김개남 동학군의 통치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원의 동학군인 인근의 7, 8개 읍을 장악하였다.<sup>20)</sup> 이처럼 김개남휘하에 동학군을 이끈 인물은 유태홍과 김흥기를 비롯한 남원의 토착 동학 세력과 진안 출신의 이사명, 담양 출신의 남응삼, 보성 출신의 안규복 등이였다. 이로써 김개남의 동학군은 유태홍 등 남원의 토착 동학세력과 강한 결속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남원에 주둔하는 동안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폐정개혁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해 9월 삼례기포 이후 남원의 상황은 바뀌었다. 동학혁명의 2차 기포 이후 김개남은 청주 방향으로 북상함에 따라 남원지역에는 유태홍, 김흥기 등 토착 동학세력만 남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동학세력에 눌러 있던 유생들은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군 진압에 적극 나섰다. 민보군 조직의 중심지역은 운봉이었다. 운봉은 지리적으로 지리산 등 산악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로서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동학군도 운봉 진출을 여러 번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점령한 바 있지만 운봉은 여전히 박봉양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군에 대

19) 「영상일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32쪽.

20) 강송현, 「남원권 동학농민전쟁의 전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1-22쪽.

항하였다. 박봉양이 조직한 민보군은 운봉뿐만 아니라 함양을 비롯하여 진주, 산청, 안의 등지의 유생들도 참여하였다.

김개남이 10월 14일 남원을 떠나자 남원은 한동안 힘의 공백상태였다. 대부분의 동학군이 김개남을 따라 함께 북상하였다. 김개남은 남원을 떠나면서 이규순에게 남원성을 지키도록 하였지만 이규순은 남원성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민보군은 10월 24일 남원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민보군은 3일 후 관속들에게 성을 맡기고 운봉으로 돌아갔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10월 25일경 유태홍 등 남원의 동학군은 남용삼, 이규순 등과 더불어 남원성을 다시 점령하였다. 남원성에 재집결한 동학군은 전세를 정비하는 한편 민보군과 관음치에서 대규모의 전투를 치루었다. 『천도교남원군동학사』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其後 本郡에 남아있는 道人은 홍양의 유복만, 담양의 남용삼, 태인의 정창규, 김련구, 진안의 이사명, 금구의 김봉덕, 임실의 최승우 등 大接이며, 本郡 김흥기, 황내문, 이규순, 이기동, 박세춘, 유태홍, 변홍두, 최진악, 김소호, 심노환, 조동섭 등이 각기 數千人式 率하고 全年 十日月에 郡東 방아재(砧峙)에서 운봉 박봉양과 접전하다가 패진하여 사상자가 數百人이었다.<sup>21)</sup>

관음치전투에 참여하였던 유태홍은 11월 14일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민보군과 치열한 일전을 벌였다. 그렇지만 이 전투에서 동학군 측은 이용구, 박중래, 고한상, 조한승, 황문경 등 주요 접주를 포함하여 2천여 명이 희생되었다.<sup>22)</sup> 이에 유태홍 등 동학군은 남원성으로 후퇴하여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守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1월 28일 운봉과 남원

21) 인용문에서는 방아재에서 전투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전투는 관음치전투였다. 방아재전투는 이보다 앞서 10월에 남원군 부절면에서 민보군과 동학군의 소규모의 전투가 있었다.

22) 「박봉양경력서」,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245쪽.

의 민보군이 연합하여 남원성을 공격하자 동학군은 끝내 수성하지 못하고 성을 내주었다.<sup>23)</sup> 유태홍은 남원성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동학군 5백여 명을 이끌고 순천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순천의 민보군에게도 패전하여 마침내 해산하고 말았다.<sup>24)</sup> 이후 유태홍은 유리결식하면서 지리산 등지에서 숨어지냈다.

### 3. 남원교구를 설립하고 3.1운동의 서장을 열다

동학혁명 이후 떠돌아다니며 은신생활을 하던 유태홍은 동학에 대한 탄압이 진정되자 1895년 가을 고향으로 돌아왔다. 동학혁명에서 살아남은 김종황, 하영석, 김재홍, 박진경 등과 함께 옛 동학교인들을 찾아 교세를 회복하는데 진력하였다. 그렇지만 교세회복은 쉽지 않았다. “指目の觸忤에 道人끼리 서로 만나도 他人所視에는 深厚한 濫情을 表現치 못하고 서로 路人視하듯 하며 서로 눈(目)치로써 心志相通”이라고 하였듯이, 은밀히 교세를 회복시켰다.<sup>25)</sup>

1904년 동학교단이 ‘후의단발’로 상징되는 문명개화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게 되자 동학혁명에 참여하고 이후 동학교단을 이끌어 온 유태홍은 장남선, 김종황, 이기동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해 8월 5일(음) 서울에서 8월 30일까지 각 지역에서 진보회를 조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문<sup>26)</sup>이 내려오자 남원에서조차 진보회를 조직하고 동학교인은 유태홍, 장남

23) 『천도교남원군동학사』; 「박봉양경력서」,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247-248쪽.

24) 『천도교남원군동학사』.

25) 『천도교남원군동학사』.

26) 당시 서울에서 전국 지방에 발송한 진보회 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저 인민은 국가의 원기요 회사는 인민의 정론이니 잠시도 서로 떠나지 못할 자는 원기요 혼 날도 업지 못할 자는 정론이라. 우리나라 삼천리 강토와 이천만 인민이 족히 풍교를 유지해야 문명의 진보하겠거늘 정부 제씨가 취한 꿈을 깨지 못하여 비단 교식지계로 구차히 지낼 뿐 아니라 안으로 성총을 응폐하고 밖으로 생명을 포박하여 가혹한 정수로 압제하여 무죄한 백성이 점점 더욱 도탄에 빠지니, 오호 통제라. 나라 흥망이 오직 민심이 동일함과 각산하는데 잇느니 첨

선, 김종황, 이기동의 주도 아래 일제히 단발하였다.

1906년 서울에 천도교중앙총부가 설립되고 일진회의 친일활동이 점차 노골화되자 일진회를 통한 민회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교회분석(敎會分析)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진회에 가입 활동하였던 천도교인들은 퇴회신교(退會信敎)하고 신앙활동만 하게 되었다. 이어 지방조직으로 교구를 설립함에 따라 남원에도 유태홍, 김종황, 박진경 등이 중심이 되어 남원교구가 설립하였다. 유태홍 등은 1906년 6월 19일 남원군 고도정리(古道井里)에 처음으로 교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교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이듬해 1907년 1월 둔덕면 관동리 이기동의 집으로 이전하였다. 관동리의 교구실 역시 위치상 교인의 왕래 등 불편함에 따라 이해 12월 12일 오수(熬樹) 서촌리(西村里)로 다시 이전하였다. 이후 남원교구는 1908년 5월 7일 오수상무소(熬樹事務所), 8월 11일 오수의 박영환(朴永煥)의 집을 월세로 매입하여 이주하여 이전하는 등 일정한 교구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장남선, 이기동, 김종황의 발의와 하영석, 박진경, 유태홍 등 3인의 찬조, 박희영, 유태홍, 김성재 3인의 후원으로 교구를 마련하였다. 이후 남원교구는 1909년 9월 오수 차후리(次后里) 김현대(金顯大)의 집으로 이전하고 11월 6일 교리 및 보통강습소를 설립 교육활동도 전개하였다.

이처럼 유태홍은 남원교구를 설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전제원,<sup>27)</sup> 공선원,<sup>28)</sup> 금윤원,<sup>29)</sup> 교구장,<sup>30)</sup> 서응원, 강도원, 전교사<sup>31)</sup> 등을 역임하면서 남원교구의 중심인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유태홍은 천도교인으로서 종교인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도 적지 않은 활동을 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이 남원지역 3.1운동과 1920년대

---

군주는 동성과 동기로 일제히 분발하여 기약에 본회로 래도하여 당당한 정론으로 정부에 현의하여 우리 강토를 보전하고 우리 생민을 구활함을 천만옹축하노라. 회장 리용구 부회장 권종덕”(『대한매일신보』 1904년 10월 14일자)

27) 『천도교회월보』 15호, 67면.

28) 『천도교회월보』 16호, 68면.

29) 『천도교회월보』 49호, 42면.

30) 『천도교회월보』 92호, 52면.

31) 『종리원사부동학사』.

중반 전개되었던 민족연합전선의 신간회운동이다. 천도교는 1910년 8월 29일 일제강점 이후 비밀결사를 통해 민족운동을 꾸준히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시되었던 민족자결주의와 결합하여 3.1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천도교중앙총부는 각 지역 교구의 주요 지도자를 불러 우이동 봉황각에서 49일기도를 진행하는 한편 지방에서도 일정한 장소에서 특별기도를 하도록 하였다.<sup>32)</sup> 이때 유태홍은 박영기, 최병현 등과 장수군 팔공산 팔성암에서 49일기도를 마쳤다. 유태홍은 비록 봉황각에서 실시한 49일기도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49일기도에 참석한 바 있는 장남선, 김종황, 이기동 등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3.1운동을 주도하였다.

1918년부터 남원교구장을 맡고 있던 유태홍은 평소 중앙총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국내의 정세를 파악하였다. 유태홍은 천도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19년 2월 유태홍은 아들 柳錫(柳宗錫), 최병현 등은 서울에서 손병희를 중심으로 민족지도자들이 독립선언을 계획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유태홍은 유석, 최병현과 함께 자신들이 남원과 인근 지역의 책임자가 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태홍은 순창, 장수, 무주, 진안, 광주, 전주 등지의 천도교인들에게 최병현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서울의 동향을 전달하고 서로 협조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준비토록 하였다.<sup>33)</sup>

이처럼 유태홍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남원에는 1919년 3월 2일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가 도착하였다. 1차적으로 이날 새벽에 임실군 오수면에 거주하는 남원교구 전교사 이기동에게 전달되었고, 이어 덕과면 사율리의 이기원에게 전달되었다. 이기원은 독립선언서 40매를 받아 아침 9시경 교구를 찾아가 교구장 유태홍에게 전달하였다. 유태홍은 곧 바로 유석, 최병현, 김성재 등 교구의 주요인물을 불러 만세운동에 대한 취지와 현재의

32) 이 시기 천도교중앙총부는 49일기도를 하면서 '以身換性'을 통해 독립정신을 고양시켰다. 그리고 49일기도에는 전국적으로 483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이후 지방에서 3.1운동을 주도하였다.

33) 윤영근, 「근대사의 파도를 온몸으로 살아낸 지도자-남원 항일운동의 선각자 유태홍」, 30-31쪽.

상황을 설명한 다음 이날 밤 야음을 이용하여 군내 각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케 하였다. 이외에도 독립선언서는 황석현-김덕인, 황동주에게 전달되어 남원시내의 법원, 헌병대, 군청 등의 게시판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독립선언서가 부착되었다.<sup>34)</sup> 이어서 유태홍은 이튿날 새벽 평소 연락처로 삼고 있던 남원읍 금리 이모씨의 집에서 몇몇 천도교인들과 남원지역의 만세운동을 모의하던 중 남원 헌병대에 피체되었다. 독립선언서 부착사건으로 인해 유태홍은 '보안법'에 적용되어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아들 유석과 함께 활동하였던 김성재는 징역 3개월을 각각 언도받았다.<sup>35)</sup>

이처럼 만세운동을 모의하던 유태홍과 천도교인이 검거됨에 따라 남원지역의 3.1운동은 20여 일 후인 3월 23일에 이르러서야 전개되었다. 다행히 헌병청의 검거를 모면한 최병현은 3월 23일 남원향교에서 남원교구 주최로 독립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언식에는 천도교인을 비롯하여 유생 등 3백여 명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미리 정보를 알고 달려온 헌병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해산되었다. 이후 4월 3일 덕과면 만세운동, 4월 4일 남원 북시장

34) 『독립운동사』 제3권(3.1운동사 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537-538쪽 ; 윤영근·최원식, 『남원항일운동사』, 남원시·한국문인협회 남원지부, 1999, 211-212쪽.

35) 「유태홍 외 2인 판결문」.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남원군 이백면 남계리 농업 피고 유태홍 53세.

전라북도 남원군 이백면 남계리 농업 피고 유석 30세.

전라북도 남원군 산내면 대정리 농업 피고 김성내 46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서업무취급 조선총독부 경시 安武基熊 간여하에 심리 판결함이 아래와 같음.

피고 유태홍은 천도교 남원교구장으로서 대정 8년 3월 2일 오전 9시경 남원면 금리 소재 천도교구에서 남원군 덕과면 사율리 이기원 외 1명으로부터 경성 천도교주 손병희 외 32명이 연기한 조선독립에 대한 불온문자를 열기한 선언서라 題한 인쇄물 40매를 수령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유석, 김성재 외 3명에 대하여 인쇄물의 내용을 알리고, 그날 밤 어둠을 틈타서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선언서를 첨부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사람에게 선언서를 나누어주고, 같은 밤에 여러 곳에 선언서를 첨부케 하여 민중을 盡惑케 함으로써 인심을 동요케 하여 치안을 방해케 한 자이며, 피고 유석과 김성재는 같은 천도교인으로서 대정 8년 3월 2일 오전 10시경 천도교구에서 교구장 유태홍으로부터 불온문자를 열기한 선언서 19매를 수취하여 피고 2명 외 최병현과 함께 그날 밤 선언서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게시판에 1매 외 8개소에 각 1매씩 사람이 알기 쉬운 장소에 첨부하여 민중을 盡惑함으로써 인심을 동요케 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임. 법에 비추어 보건데, 피고 유태홍, 유석, 김성재의 행위는 각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고 다 같이 그 징역형을 선정하며 주문과 같이 형에 처단케 하고 각 피고에 대해서는 형법 제21조에 의하여 미결구류일수 중 15일을 형기에 산입케 하고 기타는 몰수치 아니함으로써 형사송법 제202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완부함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함”

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sup>36)</sup>

비록 유태홍은 남원지역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3.1운동이 전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태홍에 의해 시작된 남원의 3.1운동은 함께 활동한 최병현에 의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편 유태홍은 남원뿐만 아니라 구례지역의 3.1운동을 전개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3월 2일 독립선언서를 받은 유태홍은 천도교인 金鍾雄으로 하여금 천도교 구례전교실로 전달하였다. 마침 시일날인 관계로 朴興來의 집에서 종교의식을 가진 다음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구례 전역에 배포키로 하였다.<sup>37)</sup> 이어 면사무소와 헌병대 게시판과 인적이 많은 곳에 독립선언서를 부착하였다.<sup>38)</sup> 이로써 구례지역 3.1운동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1년의 옥고를 치른 유태홍은 여전히 남원교구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족자결사상과 독립사상을 교인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러나 일경은 끊임없이 유태홍을 감시하였고, 작은 일에도 출두명령을 내려 사사건건 그를 괴롭혔다.<sup>39)</sup> 이러한 와중에서도 유태홍은 1927년 2월 15일에 결성된 신간회에 참여하여 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36) 『독립운동사』 제3권(3.1운동사 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537-543쪽 ; 윤영근·최원식, 『남원항일운동사』, 남원시·한국문인협회 남원지부, 1999, 242-260쪽.

37) 담당구역과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김공현과 허탁 : 내산면 외산면, 박흥래와 강정택 : 용방면 광의면, 박성래와 서유중 : 토지면 구례면.

38) 『독립운동사』 제3권(3.1운동사 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583-584쪽.

39) 윤영근, 「근대사의 파도를 온몸으로 살아낸 지도자-남원 항일운동의 선각자 유태홍」, 32쪽.

#### 4. 민족연합전선의 신간회를 조직하고 이끌다

3.1운동 이후 국내의 민족운동은 기존의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분화된 상황에서 두 민족운동 세력들은 독자적인 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민족협동전선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로 1927년 2월 15일 신간회를 결성하였다. 이에 지방에서도 종교단체 뿐만 아니라 청년단체 등에서 신간회를 적극 지지하였고, 지회를 설립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신간회 결성 당시 천도교는 신파와 구파로 분화되었는데, 구파는 신간회 결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처럼 천도교 구파세력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된 신간회에 대해 구파의 전위단체인 天道敎靑年同盟은 동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년동맹은 신간회보다 약 1년 전 1926년 4월 3일 조직하였다.<sup>40)</sup> 신간회 창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동맹은 1927년 12월 25일 동맹대회를 개최하고 '민족적 단일당' 즉 신간회를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sup>41)</sup> 이에 따라 천도교 구파는 청년동맹을 통해 신간회 본부뿐만 아니라 청년동맹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신간회 지회 조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천도교 구파에 속하였던 남원교구는 신간회 남원지회(이하 남원신간회)의 결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태홍이 있었다. 남원신간회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 유태홍의 역할을 추적해보자 한다.

남원신간회가 설립된 것은 1927년 8월 12일이다. 서울에서 신간회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남원지역 유지들은 신간회 설립을 준비하여오던 중 중앙에서 신간회 설치 승인이 내려오자 8월 12일 오후 3시 남원청년회관에서 金熙一의 사회로 설립대회를 개최하였다. 朴琪永의 개회사, 임시집행부

40) 「天道敎靑年同盟創立總匯會錄」, 『천도교회월보』 184호, 1926. 4, 39면.

41) 「天道敎靑年同盟大會의 件」,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3)』, 종로경찰서, 1927. 12. 27(문서번호 鐘路警高秘 제14900호).

선거, 경과보고, 강령 규약 통과 순으로 진행된 후 지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였다.<sup>42)</sup> 이날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회장 : 박기영

부회장 : 梁柱夏

총무간사 : 유태홍 李鳳來 崔炳鉉 李光壽 金熙一

상무간사 : 李斗用 金葉春 任碩一 金相文 姜基周

간사 : 金昌演 李明來 柳宗錫 李容器 姜在得<sup>43)</sup>

유태홍은 신간회 설립대회에서 총무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아들 유종석은 간사로 선임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간회에 참여하는 사례이다. 이어 이날 6시 임원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 집행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유태홍은 선전부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설립 당시 선임된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무부 : 이봉래 김상문

재무부 : 최병현 이두용

정치문화부 : 이광수 김엽춘

조사연구부 : 김희일 강기주

선전부 ; 유태홍 임석일<sup>44)</sup>

남원신간회 설립의 주도세력은 천도교 남원교구와 남원청년동맹이었다.

42) 「신간남원회 설립」, 『동아일보』 1927년 8월 16일자.

43) 「신간회 남원지회 조직」, 『중외일보』 1927년 8월 16일자.

44) 「남원에 신간회지회 설립」, 『조선일보』 1927년 8월 17일자 및 「신간회 남원지회 조직」, 『중외일보』 1927년 8월 16일자. 그리고 이날 임원회에서 유립단 추행사건에 관한 건으로 남원청년동맹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조사원으로 박기영, 김희일, 김상문을 선임하였다.

신간회 설립의 한 축을 담당한 남원청년동맹은 신간회 설립일인 8월 12일 오전 11시에 창립대회를 가졌다. 그동안 남원지역의 청년운동을 이끌던 양주하, 이두용, 김엽춘 등은 분산적이고 국부적이며 비조직적인 남원청년운동을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단체를 해체하고 정치적 활약과 선전적 조직 활동을 위해 남원청년동맹을 창립하였다.<sup>45)</sup> 이날 남원청년동맹은 창립대회에서 “朝鮮民族의 利益을 代表할 수 있는 全民族的 單一黨인 新幹會를 支持하자”고 결의하여, 신간회 지회 조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천도교 역시 신간회를 지지한 바 있었다. 이로써 남원신간회는 유태홍, 최병현, 유종석 등 천도교 세력과 박기영, 양주하, 이두용, 김춘엽 등 남원청년동맹 세력의 연합전선의 성격을 지니고 출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신간회와 청년동맹은 연합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이해 9월 4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유림단 비행사건 보고 및 대책, 추기 연합학술대강연회 개최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sup>46)</sup>

남원신간회는 설립 4개월만인 1927년 12월 26일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재만동포 박해 문제로 남원경찰서에서 집회를 금지하여 부득이 928년 1월 15일로 연기하였다.<sup>47)</sup> 1월 15일 개최된 제1회 정기대회에서는 임원진을 개편하였는데, 유태홍이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선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臨時執行部를 選定하니 議長 朴琪永 書記 李斗容 查察 姜基周 씨가 피선되어 임원을 개선할 새 전형위원 李鳳來 외 4인이 피선되어 會長 某某를 記名하여 대회에 제출할 새 대회에서 신임 불신임 문제가

45) 「남원청년동맹 창립대회」, 『중의일보』 1927년 8월 16일자. 남원청년동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一, 本同盟은 우리의 合理的 組織을 促進하여 吾等의 解放을 期 함. 一, 本同盟은 朝鮮青年大衆의 歷史的 使命의 修行에 眞實한 役軍이 되기를 期함. 一, 本同盟은 朝鮮青年大衆의 階級的으로 敎育 及 訓練하기를 期함. 一, 本同盟은 朝鮮民衆의 浸漏한 封建的 思想을 退治하며 政治的 經濟的 覺醒을 促進함. 一, 本同盟은 朝鮮民衆의 解放運動을 積極的으로 援助함.

46) 「남원신간위원회」, 『동아일보』 1927년 9월 13일자.

47) 「남원신간대회 연기」, 『중의일보』 1927년 12월 27일자.

논의되다가 결국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전기 전형위원은 총사임을 하게 되고 다시 朴祥洙 외 4인의 전형위원이 피선되어 회장 모모를 기명하였으나 亦 불신임안 문제로 2차 총사임이 있는 후 이는 전혀 임시집행부가 건설치 못하다는 구실로 의장 이하가 총사임을 한 후 사회 박기영씨 下에 집행부 사임을 정식 수리하고 의장 梁柱夏 서기 김상문 사찰 이봉래가 피선된 후 다시 임원개선에 들어가 전형위원 박기영 외 4인이 피선되어 임원을 전형케 된 바<sup>48)</sup>

위 인용문에 의하면, 제1회 정기대회에서 임원개선이 원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임원개선을 위한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기명으로 회장을 추대하고자 하였지만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전형위원이 총사퇴하였다. 이어 다시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역시 같은 방법으로 회장을 추대하려고 하였지만 역시 불신임으로 전형위원이 총사퇴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회장 추대가 불신임으로 끝나자 임시집행부마저 총사퇴하였다. 새로운 임시집행부를 구성하고 전형위원이 중심이 되어 회장을 선임하였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유태홍이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남원청년동맹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여러 파벌로 분열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청년들은 남원신간회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천도교에 회장직을 넘겨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민족연합전선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기 위한 교육정책이 아닌가 한다. 당시 천도교 남원교구는 원만한 인격을 지니고 있던 유태홍이 회장으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이는 유태홍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제1회 정기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지회장 : 유태홍

48) 「남원지회 정기대회」, 『조선일보』 1927년 1월 20일자.

부회장 : 양주하

총무간사 : 박기영 이봉래 姜在得 최병현 刑光旭

상무간사 : 강기주 김상문 이두용 김엽춘 張仲鉉

간사 : 임석일 李鉉奎 文炳勸 陣在燮 李明來 朴祥洙<sup>49)</sup>

그리고 이날 정기대회에서는 조직 확대를 위한 班設置, 전국대회 건의안 작성, 일본 노동당과 제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전국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으로 박기영, 양주하, 김엽춘을 선출하였다.<sup>50)</sup> 이어 3월 30일에는 제1회 간사회를 열고 회관 건립, 전국대회 해체, 노농단체 촉진 등을 논의하는 한편 노동단체촉진준비위원을 선출하였다.<sup>51)</sup> 이후 남원 신간회는 유태홍 체제하에서 남원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어갔다. 이는 유태홍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 세력이 남원신간회의 조직과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하더라도 남원청년동맹의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았다.

유태홍 체제로 새롭게 구성된 남원신간회는 뚜렷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간사회를 통해 신간회의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였다. 다만 그 활동이 신문지상을 통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1929년 2월 4일 제5회 간사회를 갖고 2월 13일에 개최할 정기대회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날 대회준비위원으로 양주하, 김엽춘, 이두용, 강기주, 최병현, 金百鍊으로 선정하는 한편 회무정리와 원산노동쟁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sup>52)</sup> 이어 2월 13일에 개최된 제2회 정기대회에서는 의장 유태홍과 부의장 박기영의 주도로 임원 개편과 본부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정하였다.<sup>53)</sup> 그 내

49) 「남원신간 정기대회」, 『중외일보』 1928년 1월 20일자.

50) 「남원지회 대회」, 『동아일보』 1928년 1월 19일자.

51) 「신간남원지회 제1회 간사회」, 『중외일보』 1928년 4월 5일자. 노동단체촉진준비위원은 양주하, 金昌漢, 이두용, 박기영, 형광욱, 강제득, 장중현, 姜基國, 吳日榮, 김상문, 최병현, 김엽춘 등이다.

52) 「남원신간대회 래 13일에 개최」, 『동아일보』 1929년 2월 10일자.

53) 「남원신간대회 지난 13일」, 『동아일보』 1929년 2월 19일자.

용은 다음과 같다.

지회장 : 유태홍

부회장 : 李炫純

총무간사 : 김희일 양주하 박기영 최병현 이봉래

상무간사 : 이두용 김춘엽 장중현 양판권 강기주

간사 : 형광육 최현 강재득 이현수 김창한

본부대의원 : 양주하 김백련 김춘엽<sup>54)</sup>

그리고 이날 정기대회에서는 문맹타파, 농민운동 촉진, 본부대회 건의안, 지회 발전에 대해 토의하였다.<sup>55)</sup> 이어 속개된 총무간사회에서는 각 담당부서를 편성하는 한편 책임간사를 선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서무부 : 양주하 양판권

재무부 : 최병현 이두용

정치문화부 : 박기영 김춘엽

조사연구부 : 김희일 강기주

선전부 : 장중현 이봉래<sup>56)</sup>

이로써 남원신간회는 제2기의 유태홍 회장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남원신간회는 이해 8월 12일 제2회 임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지만 부득이한 사

54) 「신간남원지회 제2회 정총」, 『중외일보』 1929년 2월 19일자.

55) 「남원신간대회 지난 13일」, 『동아일보』 1929년 2월 19일자.

56) 「신간남원지회 제2회 정총」, 『중외일보』 1929년 2월 19일자.

정으로 29일 개최하기로 연기하였다.<sup>57)</sup> 그러나 29일 천도교당에서 개최하고자 하였던 임시대회도 당국이 박람회 기간 일체의 집회를 금지시킨다는 상부의 명령으로 인해 유회되었다.<sup>58)</sup> 이처럼 연기와 유회를 거듭하던 남원신간회는 당국과 협의한 결과 조건부로 10월 19일 천도교당에서 대표대회<sup>59)</sup>를 개최하고 집행위원제로 규약을 개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장 : 유태홍

서기장 : 김희일

서무재정부 : 金道斗 양판권 강기주

조사연구부 : 安允鎬 강재득

정치문화부 : 김춘엽 최병현

교육출판부 : 양주하 형광옥

후보 : 金龍洙 李鉉壽

검사위원 : 이현순 崔衡默 장중현<sup>60)</sup>

대표대회에서는 회장제에서 집행위원장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제3기 유

57) 「남원신지 임시대회 연기」, 『중외일보』 1929년 8월 16일자.

58) 「남원신간대회 임시대회 금지」, 『중외일보』 1929년 9월 2일자 ; 「신간 臨大 금지」, 『동아일보』 1929년 9월 4일자.

59) 「남원신간 대회」, 『동아일보』 1929년 10월 25일자 ; 「남원신지 총무간사회」, 『중외일보』 1929년 10월 26일자. 그런데 『동아일보』와 『중외일보』의 기사를 비교해보면, 회의 일자와 회의 장소 및 명칭이 다르다. 『동아일보』는 ‘10월 19일 오전 11시 천도교당에서 남원지회 대표대회를 열고’로, 『중외일보』는 ‘10월 20일 12시 同 회관 내에서 총무간사회를’이라고 하여 각각 다르게 보도하였다.

60) 「남원신간 대회」, 『동아일보』 1929년 10월 25일자. 이에 비해 『중외일보』에 의하면 새로운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유태홍, 서기장 김희일, 서무재정부장 김도수 부원 양판권, 선전조직부장 이봉래 부원 양기봉, 조사연구부장 안윤호 부원 강재득, 정치문화부장 김춘엽 부원 최병현, 교육출판부장 양주덕 부원 형광옥, 후보 김남수 이현수, 검사위원장 이현순 최형묵 장중현”

태홍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남원신간회를 이끌던 유태홍은 1930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신간회 전국대표대회에 남원신간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sup>61)</sup> 그러나 1931년 신간회가 해소되면서 남원신간회도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다. 유태홍은 남원신간회 설립의 산파역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남원지역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갈등의 남원신간회를 잘 통합하면서 해소될 때까지 무리 없이 이끌어 갔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향암 유태홍의 생애와 민족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남원은 고래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관계로 근대사에 있어서의 남원은 크게 두드러진 활동이나 인물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시기의 남원은 매우 축소지향적이고 연구 또한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유태홍 역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남원지역에서 유태홍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였을까. 윤영근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평한 바 있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로 집약되는 암울한 우리의 근대. 19세기 말~20세기 초 그 반대편에는 나라와 민족을 구렁에서 건져올리기 위해 몸부림이 항상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항일의병 등의 민족적 항쟁이 그것이다. 남원의 유태홍은 그런 항쟁의 봉우리를 관통한 인물이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의 접주로, 3.1운도의 지도자로 서서 남원의 민족운동을 주도하며 일제의 간섭에 항쟁했다.<sup>62)</sup>

61) 「新幹會代表會員選舉狀況ニ關スル件」, 京鍾警高秘 第14794號.

62) 윤영근, 「근대사의 파도를 온몸으로 살아낸 지도자 남원 항일운동의 선각자 유태홍(柳泰洪)」,

이는 유태홍을 가장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유태홍의 민족운동은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시기는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혁명이다.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고부에서 첫 기포한 동학혁명은 무장기포, 백산대회에 이어 황토현전투 승리를 계기로 동학군은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어 전주화약으로 호남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을 개혁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경복궁 불법점령으로 동학군은 다시 기포하여 대일항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유태홍은 집강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동학혁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는 남원의 반동학군의 활동으로 기포랄 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집강소 설치 이후 김개남의 주둔으로 동학혁명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후 운봉을 중심으로 한 민보군과 관음치과 남원성에서 전투를 치루었다.

둘째 시기는 3.1운동이다. 천도교는 일제강점 이후부터 민중시위를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두되었던 민족자결주의를 계기로 3.1운동을 전개하였다. 유태홍은 중앙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남원의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1919년 3월 2일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이를 남원 지역뿐만 아니라 구례지역까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피체되어 만세시위를 직접 주도하지는 못하였지만 남원의 3.1운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였다.

셋째 시기는 민족연합전선의 신간회운동이다. 3.1운동 이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분화되었던 민족운동은 민족연합전선의 하나로 1927년 2월 신간회를 결성하였다. 신간회 결성에 참여한 천도교 구파는 천도교청년동맹을 통해 적극 지지하였고, 지방조직은 신간회 지회 설립에 참여하였다. 이에 유태홍은 남원신간회 설립에 참여하였고, 이후 분열 직전이 남원신간회를 통합하여 해소할 때까지 원만히 지도하였다.

이러한 유태홍의 민족운동의 기반은 바로 동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태홍이 동학에 입도한 동기가 반봉건의 사회개혁과 반외세의 민족운동에 있었듯이, 그는 동학과 천도교의 이념으로 민족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였다. 이로 인해 유태홍은 동학혁명, 3.1운동, 그리고 신간회운동을 통해 남원지역 근대 민족운동을 관통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 제1주제 토론

◇ 제2주제

朴達成의 동학인식과 문화운동

조규태(한성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동학 입교와 천도교 교리의 강습
3. 사회관·종교관과 천도교에 대한 인식
4. 문화운동의 전개
  - 1) 천도교청년회에서 문화운동론의 전파
  - 2) 천도교청년당에서의 부문운동의 전개
5. 맺음말



## 1. 머리말

1860년에 최제우에 의하여 창시된 東學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신분적으로 차별받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학은 ‘서학’을 침병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물결 앞에서 儒·佛·仙의 동양적 가치와 정신을 지키려 한 동양문명의 방파제였다. 서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西學’을 비판적 타자로 설정하고 탄생한 東學은 서학이 運과 道の 측면에서는 동학과 같지만 理致의 측면에서는 東學과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동학의 사상은 서양문명의 확산 속에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곤란하였다. 宗旨는 바뀌지 않았지만, 교인들의 종교적 입장, 교리에 대한 해석은 서구사상의 수용과 확산에 따라 차츰차츰 변모되었다. 1904년의 ‘갑진개화운동’ 시, 동학교단은 문명개화를 지향하였고, 1905년 동학의 명칭을 천도교로 바꾸면서 교단과 교리와 교인의 근대화·서구화가 추진되었다. 단적으로 천도교의 신자들은 ‘學徒’에서 ‘敎人’으로 자처하였다. 3·1운동 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어 중앙총부를 장악한 서북 출신의 교인들은 신문화운동을 표방하면서 서구의 사상을 동학의 사상에 접목시켰다.

서구사상의 확산에 따른 동학사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있어왔다. 갑진개화운동과 천도교의 근대사상, 3·1운동 후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을 다루면서 동학사상의 서구적 변화를 검토한 바 있었다. 최근에는 이돈화, 김기전 등의 천도교 신문화운동의 주역들을 검토하면서 서구사상의 수용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동학교인들의 서구사상의 수용에 대한 입장과 이들

의 수용 논리에 대해서는 천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동학의 근대화·서구화를 반대하고 동학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였던 仙道敎(흙치교)의 교인들, 동학을 공산주의와 아나키즘·형평사상으로 해석하였던 교인들, 서구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소극적·적극적으로 동학을 해석하였던 교인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필자가 박달성을 연구하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1895년 평북 태천에서 출생한 박달성은 1920년대 천도교 신문화운동의 주역이었다. 그는 교리강습소에서 서구의 신지식과 문명론적 천도교의 교리를 학습하였다. 3·1운동 후 그는 천도교의 기관지인 『천도교월보』의 촉탁과 『신인간』의 주필로 천도교의 교리와 천도교인의 생활에 관한 많은 글을 기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도교청년회와 천도교청년당의 위원과 중앙집행위원으로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박달성의 생애와 사상과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서구의 자유주의사상을 수용하여 동학의 교리를 재해석하고, 이에 입각하여 활동한 천도교세력에 대해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박달성이 동학에 입교한 배경과 입교 후의 교리의 학습과정과 학습내용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이어 박달성의 사회관과 종교관, 그리고 그의 천도교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박달성의 문화운동의 전개에 대해 추적해보려 한다. 여기에서는 천도교청년회에서 그의 문화운동론 전과 활동과 천도교청년당에서의 부문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 한다.

## 2. 동학 입교와 천도교 교리의 강습

박달성의 호는 春坡·茄子峰人이고 道號는 夢菴이다.<sup>63)</sup> 박달성은 1895년 4월 9일 평안북도 泰川郡 院面 院豐洞 137번지에서 아버지 朴贊彬과 어머니 姜彬嬋 사이에서 출생하였다.<sup>64)</sup>

그의 고향은 청천강을 건너고 大寧江을 건너 嶺美에서 내려 산길로 60여 리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궁벽한 곳이었다. 이곳은 사방이 茄子峰을 비롯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겨우 닭의 등지만큼 터진 골로 院豐川이 흐르고 있었다. 전과 답은 반반이었고 산에 있는 수목은 땀감에나 보텔 정도였다. 호구는 15·6호에 불과하였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소작농민이었다. 이곳에는 물론 학교가 없고, 산 너머에 교회당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사숙이 있었다.<sup>65)</sup>

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는 7세부터 11세까지 私塾에서 한문을 수학하였지만<sup>66)</sup>, 그의 집의 재산은 1920~30년대에 1,300엔 정도에 불과하였다.<sup>67)</sup> 따라서 그는 꼴도 베고, 나무도 하고, 김도 매고, 추수도 하고, 마당질도 하고, 방아도 찼고, 짚신도 삼아보고, 새끼도 꼬아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sup>68)</sup>

박달성은 6살 되던 1900년 동학을 접하였다. 당시 평안도에는 東學風이 크게 일어나 방방곡곡에 접주의 왕래가 빈번하였는데 아버지가 이에 영향을 받아 26세 되던 1900년 2월 6일 고대령과 김접주의 聯臂로 입교하였다.

63) 『천도교회월보』, 『신인간』 등에 그의 호와 도호가 산견된다.

64) 『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11-12쪽, 2권, 223-224쪽.

65) 朴春坡, 「嗚呼 地方農村의 衰退」, 『개벽』 22호, 1922. 4, 75쪽.

66) 鳳谷, 「弔春坡林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67) 『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11쪽.

68) 박달성, 「몹시도 그리운 농촌의 겨울」, 『조선농민』 2권 1호, 1926. 1, 24쪽.

입교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학교인으로 활동하였는데 박달성은 이를 보고 자랐던 것이다.<sup>69)</sup> 그리고 아버지의 입교 2년 후인 1902년, 박달성은 아버지의 인도로 동학에 입교하였다.<sup>70)</sup>

박달성은 동학을 접하고 나서 동학의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부모가 하루 세 번씩 청수를 모시며, 동학의 주문을 외우고, 경전과 가사를 고성으로 불러 외우는 것을 보고 자랐다. 그리고 병이 걸렸을 경우, 약국이나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지 않고, 집안을 청결히 청소한 후, 清水와 주문, 혹은 符書로써 고치는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sup>71)</sup> 그러니까 박달성은 동학에 입교한 후 2년 정도는 전통적인 동학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04년 말 평북 태천에서 진보회가 개최되었을 때, 박달성은 동학의 근대화운동을 경험하였다. 그는 10살의 나이로 진보회원들이 군수와 鄕長을 징치하고 활개를 치는 것이며, 아버지가 양달이 양복에 국자보시에 분지나무 개화장까지 하고 읍내로 會所로 밤낮없이 출입하며 관찰사·군수를 바라던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단발을 하고 공단조끼를 입어보았다.<sup>72)</sup> 그러니까, 갑진개화운동 시, 그는 피상적이거나 개화의 물결을 바라보고, 이에 젖어보았던 것이다.

그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태천에 있는 천도교 교리강습소에서 보통학을 수업하였다. 그리고 1908년부터 1912년까지 동 강습소의 書記로 활동하였다.<sup>73)</sup> 교리강습소에서는 문명개화의 표시로 단발을 하며,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근대식 학문을 교육하였는데<sup>74)</sup>, 박달성은 사회진화론과 문명개화론

69) 朴達成, 「回顧 敎會生活二十有八年」, 『新人間』 12호, 1927. 5, 36쪽.

70)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71) 朴達成, 「回顧 敎會生活二十有八年」, 『新人間』 12호, 1927. 5, 36-38쪽.

72) 朴達成, 「回顧 敎會生活二十有八年」, 『新人間』 12호, 1927. 5, 38쪽.

73) 『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11-12쪽, 2권, 223-224쪽.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당성에는 1905년부터 1911년까지 교리강습소를 다닌 것으로 되어 있고, 『倭政時代人物史料』에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교리강습소를 다닌 것으로 되어 있다. 교리강습소는 1907년에 설치되었으므로 『倭政時代人物史料』의 기록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당성』에는 강사로 활동하였고, 『倭政時代人物史料』에는 書記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를 고려해볼 때 서기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 서구사상을 받아들였음에 틀림이 없다.<sup>75)</sup>

한편 그는 교리강습소에 다니고, 천도교회에 다니면서 천도교의 교리를 배웠는데, 그가 배운 천도교의 교리에는 문명개화론적 요소가 다분히 담겨 있었다. 천도교의 성립 직후 간행된 천도교의 대표적 교리서인 「대중정의」에는 “이 천도교의 사상문명이 현대문명의 前駕를 행함이 옳다”고 표현되어 있다.<sup>76)</sup> 그리고 1907년 3~4월 『만세보』에 연재된 「玄機問答」에서는 “사람마다 하늘 光彩로 文明하며, 짐짐마다 하늘 光彩로 文明하며, 세계가 하늘 光彩로 文明함이 敎의 精神”이라고 하였다.<sup>77)</sup> 또, “천도교인들로 하여금, 밖으로 행실과 법률과 실업,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의약 등을 문명제도에 맞게 하여 육신을 건강히 하라”고 표현되어 있다.<sup>78)</sup>

그에게 서구의 근대사상이 내면화되었던 것은 보성고등보통학교 시절이었다. 그는 1913년 4월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박달성은 2년간 수료한 후 1년 과정의 교원 숙성과를 마치고 1916년 3월 졸업하였다.<sup>79)</sup> 이 기간 동

74) 『천도교회월보』 36, 1913. 7, 한글부 20쪽

75) 任昌鎬, 「講習會의 別告」, 『천도교회월보』 58호, 1917. 6, 36쪽. 평남 順川郡 慈山面 隆德洞 강습소의 학생에게 훈유한 임창호의 말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청년은 年少한 고로 心이 尖하고 腦가 敏하니, 尖한 心은 外風에 습격되기 용이하고 敏한 腦는 世塵의 感染되기 常事인 고로, 먼저 道덕으로 제군의 脚跟을 정로에 고착케 한 후에 更히 제군에게 進化로 相輔하라. 모름지기 사람이 사람된 것은 그 進化 一途가 있기 때문일지니, 만약 進化思想이 없으면 先天에 木巢에 주거하고 金石을 신앙하던 것이 도리어 지금까지 미치어 層樹巨屋과 活敎大宗을 현세에 표출하기 終不得이니 然則 世의 文野와 人의 聖凡이 定類가 固無하고 단지 進化 二字의 영향 하에 昇降하나니 어찌 특히 我敎에 이르러선 그렇지 아니하겠는가?”

76) 천도교 중앙총부, 「대중정의」, 최기영·박맹수 편, 『韓末 天道敎 資料集』 1(國學資料院, 1997), 92쪽.

77) 천도교 중앙총부, 「현기문답」, 앞의 책, 354쪽.

78) 천도교 중앙총부, 「현기문답」, 최기영·박맹수 편, 『韓末 天道敎 資料集』 1(國學資料院, 1997), 351쪽. “敎는 밖으로 行實과 法律과 實業에 注意하여 名譽와 利益의 最優等을 自期하는데 衣服과 飲食과 居處와 藥을 各히 文明制度로 肉身에 適當한 度數를 맞추거니”

79) 『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11-12쪽, 2권, 223-224쪽.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박달성, 「回顧 十二年前, 내가 中學校를 맞추든 그 때」, 『별건곤』 5호, 1927. 3, 64쪽. 박달성의 보성고등보통학교 졸업 연도는 『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11쪽에는 1914년 졸업, 2권 223쪽에는 1918년 졸업, 「回顧 十二年前, 내가 中學校를 맞추든 그 때」에는 병진년 춘3월로 되어 있고, 『당성』의 「조춘파박달성도형」의 기록에는 19세에서 22세까지로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수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回顧 十二年前, 내가 中學校를 맞추든 그 때」와 「조춘파박달성도형」의 기록에 의거하면, 박달성은 1913년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15년 2학년 을 마치고, 1년간의 교원숙성과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고등보통학교의 학제는 손인수, 『한국교육사』, 문음사, 1998, 630쪽 참조).

안 그는 신식학문을 접하고 사회진화론이 지배하는 세계의 실상을 파악하고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하였던 그는 니체의 강력주의와 톨스토이의 인도주의, 성선설과 성악설 등 서로 양립되는 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sup>80)</sup> 그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민족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生을 찾느니 力을 기르느니 會니 結社”니 하고 실력의 양성에 관하여 토론하고, 단상에 올라가 주먹을 불끈 쥐고 웅변도 하였다.<sup>81)</sup>

또 한편 그는 우리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고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피트대제, 워싱턴 등 세계적 영웅의 행동을 모방하며 세계적 영웅 아니면 조선의 영웅이 되고자 하였다.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친일적 교사를 배척하기 위하여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가 무기정학을 당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별수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비밀히 국경을 넘어갔다가 3주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도 하였다.<sup>82)</sup> 요컨대 그의 보성고등보통학교 시절 그는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개인적으로 민족갱생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고뇌하였다.

보성고보를 졸업한 그는 1918년 강원도 평강군 昌東學校의 教師로 부임하여 2년간 근무하였다. 그리고 1919년에는 고향인 태천에 돌아가 태천교구의 共宜員으로 1년간 근무하였다.<sup>83)</sup> 그가 1919년 창동학교의 교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 태천교구의 공선원으로 활동한 것은 3·1운동을 목격하고 민족적 각성을 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80) 朴達成, 「엇던學生의告白 -十年前의學生과 至今의學生」, 『學生』 2권 1호, 1930. 1, 18-19쪽.

81) 朴達成, 「中學生과 夏期放學」, 『개벽』 72호, 1926. 8, 46-47쪽.

82) 朴達成, 「中學生과 夏期放學」, 『개벽』 72호, 1926. 8, 46-47쪽.

83)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 3. 사회관 · 종교관과 천도교에 대한 인식

박달성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국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박달성은 당시를 개조의 시대라고 보았다. 즉 그는 자기중심주의로 만인이 자기를 개조하고, 가족이 가족을 개조하며, 민족이 국가를 개조하고, 민중이 세계를 개조하여, 차별·귀천·불평등의 사회를 무차별·무귀천·무상하의 평등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시대라 보았다.<sup>84)</sup>

또한 박달성은 3·1운동 이후 1920년대를 신시대로 해석하였다. 그는 당시대가 “尊他主義로부터 尊我主義, 畏他主義로부터 敬我主義, 汎天主義로부터 我天主義로 변하였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중심 삼으며, 자기를 주인 시하여 往古의 모든 불합리·불평등 즉 虛僞妄作 등의 棄我·忘我·卑我的 陳陳腐廢를 일거에 大革祛” 하는 점에서 新時代라고 보았다.<sup>85)</sup> 요컨대 그는 당시를 나를 높이고, 나를 공경하며, 나를 하늘로 여기는 점에서 신시대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박달성은 앞으로 종교적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금후세계는 종교세계」라는 글에서, 그는 “耳로 聞하고, 目으로 睹하며, 時로 接하고, 日로 觸함에 어느 것이 종교의 聲, 종교의 光, 종교의 書, 종교의 事 아님이 없음을 의하여 被動인 듯한 自量도 있었고, 史를 接하여 歷代를 考하니 경험상 금후세계는 필히 宗教世界가 아니 될 수 없음을 覺하였다.” 고 하였다.<sup>86)</sup> 또 그는 “侵奪과 殺伐, 부도덕과 부정의가 횡행하는 지금 고통 받는 인류와 황폐한 이 세계는 위안의 도를 구하고, 각자의 천부적

84) 朴達成, 「개조의 성과 共히 세계는 어느듯 인내천세계」, 『천도교회월보』 129호, 1921. 5, 17쪽.

85) 朴達成, 「신시대를 문하노라」, 『천도교회월보』 121호, 1920. 9, 12쪽.

86) 朴達成, 「금후세계는 종교세계」, 『천도교회월보』 117호, 1920. 5, 1쪽.

양심을 계발하여 이제야 품부의 종교성이 現動되었고, 종교의 성이 高하고, 인류전체가 종교를 絶唱하고, 세계가 들어서 종교를 환영하는 사실로써, 이후의 세계는 종교의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았다.<sup>87)</sup>

그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종교 분야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88)</sup> 또, 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교개조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sup>89)</sup>

1. 유래의 종교는 현세를 부인하고 피세에 浮化하였다.
1. 유래의 종교는 타력적이며 노예적이다.
1. 유래의 종교는 인류 각자가 자기의 무능력을 자백하였다.
1. 유래의 종교는 신을 全知全能, 萬善萬能으로 事하였다.
1. 유래의 종교는 人 又は 현세계로써 최악이라 하였다.
1. 유래의 종교는 佛이나 耶蘇이나를 인간의 최상임을 추존할 뿐이었다.
1. 유래의 종교는 偶像이며 허위이었다.
1. 유래의 종교는 계급이며 차별이었다.
1. 유래의 종교는 부분적이며 便倚的이었다.

즉, 그는 기존의 종교가 피세적이고, 타력적·노예적이며, 무능력하고, 신을 全知全能·萬善萬能한 것으로 여기고, 현 세계를 최악으로 보고, 인간의 최상을 신으로 추존하고, 偶像과 허위를 숭배하고, 계급과 차별을 일삼고, 부분적·편의적인 단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종교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90)</sup>

87) 朴達成, 「금후세계는 종교세계」, 『천도교회월보』 117호, 1920. 5, 5쪽.

88) 朴達成, 「개조의 성과 共히 세계는 어느듯 人내천세계」, 『천도교회월보』 129호, 1921. 5, 17쪽.

89) 朴達成, 「개조의 성과 共히 세계는 어느듯 人내천세계」, 『천도교회월보』 129호, 1921. 5, 19쪽.

1. 금후의 종교는 인류생존의 현실세계를 미화하여야 될 것이다.
1. 금후의 종교는 자력적 신앙이며, 자주적 관념이어야 될 것이다.
1. 금후의 종교는 인류각자가 全知全能·萬善萬能임을 자각하여 스스로 스스로를 신앙케 함에 在하다.
1. 금후의 종교는 靈肉雙全을 주하여 현세와 미래계를 兩全하여야 될 것이다.
1. 금후의 종교는 萬人皆 神格을 주하여 平等自在로써 할 것이다.
1. 금후의 종교는 우주의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보편무궁이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그는 금후의 종교는 현실세계를 미화하고, 자력적·자주적이며, 인간을 전지전능·만선만능으로 인식하고, 현세와 미래계를 兩全하고, 만인의 神格을 주장하고, 우주의 진리를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종교개조의 방향에서 볼 때, 박달성은 천도교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상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였다. 즉 그는 천도교의 인내천주의를 “代案的 신앙을 破하고 合體的 신앙을 건설한 것이고, 畏他的 주의에서 我本的 주의에 이른 것이다.” 라고 이해하였다.<sup>91)</sup>

박달성은 천도교야말로 가장 진화한 新信仰, 眞信仰이라고 믿었다. 그는 교훈가의 “네 몸에 모셨으니 捨近取遠하단말가.” 라는 글귀가 “한올이 죽 나이니 내가 나를 믿으라는 破天荒의 法言”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주의 주인도 나, 만물의 長도 나, 神聖偉大한 것도 나로 보고, 나 이상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를 믿으라.” 고 한 점에서, 천도교의 신앙을 最進化한 新信仰이라고 말하였다.<sup>92)</sup>

90) 朴達成, 「개조의 성과 共に 세계는 어느듯 인내천세계」, 『천도교회월보』 129호, 1921. 5, 19쪽.

91) 朴達成, 「인생의 요구적 사업과 인내천주의」, 『천도교회월보』 112호, 1919.12, 14쪽.

박달성의 천도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天和 인간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吾人是 吾人의 본래를 遡求하여보자. 爲先 제일착으로 天의 神力을 말하여보자. 천은 至靈하시고 至偉하시고 萬能하시고 萬智하셔서 大主宰하시며 총관리하신다 하니 其 果然일까. 果然이라 하면 오인의 해결은 극히 容易할 것이라. 오인은 雖 如何한 不可思議의 神奇妙策의 靈物이라도 천의 신력에 由하였을 것이라. 천의 신력에 불유하였다고는 半辭의 反抗을 못하리라. 그러나 오인의 대문제는 천의 존재에 不然其然의 문제이다. 혹은 그러한 천주가 상에 위하였다 하고, 혹은 천의 人의 假稱이라 사실 즉 천이 무하다 하니, 오인은 천의 存否에 심히 모호하다. 해지키 난하다. 이에 나는 無天說에 동의하노라. 그러한 별개체의 신령천은 없다 하기에 주저치 아니하다. 直히 우주의 總精神을 오인이 強名하여 天이라 할지언정 別形體의 天이 별처에 御臨이라 함은 未進化時代의 人生에게 尊事의 風을 導하는 時的手續談에 불과하다 하노라. 更言하면 천은 人의 造稱이라 함이 적절하다. 마치 數血族이 團聚하여 家庭을 조직하고 그 가정에 복무함과 如하다. 또는 육영사업을 위하여 학교를 설하고 그 학교에 종사함과 같다. 家라는 名이 본시 고유명이 아니며 또는 神意의 體가 아니라 人에 由하여 名되고 人으로 由하여 存立하였다. 그러나 그 人은 기 가문의 하에서 連히 활동하여 家聲을 振興하기로 한다. 家가 무함과 동시에 人이 무한 것이 아니라 人이 無함과 동시에 家가 無한 것이다. 환언하면 가내의 人이 아니라 人내의 가니라. 고로 人이 其 家를 위하여 가함이 아니오. 人 자체를 위하여 家함이니라. 학교도 역연하여 학교시교유명고유물이 아니라 人의 심산으로 유하여 人의 수중으로 표창된 것이다. (중략) 국가도 역연하다. (중략) 此를 증하여 오인은 天은 고유의 天이 아니라 역시 人의 造稱이라 한다. 人이 名하여 天이라 하고, 人이 拜하여 尊者라 하여 그

92) 朴達成, 「是我信仰觀」, 『천도교회월보』 108호, 1919. 8, 17-18쪽.

에 복종하며, 그에 歸依하는 것이다. 자에 오인은 天地의 主人임을 주장하노라. 자에 오인은 最靈最貴의 萬能者임을 自談하노라.<sup>93)</sup>

위의 글에 따르면, 박달성은 至靈·至偉·萬能·萬智한 主宰者로서의 천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그는 천이란 인간사회에서 별도로 떨어져서 어렵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이 만든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천이 인간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天地의 주인이며, 사람이 최고 신령스럽고 귀한 만능자라고 하였다.

박달성은 우주의 總精神을 천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천의 범위 내의 자체적 表象을 萬物이라 하고, 만물 중에 가장 진화한 것을 사람(인생: 원 표현)이라 하였다.<sup>94)</sup> 그는 “천은 우주의 총정신이오, 人은 우주의 총주재이라. 주재자를 정신이라 하고, 정신의 총체를 천이라 한다.” 고 하였다. 그는 하늘과 사람을 “물과 얼음이 이름은 다르나 해빙과 결빙에 따라 두 가지가 나온 것이지 본성이야 동일” 한 것처럼 그 본성이 같다고 보았다.<sup>95)</sup>

박달성은 우주는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우주의 內에는 眞理가 없는 곳이 없으며, 세계의 裏에는 愛가 없는 곳이 없다.” 고 하였으며, “天地萬有의 生成變化는 단순히 진리로만 見倣하지 못하겠다. 그 가운데 愛가 없어서는 천지도 적막, 세계가 공허일 것은 사실이다. 즉 다시 말하면, 천지만유는 진리로써 조직되었고, 그 만유의 구실은 愛의 神으로써 保持된다. 또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는 곳에 愛가 있는 것이오, 愛가 있는 곳에 眞理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sup>96)</sup>

박달성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선설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에서 꼭 같이 성령과 육신과 마음을 가져왔으므로

93) 仁人, 「人的 本源에 遡함」, 『천도교회월보』 113호, 1920. 1, 32쪽.

94) 朴達成, 「나의 인생관」, 『천도교회월보』 109호, 1919. 9, 23-25쪽.

95) 朴達成, 「인생의 요구적 사업과 인내천주의」, 『천도교회월보』 112호, 1919.12, 14쪽.

96) 가자봉인, 「愛와 眞理」, 『천도교회월보』 114호, 1920. 2, 19쪽.

모두 다 좋고 착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자라면서 본 성품과 마음을 세상의 물욕에 다 빼앗겨 더럽고 악하고 간사하고 욕심이 많게 되었다고 보았다.<sup>97)</sup>

박달성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볼까?” 즉 “나 나대로 살아볼까?” 하는 점을 고민하였다. 그 결과, 그는 “사람은 참사람이라야 사람이 아니라, 한울은 참한울이라야 한울이 아니라, 사람과 한울은 하나이고 둘이 아니라.” 라고 결론을 내렸다.<sup>98)</sup> 요컨대, 박달성은 하늘과 나의 본연의 참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답게 사는 것과 관련하여, 박달성은 천도교인들로 하여금 “사람은 모두 한울이니 한울같이 섬기라” 고 하였다. 그는 천도교인에게 부인, 아이, 아랫사람, 천하고 하찮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모두를 하늘 같이 섬기는 것을 실천하자고 하였다.<sup>99)</sup> 즉 그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그가 내세운 것은 사랑의 실천이었다. 즉 그는 동학에서 “금수 초목이 侍天主 아님이 없다고 하신 것은 바로 吾師의 愛의 主義이며, 人乃天이니 事人如天이라 하심은 吾師의 愛의 실현이며, 포덕천하·광제창생이라 하심은 吾事의 愛의 목적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판단 하에 그는 천도교인들에게 “진리에 귀의하여 애의 주의, 애의 실현, 애의 목적을 공행실천할 것” 을 힘주어 말하였다.<sup>100)</sup>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참된 본성을 지키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라고 하였다. 그는 메트로틀쓰의 “우리의 행복의 源은 외계에 있지 않고, 내계에 있다” 라고 한 말을 빌어서 “우리들의 행복은 자기의 內界된

97) 봄언덕, 「부인여러분서케 올님」, 『천도교회월보』 121호, 1920. 9, 39쪽.

98) 봄언덕, 「나의 믿은 바 큰 걱정과 큰 슬픔」, 『천도교회월보』 123호, 1920. 11, 64-65쪽.

99) 봄언덕, 「우리의 할 일」, 『천도교회월보』 124호, 1920.12, 69-70쪽.

100) 가자봉인, 「愛와 眞理」, 『천도교회월보』 114호, 1920. 2, 20쪽.

정신세계에 있고, 결코 외계의 만물현상에 있지 않다.” 고 하였다. 따라서 정신적 수양이 많을수록 인격은 더욱 고상하여 행복은 더욱 만족되고, 사물적 外觀念이 煩할수록 인격은 자꾸 鄙劣하여 행복은 자꾸 감퇴된다고 보았다.<sup>101)</sup> 그는 정신적 교화, 즉 종교적 수양이 진정하고 영구적인 쾌락이라고 하였다.<sup>102)</sup>

그는 종교적 수양이란 “飢寒에 굴치 아니하며, 富貴에 驕치 아니하며, 실패에 낙심치 아니하며, 稱譽에 동심치 아니하며, 喜하되 躍치 아니하며, 悲하되 倒치 아니하여 세상의 온갖 사물을 오직 자기의 주관 하에 置之 아니하여 善히 調心하여 자기의 肥益을 供할 뿐이다. 결코 세태 물정을 추종하여 그에 속박을 受치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예컨대 “大神師 최제우가 세간의 분요를 破脫하고 深山長谷을 遍踏한 사실이라든지 11일의 절식으로 마침내 대도의 無窮數를 통한 사실이 모두 종교적 수양이다” 라고 보았다.<sup>103)</sup>

박달성은 참사람이 되기 위한 수양의 한 방법으로 최제우가 말한 다음의 네 가지 계명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sup>104)</sup>

- 一. 번복하는 마음을 두지 마라. 이는 한울 이치에 여인 자니라.
- 一. 물욕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는 더럽고 누한 자니라.
- 一. 거짓말로 남을 유인하지 마라. 이는 흑세하는 자니라.
- 一. 안으로 어질지 못하고, 겉으로 꾸며내지 마라. 이는 한울을 속이는 자니라.

생사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는 사람이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생에 대한 적극적 욕망을 가진 생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인생이란 生하려고 활동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生死의 문제는

101) 박달성, 「인격과 종교적 수양」, 『천도교회월보』 114호, 1920. 2, 7-8쪽.

102) 박달성, 「인격과 종교적 수양」, 『천도교회월보』 114호, 1920. 2, 9쪽.

103) 박달성, 「인격과 종교적 수양」, 『천도교회월보』 114호, 1920. 2, 9쪽.

104) 달성, 「오직 참사람이 되기까지 사대계명」, 『천도교회월보』 126호, 1921. 2, 17쪽.

내가 나를 생각한다 하여도 내가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sup>105)</sup>

생사를 초탈하라. 생사문제를 염두에 두지마라. 오직 천지의 자연에 임하라. 우주의 진리에 복종하라. 구차히 살겠다 말며, 구차히 죽지 않겠다 말라. 오직 천지의 正則, 人世의 公道에 의하여 순순연 진행하라.<sup>106)</sup>

즉, 그는 생사문제에서 초탈하여 우주의 진리와 자연의 법칙에 따르려고 하였다. 그는 我乃天이니 내가 다른 무엇에게 낮추어 굽힐 바 없고, 物物天이니 物物이 또한 나에게 낮은 바, 천한 바 없으므로 서로 평등시하여 서로 제후하며 서로 사랑함이 이것이 우주의 진리이며 천지의 정칙이며 人世의 공도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인생은 위대하지만 천지만물도 위대하므로 사람이 죽어 자연에 귀의하는 것도 신성하고 위대하다고 보았다.<sup>107)</sup> 요컨대 그는 천도교의 종지에 따르면 살아있는 인간도 天이고, 죽어서 자연에 돌아가도 天이니,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 4. 문화운동의 전개

### 1) 천도교청년회에서 문화운동론의 전파

3·1운동 후 천도교월보사의 촉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상경한 그는 1920년 3월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가 천도교청년회로 재편되자 幹議員에 선

105) 박춘파, 「여의 관한 생사문제」, 『천도교회월보』 117호, 1920. 5, 23-25쪽.

106) 박춘파, 「여의 관한 생사문제」, 『천도교회월보』 117호, 1920. 5, 25쪽.

107) 박춘파, 「여의 관한 생사문제」, 『천도교회월보』 117호, 1920. 5, 25쪽.

임되었다. 이후 그는 1923년 9월 천도교청년회가 천도교청년당으로 개편될 때까지 간위원으로 활동하였다.<sup>108)</sup> 그는 천도교청년회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천도교청년회의 주요의사를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하여 천도교를 선전하고, 문화운동론을 전파하였다.

먼저 그는 1920년부터 1923년까지 『천도교회월보』에 신시대와 천도교, 신시대의 천도교인의 역할 등에 관한 다수의 글을 실었다. 그리하여 그는 천도교인의 각성과 포교활동, 그리고 이를 통한 천도교세의 신장과 이를 통한 이상사회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그는 『천도교회월보』에 몇 편의 문화운동론 관련 글을 실어, 교인들에게 문화운동론을 전파하였다. 그는 1920년 6·7월, 『천도교회월보』 118호와 119호에 「활동기에 의한 천도교인의 실력여하를 논함」이란 글을 기고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천하는 실력자의 천하이며, 세계는 활동가의 세계로다. 안으로 虛하고 능히 자존을 득하며, 한갓 앓아서 능히 승리를 얻을 것인가? 천은 自助者를 돕고, 세상은 自進者를 보좌하고, 활동하는 자라야 자존도 있고 승리도 있을 것이며, 勇進하는 자라야 하늘의 惠澤도 있고 세상 사람이 인정해줄 것이니, 필승을 自期하는 자 마땅히 動할 것이며, 주의를 선전하려는 자 마땅히 進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sup>109)</sup> 그리하여 그는 천도교인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실력을 갖추어 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천도교인들에게 “도덕주의에 并하여 지식주의도 겸하고, 주문식으로부터 설법식으로 進하고, 巷陬式으로부터 공개식으로 就하고, 寶庫를 通開하여 世에 獻放하고, 진리를 大舉하여 만인에게 선전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10)</sup>

같은 글에서, 박달성은 활동기에 위치한 천도교인들에게 먼저 부인부터

108)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113쪽.

109) 박달성, 「활동기에 의한 천도교의 실력여하를 논함」, 『천도교회월보』 118호, 1920. 6, 9쪽.

110) 박달성, 「활동기에 의한 천도교의 실력여하를 논함」, 『천도교회월보』 118호, 1920. 6, 12쪽.

해방하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의 본지가 인내천이고, 우리의 주장이 사인여천이며, 현하의 사조가 평등·자유이니 부인에게 상당한 인격을 주고, 상당한 대우를 해주라고 하였다. 그는 부인에게 상당한 인격과 지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부인강습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人間休戚, 사회문제가 모두 이에 관계된다고 보았다.<sup>111)</sup> 다음으로 그는 교육을 장려하여 취학시기의 교인들로 하여금 보통학교, 중등학교, 전문학교에 다니고, 그것이 어려우면 강습이나 獨工을 하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포덕상의 실력을 기르고, 이를 위하여 천도교청년회의 興盛을 통한 포덕, 즉 천도교의 선전에 힘쓰라고 하였다.<sup>112)</sup>

또한 그는 1920년 9월 「부인 여러분께 고함」이란 글을 발표하여 부인들에게 “우리도 남과 같이 살려고 하면 문명을 하고, 행복을 받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부인부터 깨달으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내외의 법을 없애 남자가 갈 데에 여자도 가고, 남자가 할 일이면 여자도 하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부인들에게 알지 못하면 죽겠다는 결심으로 무엇이든지 알아보려고 힘쓰고 한글부터 배우라고 하였다.<sup>113)</sup>

또한 그는 천도교청년회에서 발간한 『개벽』에 여러 편의 문화운동론 관련 글을 기고하여 일반인들에게 문화운동론을 전파하였다. 『개벽』에 실린 문화운동론 관련 논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박달성의 『개벽』 기고 논설(1920-1923)

| 일시     | 기사 제목                             | 주요 내용                  | 호수 |
|--------|-----------------------------------|------------------------|----|
| 1920.6 | 시급히 해결할 조선의 2대 문제                 | 교육문제, 농촌문제             | 1  |
| 1920.7 | 급격히 향상되는 조선청년의 사상계, 可賀할 조선청년의 지식열 | 실력주의, 강력주의, 자조주의, 자아주의 | 2  |
| 1920.1 | 세계와 공존키 위하여 교육문제를                 | 생존문제와 교육문제             | 5  |

111) 박달성, 「활동기에 입한 천도교의 실력여하를 논함」, 『천도교회월보』 118호, 1920. 6, 12-13쪽.

112) 박달성, 「활동기에 입한 천도교의 실력여하를 논함」, 『천도교회월보』 119호, 1920. 7, 6-8쪽.

113) 봄언덕, 「부인 여러분께 올림」, 『천도교회월보』 121호, 1920. 9, 43쪽.

|         |   |   |    |
|---------|---|---|----|
| 1       | 재거하며 爲學 서당개량을 절규함                           | 서당 개량   |    |
| 1921.1  | 신년개량의 제1착으로 조선의 의식주를 거하노라                   | 의식주 개량 -염색의 입기, 간편한 식사, 주택 개량                               | 7  |
| 1921.3  | 동서문화사상에 현하는 고금의 상을 일별하고                     | 강자선, 약자악  | 9  |
| 1921.6  | 사회문제에 선하여 자아문제에 반하라. 그리하여 사회에 대한 공복이 되라     | 개조문제와 현대인<br>자기의 위대관, 신성관 실현<br>자아의 실현, 자기의 노력<br>사회에 대한 공복 | 12 |
| 1922.1  | 오직 '참'이 잇스소서                                | 새 해의 새 사람, 새 살림, 새 일, 새 국면                                  | 19 |
| 1922.3  | 경성형제에게 탄원합니다!! -대경성을 건설키 위하여-               | 대경성 건설  | 21 |
| 1922.5  | 모든 행동 좀더 무겁게 가지소서<br>-작금에 기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고- | 대국의 이해, 대의의 실천  | 23 |
| 1922.11 | 유야무야? 조선의 생도                                | 생도: 농업부흥, 外貨拒否, 절약  | 29 |
| 1923.3  | 조선교육계와 교원자격 문제                              | 교원의 증대, 사람 본위의 교원 양성  | 33 |

위의 내용에 따르면, 박달성은 『개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세계는 强者善, 弱者惡의 사회진화론적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실력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1921년 3월 『개벽』의 「東西文化思想에 現하는 古今의 思想을 一瞥하고」라는 글에서 “선이라 함은 무엇이나? 위력의 느낌 즉 위력의 마음을 일층 높게 하는 일체의 것이다. 인생의 소유한 력의 총량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악이라 함은 무엇이나? 약으로부터 생하는 일체의 것이다. 행복은 무엇이나? 위력의 증가이다. 평화에 있지 않고 전투에 있다. 덕이 아니요 능력이다. 죄악보다 해독은 약자이다. 또 약자에 대한 동정이다.” 라고 하여, 니체의 力萬能主義를 주장하고, 평화니 인도니 하는 것은 모두 불문에 붙이고 오직 강자가 되기까지 자기의 본능을 발휘하라고 하였다.<sup>114)</sup>

둘째 생존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체제나 구조의 개혁보다는

114) 박달성, 「東西文化思想에 現하는 古今의 思想을 一瞥하고」, 『개벽』 9호, 1921. 3, 22-25쪽.

인간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자아주의·자조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즉 그는 사회구조의 개혁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각자를 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sup>115)</sup> 그리고 이러한 자각을 가진 각 개인이 인류를 위하여 성실한 공복이 되는 사회를 이상적인 세계로 생각하였다.<sup>116)</sup>

셋째 박달성은 조선의 주요 문제를 농업문제, 교육문제, 의식주 문제, 도시 건설 등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해결의 구체적 방법으로, 농업을 부흥하고, 서당을 개량하고, 교원을 양성하며, 염색의를 입고, 음식을 간단히 하고, 주택을 개량하고, 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박달성은 천도교청년회의 회원으로 강연활동을 통해 문화운동론을 전파하였다. 박달성은 1920년 6월 중순부터 7월 2일까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실시된 천도교청년회 본부특파원 북선지역 순회강연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6월 25일 태천 읍내의 천도교청년회 주최 강연에서 「금후 세계와 인간」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sup>117)</sup> 그리고 6월 26일 오후 1시 박천읍 천도교청년회 주최 강연, 6월 26일 저녁의 안주청년회 주최 강연에 참석하여 이돈화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이며 열성적인 강연을 듣고, 강연에 대한 청중의 열렬한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sup>118)</sup>

이후 그는 1920년 7월부터 8월까지 천도교청년회의 본부특파원 남선지역 순회강연단의 일원으로 이돈화·박사직과 함께 서울과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도에서 순회강연을 하였다. 그 중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그리고 그는 1920년 9월 19일에는 황해도 서흥에서 「현대의 요구와 천도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sup>119)</sup>

115) 朴達成, 「社會問題에 先하여 自我問題에 反하라 그리하여 社會에 대한 公僕이 되라」, 『개벽』 12호, 1921. 6, 15쪽.

116) 朴達成, 「社會問題에 先하여 自我問題에 反하라 그리하여 社會에 대한 公僕이 되라」, 『개벽』 12호, 1921. 6, 22쪽.

117) 조규태, 「천도교의 강연·강습활동과 학교교육운동」,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168-169쪽.

118) 박춘파, 「往還千里」, 『천도교회월보』 119호, 1920. 7, 92-96쪽.

119) 『동아일보』 1920. 9.124, 4면 4단, <서흥천도교청년회 주최 강연회>.

〈표 2〉 1920년 박달성의 남선지역 순회강연단 강연 내용

| 일시       | 장소            | 강연 제목  | 주최          | 전거      |
|----------|---------------|--------|-------------|---------|
| 19200718 | 전북 전주         | 인생의 歸路 | 천도교청년회 전주지회 | 천-170쪽  |
| 19200719 | 전북 익산         | 인생의 歸路 | 천도교청년회 익산지회 | 동200725 |
| 19200721 | 전북 김제         | 평화의 道  | 천도교청년회 김제지회 | 동200727 |
| 19200722 | 전북 김제<br>완평지회 | 평화의 道  | 천도교청년회 완평지회 | 천-170쪽  |
| 19200725 | 경북 영천         | 자아의 해방 | 천도교 영천교구    | 천-170쪽  |
| 19200728 | 경북 대구         | 인생의 귀로 | 대구청년회       | 동200801 |
| 19200729 | 충북 청주         | 평화의 도  | 천도교청년회 청주지회 | 천-170쪽  |

\* 동: 『동아일보』, 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1920년 중반 박달성이 천도교청년회 순강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강연한 내용은 「금후세계와 인간」, 「인생의 귀로」, 「평화의 도」, 「현대의 요구와 천도교」, 「자아의 해방」 등 인간의 종교적인 삶과 천도교인의 종교적 생활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박달성은 1921년 1월 동경에서 대학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도일하였다.<sup>120)</sup> 동경에 도착한 박달성은 1921년 1월 10일 간다(神田)청년회관에서 方定煥, 金相根, 李起貞, 鄭重燮과 함께 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의 설립을 발기하고, 1월 16일 오후 1시 早稻田 鶴卷町 302호 大扇館에서 방정환, 김상근, 이기정, 정중섭, 李泰運, 朴春燮, 金光鉉 등과 협의하여 동경지회의 설립인가를 본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21년 2월 본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후, 박달성은 1921년 4월 5일 지회를 창립한 후 회장에 선

120) 朴春坡, 「현해의 서로 현해의 동에」, 『개벽』 8호, 1921. 2, 65-68쪽. 그는 1921년 1월 1일 경성역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였고, 1월 4일 부산에서 하쿠아이마루(博愛丸)를 타고 시모노세키(下關)에 입항하여 6일 오후 7시 30분 시모노세키발 열차를 타고 오카야마(岡山)를 거쳐 7일 오후 1시 20분에 도쿄요코(東京)驛에 도착하였다.

임되어 활동하였다.<sup>121)</sup>

동경에서 박달성은 천도교인들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侍日禮式을 하고, 교리를 연구하며, 포덕방안과 하기강연 등을 논의하였다.<sup>122)</sup> 한편 박달성은 동경에서 金燦 등의 사회운동가와 교류하기도 하였다.<sup>123)</sup> 그러다가 박달성은 1921년 2월 16일 동경에서 일어난 M사건, 즉 梁權煥의 閔元植 처단사건 시 체포되어 70번이란 수감번호를 받기도 하였다.<sup>124)</sup> 얼마간 구류를 살고 나온 박달성은 1921년 동경의 동양대학 문과에 입학하여 수학하였다.<sup>125)</sup>

박달성은 1921년 여름 천도교청년회 국내순회강연단을 조직하고, 여름방학 때 귀국하여 전국순회강연을 실시하였다. 1921년 6월 17일 일행과 함께 부산에 도착한 그는 충청도·강원도·경기도·황해도를 순회한 제2대의 鄭重燮·全敏轍, 전라도·함경도를 순회한 제3대의 方定煥·閔炳玉과 동시에 鄭日燮와 함께 제1대를 구성하여 경상도·평안도를 2개월간 순회강연을 하였다. 박달성의 강연제목은 「당면의 문제와 요구의 인물」, 「신시대와 신종교」, 「인본주의와 종교의 숙昔」, 「현대사조와 종교의 석금」, 「아본주의와 종교의 석금」, 「이상향과 其人物」, 「각 계급에 대한 余의 憧憬」 등이었다.<sup>126)</sup> 이러한 강의제목을 통해서 판단하여 보면 그의 강연 내용의 상당수는 신시대에 적합한 종교, 즉 천도교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당면의 문제와 요구의 인물」이라는 강연에서 박달성은 우리가 세계에 낙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급선무임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자면 첫째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으며, 둘째 우주의 대자연까지를 자

121)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122) 朴春坡, 「東京에 잇는 天道敎青年의 現況을 報告하고 아울러 나의 眞情을 告白함」, 『천도교회월보』 126호, 1921. 1, 54-58쪽. 박달성을 비롯한 방정환, 이기정 등의 천도교인들은 1월 23일부터 鷄林舍에서 시일예식을 거행하였다.

123) 박달성, 「동경에서 본 김찬」, 『혜성』 1권 4호, 1931. 6, 111쪽.

124) 東京春弟(朴達成), 「鐵窓에서 느낀 그대로」, 『개벽』 15호, 1921. 4, 62쪽.

125) 『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11-12쪽, 2권, 223-224쪽.

126) 조규태, 「천도교의 강연·강습활동과 학교교육운동」,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 171-174쪽.

기의 심신에 삼킬 수 있는 대담한 인물이 되어야 하겠으며 오직 열정가가 되어야 하겠다고 열변하였다.<sup>127)</sup>

강연 활동 중, 그는 1921년 7월 13일 원산에서 불온한 연설을 하였다가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으로 소환 구인되어 15일간의 구류를 살았다.<sup>128)</sup> 그리고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해 8월에 동양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고 귀국하였다.<sup>129)</sup>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박달성은 1922년 개벽사에서 발간하던 『婦人』잡지의 편집주임에 취임되었다.<sup>130)</sup> 그리하여 그는 현모양처론적 입장에서 여성의 교육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개벽』의 논객으로 민족적인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는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등 민족운동단체 사이에 분열이 나타나고 있던 1922년 당시의 상황을 개탄하며 각 단체의 지도적 인물에게 자중하고 단합하자고 호소하였다.<sup>131)</sup> 또한 그는 “물론 사회에 죄가 되고 민족에 해가 될 것이면 따라가며 때려 부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형제여 현하의 우리는 때려 부술 것도 없는 바는 아니지만 아낄 것이 많은 줄 압니다. 미워도 내 것, 고와도 내 것이라는 下에서 많은 이해와 많은 용서를 가지고 아직 좀더 아끼십시오. 今日的 惡이 明日 善할 수 있으며 今日的 損이 明日의 利할 수 있으니 아직은 뒷발만 구르고 事實은 아끼십시오.”<sup>132)</sup>라고 하여,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는 많은 이해와 용서를 가지고 기존의 단체를 파괴하지 말고 아끼고 존속시키자고 주장하였다.

127) 『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11-12쪽, 2권, 223-224쪽.

128) 『동아일보』 1921. 7.17, 4면 7단, <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 순회강연단 원산착>. 『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11-12쪽, 2권, 223-224쪽.

129) 『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11-12쪽, 2권, 223-224쪽.

130)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131) 朴達成, 「모든 行動을 좀더 무겁게 가지소서 -昨今에 起한 우리 社會의 現象을 보고-」, 『개벽』 23호, 1922. 5, 121쪽.

132) 朴達成, 「是非를 明白키 하기 爲하여」, 『개벽』 25호, 1922. 7, 90쪽.

## 2) 천도교청년당에서의 부문운동의 전개

박달성은 1923년 9월 2일 신문화사상의 선전에 주력하였던 천도교청년회를 천도교청년당으로 발전시키는 데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그는 신 인간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운동기관인 천도교청년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표 3>이 참고가 된다.<sup>133)</sup>

<표 3> 박달성의 천도교청년당 활동

| 연도   | 천도교청년당 | 부문운동단체 |
|------|--------|--------|
| 1923 | 상무위원   |        |
| 1924 | 위원     |        |
| 1925 | 위원     |        |
| 1926 | 위원     | 농민부 위원 |
| 1927 | 위원     | 농민부 위원 |
|      | 중앙집행위원 | 농민부 위원 |
| 1928 | 중앙집행위원 |        |
| 1929 | 중앙집행위원 | 청년부 위원 |
| 1930 | 중앙집행위원 | 청년부 위원 |
| 1931 | 중앙집행위원 | 청년부 위원 |
| 1932 | 중앙집행위원 |        |
| 1933 | 중앙집행위원 |        |

위의 <표 3>에 따르면, 박달성은 1923년에 상무위원,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위원,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26년부터 1927년까지 농민부 위원,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청년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천도교청년당의 위원과 중앙집행위원으로 그는 농민·노동·청년·학생·여성·소년·商民운동 7대 부문운동에 참여하였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농민운동에 주력하였다. 그는 1925년 10월 조선농민사의 설립에 참여하였

133) 천도교청년당본부, 『천도교청년당소사』(대동인쇄소, 1935), 71-77쪽. 아세아문화사, 『동학사상자료집』 3, 1978, 93-99쪽.

고, 창립 시 중앙이사에 선임되었다.<sup>134)</sup> 이후 그는 조선농민사의 중앙이사로 7년간 활동하였다.<sup>135)</sup>

그러면서 그는 조선농민사에서 발간하던 『조선농민』에 글을 기고하였다. 그가 기고한 글의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박달성의 『조선농민』 기고 글

| 호수            | 게재일시    | 기사 제목           | 주요 내용                     |
|---------------|---------|-----------------|---------------------------|
| 조선농민<br>2권 1호 | 1926. 1 | 몹시도 그리운 농촌의 겨울  | 고향에서 농사일 하던 추억            |
| 2권 3호         | 1926. 3 | 물귀신 잡는 이야기      | 물귀신으로 가장하여 사람을 겁주던 사람의 일화 |
|               |         | 독각이 잡든 이야기      | 방화범 잡던 이야기                |
| 2권 4호         | 1926. 4 | 호미를 들고 나서는 때    | 어린 시절 일화<br>귀농 주장         |
| 2권 10<br>호    | 1927.10 | 離鄉의 가부(대화극)     | 농촌의 몰락, 離鄉 문제             |
| 3권 8호         | 1928. 8 | 8월 苦! 8월 樂!     |                           |
| 3권 11<br>호    | 1928.11 | 懺悔와 懇願!!        |                           |
| 4권 9호         | 1928.12 | 귀여운 사람 알미운 사람   | 농촌의 귀여운 사람, 알미운 사람        |
| 5권 2호         | 1929. 3 | 칠성이의 일기         | 빈한한 농군의 일기(1927년 3월)      |
| 5권 3호         | 1929. 4 | 共作農과 輪讀會        | 농민사의 경비 조달<br>지식의 보급      |
|               |         | 밭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 이 때의 농촌 일면                |
| 농민<br>1권 8호   | 1930.12 | 농민교양일의 농민대화     |                           |

위의 <표 4>에 따르면, 박달성은 농촌에서 경험한 것들을 쉬운 문체로 이야기하였다. 이는 농촌 생활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촌의 몰락과 이에 따른 이농문제를 쉽게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인의 생도는 상에도 공에도 기타에도 있지 아니하고 농업부흥에 있다 한다. 조선은 자고로 농업이 주생명임과 같이 금후도 농업이 우리의 생

134)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234쪽.

135)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명이다. 그것이 조선의 장기요 또 만업의 張本이라. 서투른 상공 力不及의 상공에 加意할 여지없이 長足-농업에 전력할 외에 별 수가 없다”<sup>136)</sup>라고 하여 조선의 삶의 방도는 농업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조선농민』을 통하여 지식인으로 하여금 ‘농촌으로 가거라.’, ‘호미를 들어라.’, ‘밭두령을 밟아라.’ 라는 구호와 함께 귀농활동을 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농민들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쉬운 문체로 농촌의 사정을 소개하고, 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한 것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농민 몰락을 염려한 이유겠지만, 그가 궁벽한 태천의 농촌 출신이란 점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는 국내에서 잡지와 강연 등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민족을 해방시키자는 점진적 혹은 개량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개량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하여 그의 민족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일제의 정보문서에 의하면, 그는 강한 배일의식을 갖고 있었다.<sup>137)</sup> 1925년 8월 오영창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동학농민운동·갑진개화운동·3·1운동이 천도교의 할 일이 아니라고 하자 그를 공격하였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하였다.<sup>138)</sup>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 내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는 1925년 천도교가 신파와 구파로 분리된 후, 천도교 신파에서 발간한 『신인간』의 주필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24년 천도교중앙종리원 종리사로 취임하여 5년간 근무하였고, 1926년부터 6년간 『신인간』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1929년에는 중앙종리원의 觀書로 임명되어 3년간 근무하였다. 그는 1930년 夢菴이란 道號를 받았고, 1933년에는 道師로 임명되었다.<sup>139)</sup>

136) 朴達成, 「有耶無耶 朝鮮人の '生道」, 『개벽』 29호, 1922.11, 35쪽.

137) 『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pp.11-12, 2권, 223-224쪽.

138) 『동아일보』 1925. 8.16, 5면 3단, <박사직 박달성 양씨 설화? 강연이 불온하다고 종로서에 검속>. 『시대일보』 1925. 8.17, 2면 3단, <청년당 분기, 비판 강연하다가, 양 박씨는 구걸까지>.

139)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 5. 맺음말

박달성은 교내외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격무, 게다가 ‘주국대통령’ 이라고 할 정도로 탐닉하였던 술로 인하여 1931년 초 수족통·신경통·동맥경화·반신불수·동그따위병 등의 복합병에 걸렸다.<sup>140)</sup> 석 달 동안이나 병원에 누워 있다가 1931년 6월 경 퇴원하였지만 머리카락이 거의 빠져버리고 남아있는 것도 80 노인처럼 하얗게 변해버렸을 정도로 그의 건강은 완쾌되지 못하였다.<sup>141)</sup> 결국, 박달성은 1934년 5월 9일 향년 40세로 경성 齋洞의 自宅에서 還元하였다.<sup>142)</sup> 죽기 직전 후손에게 화장해줄 것을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그는 헛된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평북 태천의 궁벽한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박달성은 아버지의 인도로 동학에 입교하였다. 그는 1904년 갑진개화운동시 근대화운동의 가치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1905년 동학이 천도교로 명칭을 바꾼 후 교제와 교리와 교인의 근대화를 추진할 때 그는 문명개화의 혜택을 입었다. 그는 천도교회와 교리강습소에서 근대적인 교리와 지식을 수용하면서 서구의 문명개화론과 사회진화론, 개인주의사상 등을 수용하였다.

그는 3·1운동 후 천도교의 문명개화론자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문화운동을 추진할 때 중앙총부에 진출하였다. 그는 『천도교회월보』를 통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조사상이 유행하고, 我本主義·자아중심주의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유행하자, 後天開闢과 人乃天을 宗旨로 하는 천도교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들어맞는 新信仰·眞信仰이라고 이해하였다.

박달성은 東學의 天의 개념, 天과 人間의 關係를 서구의 사상으로써 재해석하였다. 그는 至靈·至偉·萬能·萬智한 主宰者로서의 天의 존재를 부인

140) 박달성, 「나는 왜 술을 끊었나」, 『別乾坤』 7권 1호, 1932. 1, 20-21쪽.

141) 미상, 「朴達成氏完快」, 『黨聲』 1931. 6. 2, 2면.

142) 鳳谷, 「弔春坡朴達成道兄」, 『黨聲』 1934. 6. 1, 4면.

하고, 천이란 단지 사람이 만든 명칭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천은 우주의 總精神이고, 사람이 우주의 주재자라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는 天이 인간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天地의 주인이며, 사람이 최고 신령스럽고 귀한 만능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주관에 있어서, 그는 우주가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해를 가졌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우주의 이치,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인간을 하늘처럼 평등하게 존중하고, 인간과 사물을 사랑하며, 수양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진정하고 영속적인 쾌락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에 대한 교화로써 종교적인 이상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하였던 그는 사회의 개혁에 있어서 정치체제나 사회구조의 방면보다 정신개조, 즉 문화의 변화를 통한 사회변혁의 방법을 우선하였다. 먼저 그는 1920년부터 1923년까지 천도교청년회의 회원으로 기고, 순회강연 등을 통하여 자주·자력의 정신을 갖춘 신인간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문제, 교육문제, 의식주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라는 문화운동론을 전파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1923년 9월부터는 천도교청년당의 간부로 청년부와 농민부 등에서 자립적이고·자력적인 새로운 청년과 농민 등을 육성하는 부문운동을 전개하였다.

비록 열악한 조선의 경제력과 智力, 천도교단에 대한 일제의 탄압, 천도교단의 분열 등으로 그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믿는 가치를 구현하려다 요절한 方定煥, 閔泳純, 李斗星처럼, 그의 정신과 삶은 동학사와 천도교사에 있어 기억해야 할 유산이다.

◇ 제2주제 토론



◇ 제3주제

이돈화의 동학사상과 정치이념

임 형 진 (경기대학교 교수)

1. 시작하는 글
2. 이돈화의 생애와 천도교
3. 인내천주주의의 완성
4. 종교에서 사회로-수운주의와 3대 개벽론
5. 보편적 가치 지향의 정치추구
6. 맺는 글



## 1. 시작하는 글

야뢰 이돈화(野雷 李敦化, 1884-미상)는 천도교가 동학에서 근대적 종교로 새롭게 변신하는 시기에 최고 이론가이자 정치사상가였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동학과 천도교가 근현대사에 미친 파급과 영향력을 논할 때 교조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동학 천도교 연구자들에게는 수운 최제우, 해월 최시형, 의암 손병희 그리고 춘암 박인호 다음으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서들 역시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sup>143)</sup>

이러한 이돈화 연구는 동학의 연구가 주로 운동사나 혁명사 연구에서 천도교의 역사와 종교사상 그리고 정치이념 등으로 확대 및 재조명될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학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던 천도교의 역사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근대종교로 탈바꿈 되는 천도교의 종교이념의 정착 등으로 연구영역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이돈화의 흔적이 근대종교로서의 천도교의 교리를 정착시키는데 강하게 남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이돈화는 동학시대에서 천도교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교단의 수많

143) 지금까지 연구된 이돈화 연구의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다. 황문수, 「야뢰에 있어서의 인내천사상의 전개」 『한국사상총서』 IV, 한국사상연구회, 1982;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혜안, 1996; 「이돈화의 사상연구」, 『동학학보』 14, 2007; 『동학 천도교 역사의 재조명』, 모시는사람들, 2009; 허수, 「1920년대 전후 이돈화의 현실인식과 근대철학 수용」, 『역사문제연구』 9, 2002; 『이돈화연구』, 2011, 역사비평사; 장원석, 「야뢰 이돈화의 유신론과 진화론의 융합체로서 천도교 해석」, 『종교연구』 38, 2005; 고건호, 「‘종교-되기’와 ‘종교-넘어서기’: 이돈화의 신종교론」, 『종교문화비평』 7, 2005;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 김용춘, 「동학의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 동학의 신관과 생명관 이돈화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18, 2009; 정혜정, 「이돈화의 인내천주의와 서구근대철학의 수용」, 『동학학보』 19, 2010.

은 교리서와 이론서를 저술해 나갔다. 그의 저술을 통해 천도교는 교리를 근대화시켰고 인내천의 종지화를 이룸으로서 근대적 종교의 중심체계를 갖추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천도교를 제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론과 제도를 가지게 된 천도교가 기존의 운동단체적 성격의 동학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종교단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천도교는 여전히 동학시대 이래로의 전통인 강렬한 대사회성을 버릴 수는 없었다. 이른바 교와 정의 쌍전이라는 동학의 중심이념은 천도교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했고 이돈화의 가장 큰 기여는 바로 교뿐 아니라 정의 영역에서의 천도교의 역할을 이론화시켰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의 이돈화 연구는 그의 종교성 연구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성리학적 해석에 머물던 교리를 합리적 사고에 입각한 해석으로 근대적 종교로의 전환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서양철학의 수용을 통해 천도교의 인내천 종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합리화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연구서들은 이돈화의 인내천주의가 일제시대 천도교가 행한 민족운동과 문화운동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동학 천도교의 전통은 교정쌍전론<sup>144)</sup>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쌍전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동학시절의 사회 변혁운동에의 참여도 3.1운동을 비롯한 천도교시대의 민족운동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돈화의 사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누구보다도 민족자주사상에 입각한 저술을 남겼다는 점이다. 그는 종교에서 출발했지만 사회변혁에 참여하는 단계를 상정하고 있었다. 그의 인내천주의가 민족운동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청우당의 정치이념으로 확정되는 과정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돈화는 분명 종교이론가였지만 동학 천도교의 전통인 교정쌍전론에 가장 충실한 정치이론가이기도 했다. 종교와 정치의 양면에서의 이돈화의

144) 동학은 기본적으로 政과 教를 분리하여 보지 않는다. 인내천생활의 표현 중 그것이 제도로서 나타날 때는 정으로 되고 그것이 교회로서 나타날 때는 교로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천도교는 세상을 새로이 하는 일에서 정신교화를 존중함과 동시에 물질적 제도를 또한 중시하여 그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한다. 이것이 천도교의 교정쌍전론이다.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 2. 이돈화의 생애와 천도교

이돈화<sup>145)</sup>는 함경도 고원군 재령산 화남촌에서 1884년 1월 18일 출생했다.<sup>146)</sup> 화남촌은 100여호 마을로 전형적인 함경도의 두메산골이었다. 그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11세부터 서당에서 한학교육을 받았고 14세에는 영흥으로 나아가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흥에서의 교육도 근대식 교육이기보다는 조금 큰 향교 수준의 한학교육이었고 내용도 스스로 겨우 『동몽선습(童蒙先習)』 정도 밖에 읽지 못했다는 정도였다. 17세에 결혼한 이돈화는 이후 1905년 천도교에 입교한 이후 다닌 평양사범학교의 전신인 평양일어학교 속성과를 졸업했다. 이돈화의 학문은 여기까지였다. 그럼에도 그가 이후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학에 의한 것이었다.<sup>147)</sup> 대우주가 학교요 대자연이 교과목이었다는 그의 표현처럼 자유로운 성격과 뛰어난 머리가 그를 최고의 이론가로 만들었다.

그의 10대는 심한 방황의 시기였다. 그는 부유한 집안 덕택에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정신적 방황이 매우 심했다고 한다.<sup>148)</sup> 어린 시절부터 공상하기를 좋아했던 이돈화는 점차 우주와 인생에

145) 이돈화의 호는 야뢰(夜雷)로 저술할 때는 많은 필명을 사용했는데 특히 백두산인(白頭山人)을 많이 사용했다. 도호(道號) 두암(豆菴) 혹은 금암(巨菴)을 썼으며 이밖에도 창해거사(滄海居士) 저암(猪岩) 등을 사용했다.

146) 이돈화의 생애에 관해서는 최근 연구서인 허수의 『이돈화 연구』를 주로 참조함.

147) 이돈화와 동시대를 살았던 천도교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일본 유학이나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 그는 학력은 매우 미천했지만 남긴 글의 수준이나 성과 등은 여느 누구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148) 이돈화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가 쓴 기록에 의존한다. 이돈화, 「나의 반생」, 『천도교월보』 249-251, 1931.9-1931.11; 야뢰, 「갑진혁신운동의 전말-나의 반생 속」, 『천도교월보』 253, 1932.1

대한 고민 속에서 세상 일이 초개처럼 하찮게 보이는 '뭍쓸 염증'도 느끼며 급기야 자살을 생각하기에 까지 이를 정도로 염세적이고 퇴폐적인 모습의 청년이었다.

1901년에서 1903년까지 2년 반 기간을 이돈화는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일대를 주유천하였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시장의 장사꾼에서부터 서기노릇, 투전판의 물주노릇에 콜레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는 등 심지어는 살인 누명을 받기까지 했다. 이러한 경험은 이돈화가 자랐던 농촌지역이 아닌 신흥 도시들에서 벌어진 것들이었다. 이후 그가 자본주의적 도시에 대해 부정적 묘사하는 연유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돈화의 청년기는 방황의 연속이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던 시골과 청년시절 마주친 도시생활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가 20세가 되던 1903년 동학을 만나는 계기는 이러한 방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시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돈화의 동학입도는 아버지의 외삼촌이었던 당시 접주 차씨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뻘 되는 분이 접주로 있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화남촌 내지는 고원군 일대에 동학이 상당히 세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미루어 보건데 이돈화의 아버지나 가족들 역시 동학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sup>149)</sup>

처음 동학에 입도한 이돈화의 동기는 돈 없이도 전국을 떠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였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곧 동학도들의 공동체적 생활과 그들의 평등한 인간관계 등에 매료되어 점차 본격적인 동학교인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가 이웃한 양덕지방의 도접주가 거쳐하는 곳을 방문하고 느낀 바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

149) 19세기 후반 동학혁명의 실패 이후 손병희는 혁명의 피해가 적었던 북쪽 지방에 집중적으로 포덕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남쪽은 이미 혁명의 여파로 더 이상 동학을 전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아직 관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북쪽에 집중해 동학교단을 재건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당시 마을에서 지도급 인사가 입도를 하고 포덕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집안 단위로 마당포덕의 형태로 동학이 전파되었기에 고원지방 역시 그런 형식으로 동학이 퍼져나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의 대인접물하는 거동이야말로 도덕군자였다. 세상이 다 망해가는 이 말세에 이렇듯 대인접물하는 도가 생길 줄을 누가 헤아렸으랴.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의례히 국궁배(鞠躬拜)하고 서로 부르기를 접장님이라 칭하고 빈부귀천노소의 구별이 없이 평등으로 경어를 쓰고 모든 것에 절대 신용이었고…이 광경을 본 나는 재삼재사 경탄해 마지아니하였다”(「나의 반생」)

이후 이돈화는 적극적으로 교단의 지침과 포덕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특히 1904년의 갑진개화혁신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그해 9월 평양 집회에 머리를 깎고 후의를 한 채 참석했다. 진보회가 주최한 이 대회에서 이돈화는 동학교단전체의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는 단발후의운동에 적극 동의하고 동참하는 동학교도들을 보면서 이들의 개화된 의식이 향후 조선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자각을 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도 무언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 하에 평양일어학교에 입학할 결심했을 것이다.

학교 졸업 후 정주와 광산 등지에서 교사생활을 하던 이돈화는 27세 되던 1910년 서울의 천도교월보사에 입사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서울생활을 하며 이돈화는 천도교월보에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911년 1월 『천도교월보』 제 6호에 실은 「권유천하실락자(勸牖天下失樂者)」를 최초로 이후 이돈화는 수많은 교리해설과 논설, 수필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을 발표했다. 특히 당시 조선에 소개되기 시작한 서구철학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분석을 통해 그는 천도교를 우월한 신종교로 세상에 알리고 인내천의 종지화에 적극 기여했다. 이를 통해 당시에 이미 이돈화는 천도교 초기의 이론가였던 양한묵의 뒤를 잇는 최고의 이론가로 평가되고 있었다.

특히 그는 천도교를 시대가 요구하는 신종교의 대표이고 나아가 종교 통일론, 최후종교론 등을 통해 천도교야말로 통일적 종교의 주인공이 된

다는 논리와 강연을 통해 천도교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활동을 했다. 여기서 이돈화의 관심은 점차 종교의 사회적 역할로 전이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돈화는 종교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시대를 마감하고 적극적인 사회변혁과 변화추동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천도교를 통한 사회의 변화와 개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는 천도교가 동학의 교정쌍전 전통을 계승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을 자각한 것이었다. 이후 이돈화는 천도교를 단순한 종교성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현실변혁의 주체로 부각시키는 역할에 집중했다.

3.1운동의 실패 이후 천도교단은 대대적인 탄압에 처해지고 교단은 마지막 전력을 모아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이듬해 천도교청년회 그리고 1922년 9월2일에는 천도교청년당을 결성했다. 천도교청년회에서는 월간 종합지로 『개벽』지를 발행했다. 이돈화는 청년당의 간부로 그리고 『개벽』지의 편집인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다. 개벽지가 시종일관 일제 하 조선민중의 의식변화와 사회개조에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돈화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돈화는 천도교청년당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교단의 전위단체인 청년당의 사회변화 참여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천도교의 친구와 대립시에는 신파의 기관지인 『신인간』의 발행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글을 발표하는 것 못지않게 또한 대중강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대중강연이 얼마나 인기였는지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를 기억하며 그가 행하던 대중연설을 떠올리곤 한다.<sup>150)</sup> 그는 대중강연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돈화의 일제시대는 영광과 오욕의 시대였다. 그는 청년당

150) 이돈화의 대중강연은 매우 독특했고 인상이 깊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외모와 함께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편안하고 감동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청중의 대상에 맞추어 그들에 적절한 표현과 사례를 섞어 강연했다고 한다. 특히 많은 분들은 그가 술 한 잔을 하고 나서 하는 강연이 최고였다고 한다.

과 청우당으로 이어지는 천도교단의 전위단체에서는 끝까지 당간부로 활동했고 여전히 많은 글과 강연에 임했었다. 교직으로도 그는 천도교중앙총리원 편집과 주임총리사(主任宗理師)·지도관장(知道觀長)·상주선도사(常住宣道師)·종법사(宗法師)·현법사부도령(玄法師副道領)·천도교총부대령(天道教總部大領) 등 행정상의 여러 중책도 역임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청우당의 활동이 유명무실해 지면서 그의 활동도 일제의 강압에 의한 친일적 활동으로 이어져야 했다. 자신의 의사보다는 강제에 의한 결정과 실행이었기에 어느 선까지 그의 행적을 평가해야 할지는 문제이지만 친일단체에 이름이 오르고 활동이 들어난 이상 오욕의 시간이었음은 틀림없었다.<sup>151)</sup> 그러나 이는 이돈화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당시를 살던 지식인 대부분이 처한 상황과 대동소이했고 지식인의 숙명같은 비활동성과 자기합리화 논리는 또 다른 평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시대는 전혀 다른 상황을 주었다. 이돈화 역시 부활한 청우당에 참여하고 특히 복간된 개벽사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개벽』지의 복간을 가장 바랐던 인물도 이돈화였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정국의 상황은 이돈화가 주장하고 희망했던 개벽의 시대는 아니었다. 오히려 외세의 압제가 더욱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있었고 분단된 조국의 앞날은 더욱 어두웠다. 당시 천도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북한지역에서는 남북왕래가 억압되기 시작하지 교단차원에서 지도자급 인사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돈화 역시 고향 가까운 북한행을 희망했다.

그의 북행 일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946년 초순경으로 추측된다. 그의 북행은 교단 지휘부의 결정과 본인의 희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평양에 정착해 북한지역의 천도교인들에 대한 지도와 청우당원들 교육을 맡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청우당원들의 교육용 교재로 『黨志』를 저

151) 최린의 천도교 신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이돈화는 태평양 전쟁 시기 중 최린이 전쟁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설 때 조선임전보국단에 참여하고 직접 연설을 하는 등 일제에 협력하는 행적이 있었다.

술했다. 이 책은 이돈화의 거의 마지막 저술로 그의 정치이념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수운 최재우 이래로 동학 천도교가 만들고자 했던 이상사회의 원형이 제시되고 있다. 이돈화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저술을 최후의 유작을 만든 것이다.<sup>152)</sup>

6.25 직전 북한천도교 총무원 연원회 회장으로 있던 그는 평남 양덕의 수도원에 머물러 있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후일 북조선 청우당에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려 노력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포기했다고 한다. 천도교에 미친 야뢰 이돈화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에 대한 연구도 부분적이고 평가 역시 제대로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경주시키는 과제들이다.

### 3. 인내천 주의의 완성

이돈화의 동학사상은 동학을 근대화시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천도교로 대고천하 한 이후 양한묵 등에 의해 인내천의 교리화를 시도한 천도교단은 그러나 여전히 성리학적 차원으로 급조한 듯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1920년대 이후 이돈화의 서구근대철학의 주체적 수용은 진화론에 근거한 인내천을 증명함으로써 이전의 한계를 넘어서 천도교 교리의 근대화를 이루었다.

사람이 한울님의 창조를 받은 것이 아니요 한울님 스스로가 자기창조의 힘으로서 표현 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곧 사람은 한울님 스스로가

---

152) 이돈화의 마지막 강연을 들은 평양의 청우당 당원들은 그가 당지에 쏟는 애정이 남달랐으며 강연 역시 심혈을 기울여 했다고 기억한다.

進化의 理法에 의하여 나타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사람의 출생원인에 대하여 사람은 조물주의 피제조자와 같이 생각하여 온 것은 오해될 점이니 사람과 신은 결코 二元의 대상이 아니요 오직 불가사의한 ...153)

이 같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야되는 인내천 논증을 대략 7가지로 요약 정리하고 있다.<sup>154)</sup>

첫째, 현실 신비주의 입장에서 인내천을 합리화하였다. 둘째, 인내천을 실재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셋째, 인내천의 원리를 범신론으로 이끌었다. 넷째, 인내천을 생명의 본질 및 근원과 관련하여 논증하였다. 다섯째, 의식의 소재를 규명함으로써 인내천을 전 우주와 개체, '한울'과 인간의 관계로 규정하였다. 여섯째, 영혼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인내천의 진리를 강조하였다. 일곱째, 우주 발생의 원인을 진화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내천을 합리화 하였다.

이것은 '한울'을 지기의 힘으로 파악하고 이 힘은 생명력으로서 부단히 진화한다는 최제우의 진화관을 핵심으로 하되, 무위이화의 설명에서 무신론으로 흐르기 쉬운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베르그송의 사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55)</sup> 여기서 그의 인내천 논리는 1910년대의 그것보다 발전하고 있다.<sup>156)</sup> 이돈화의 진화론에 입각한 인내천관은 『개벽』지의 창간사 후반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신은 無何有의 일물로부터 진화를 시작하였도다. 無有를 肇判하고 태

153) 이돈화, 『인내천 요의』 천도교중앙총부, 1968, 35쪽.

154) 위의 책, 48-82쪽 참조.

155) 황문수, 「야뢰에 있어서의 인내천사상의 전개」, 『한국사상총서』 IV, 한국사상연구회, 1982, 413쪽 참조.

156) 자세한 인내천 논증은 황선,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혜안, 1996, 235-239쪽 참조 바람.

양계를 조직하고 만물을 내었나니 이 곧 우주의 개혁이며 사람은 신의 진화한 자로 만물을 대표하여 漁獵을 始하며 농업을 영하며 상공업을 起하여 진화에 진화를 가하는 중 오늘날 이 세계 대개조라 하는 혁신의 기운을 맛보게 되었나니 이 곧 개혁의 개혁이었던다. 개혁하는 차제에……인민의 소리는 이 개혁에 말미암아 더욱 커지고 넓어지고 철저하여지리라. 오호라 인류의 출생 수십만년의 오늘날 처음으로 이 개혁잡지가 나게됨에 어찌 우연이랴.”<sup>157)</sup>

여기에는 모든 것을 진화로써 설명하려는 사고방식이 잘 나타나있다. 비로소 서구의 진화론적 사고가 천도교의 이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주도 사람도 세계도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진화는 곧 개혁이다. 이 개혁은 천도교의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모든 나라를 휩쓸고 있는 나쁜 운수가 다시 개혁하여 태평한 세상이 온다고 지적한 경전처럼 이돈화는 개혁을 서구의 진화론과 결부시킨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의 천도교회가 진화론 같은 서양사상으로써 교리를 새로 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의 창간사는 동시에 천도교 교리의 새로운 표현이기도 하다. 즉, “사람은 신의 진화한 자로 만물을 대표하여 어렵을 시하며 농업을 영하며 상공업을 기하여 진화에 진화를 가하는 중이 세계대개조라 하는 혁신의 기운을 맛보게 되었나니” 라고 하는 대목은 경전의 “십이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혁 아닐런가, 태평성세 다시 정해 국태민안할 것이니”라는 대목을 근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내천사상은 이 같은 서구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의암시대 이래로의 숙원인 근대문물 수용의 사상적 적용에 성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천도교는 그 종지에 따른 근대화(Modernization)에 박차를 가하고 그것의 연장선이 천도교의 민족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인내천주의의 완성은 이렇

---

157) 『개혁』 제1호, 1920년 6월 25일.

게 야되 이돈화의 작업의 결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내가 이제 쓰고자 하는 새 사람은 원한 과거에 묻혀 있는 그들의 새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 문예 학술 군략으로의 새사람도 아이오, 가장 근하고 가장 위대하고 그리하여 종교적 사상으로 조선의 독창인, 아니 동양의 독창인 광의로 말하면 세계적 독창인 인내천주의 창도자 최수운선생의 사상을 한말로 널리 세계에 소개코저 함에있다.”(『개벽』 창간호, 41쪽)

동학을 처음으로 세운 수운 최제우가 인내천주의를 부르짖었다는 것이 이돈화의 새로운 관점이다.<sup>158)</sup> 나아가 그는 인내천주의를 조선의 독창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독창이라고까지 서슴치 않고 말한다. 야되를 중심으로 한 인내천사상은 『인내천요의』(1924년)에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저술의 논지에 의하면 천도교는 ‘인내천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다. 우선 인내천주의에서의 신관은 다음과 같다.

“인내천주의는 신을 사람성 無窮과 일치한 것이라 하니 사람성 무궁이라 함은 위에서 屢述함과 같이 사람성과 신성이 일치됨을 이르는 말인데 이 점에서 인내천은 범신관과 일신관의 통일한 境涯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sup>159)</sup>

이것은 신을 사람의 무궁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을 우주만유를 관류하고 있는 무궁성으로 보는 점에서 범신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

158) 인내천을 수운이 사상의 요지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지강 양한목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수운 자신이 인내천주의를 부르짖었다는 것이 이돈화의 새로운 해석이다. 최동희, 『동학의 사상과 운동』 성균관대 출판부, 1980, 247쪽. 여기서 최동희 교수는 양한목의 논리를 전기인내천으로 하고 이돈화의 주장을 후기인내천으로 구분하고 있다.

159) 이돈화. 『인내천요의』 150쪽.

고 신의 무궁성은 인간성 속에 가장 순사하게 포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성과 인간성은 일치한다고 본다. 또 우주만유를 관류하는 무궁성이 인간성이라는 구체적인 개체로 집약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일신관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이돈화 이전의 인내천사상에서는 천을 천지만물의 理라고 보는 동시에 천을 인간의 본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돈화는 신을 천지만물의 이라고 보는 점을 범신론적이며 신을 인간의 본원이라고 보는 점을 일신론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서구철학의 주체적 수용의 모습이었다. 다음으로 인간 또는 人性을 보는 관점은

“인내천의 신에 대한 관념은 절대로 보는 고로 절대에는 선이라 하며 악이라 하는 상대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그리하여 사람성 무궁즉 사람의 天良의 본심은 이 절대무궁의 神性の 표현인 고로 이에 선악을 붙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단 선악이라 함은 신성이 人의 개성으로 표현함에 由하여 상대적 向背起想을 이룬 것뿐이다.”<sup>160)</sup>

인성은 악이니 선이니 하는 따위의 상대적인 관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인성이라는 것을 인간의 본원성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인간의 본원성은 곧 절대무궁의 신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의 인간의 본원성이 곧 신성이 아니고 오직 신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신성은 전체이고 인성은 부분의 표현과 같다.

“우리의 생활상태가 외적 내적으로 원만한 이상향에 달하고 보면 신과 人의 대립은 곧 개성과 보편성의 대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61)</sup>

---

160) 위의 책, 151쪽.

161) 위의 책, 88쪽.

여기서는 인성과 신성의 대립을 '개성과 보편성의 대립'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62)</sup>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목표함이 인내천주의라 할 수 있다. 즉, 인내천주의를 통해 우주만물과 절대성이 결합될 수 있다고 본다.

“然하면 현대적 신앙이라 함은 종교에 問하여 교리에 不悖하며 과학에 問하여 과학에 不違하며 철학에 質하여 철학에 적합한 신앙이겠다. 현대의 요구는 실로 이러한 신앙이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신앙으로서 종교의 통일을 도모코자함은 확실히 현대사상이겠다.”(『개벽』 제2호, 66-67쪽)

현대적인 신앙은 종교·철학·과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진리를 갖추어야 한다. 천도교가 적어도 1907년 이후에 부르짖어 온 인내천이 바로 이러한 진리라고 이돈화는 확신한다. 정리하면 이돈화는 천도교의 종교적인 기본 관념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였다.

(가) 천의 관념 : 범신관상에 입각한 인내천주의

(나) 도의 관념 : 만진리를 인내천주의에 귀납하여 총합 조화한 유불선  
합일주의.

(다) 인의 관념 : 인내천관에 입각한 영육일치주의

(라) 종교의 최후 목적 : 인내천 관념에 입각한 천인합일주의

천도교는 앞의 세 기본 관념을 기초로 하여 넷째의 천인합일의 극치에 이르게 된다. 이 극치에 이르는 '일정한 통로'가 곧 '종교적 수련 방식'이고 그것의 원칙에 인내천주의가 있다. 인간은 자기무궁성에 한울의 뜻이 합치

162) 유병덕, 『동학·천도교』, 교문사, 1987, 347-34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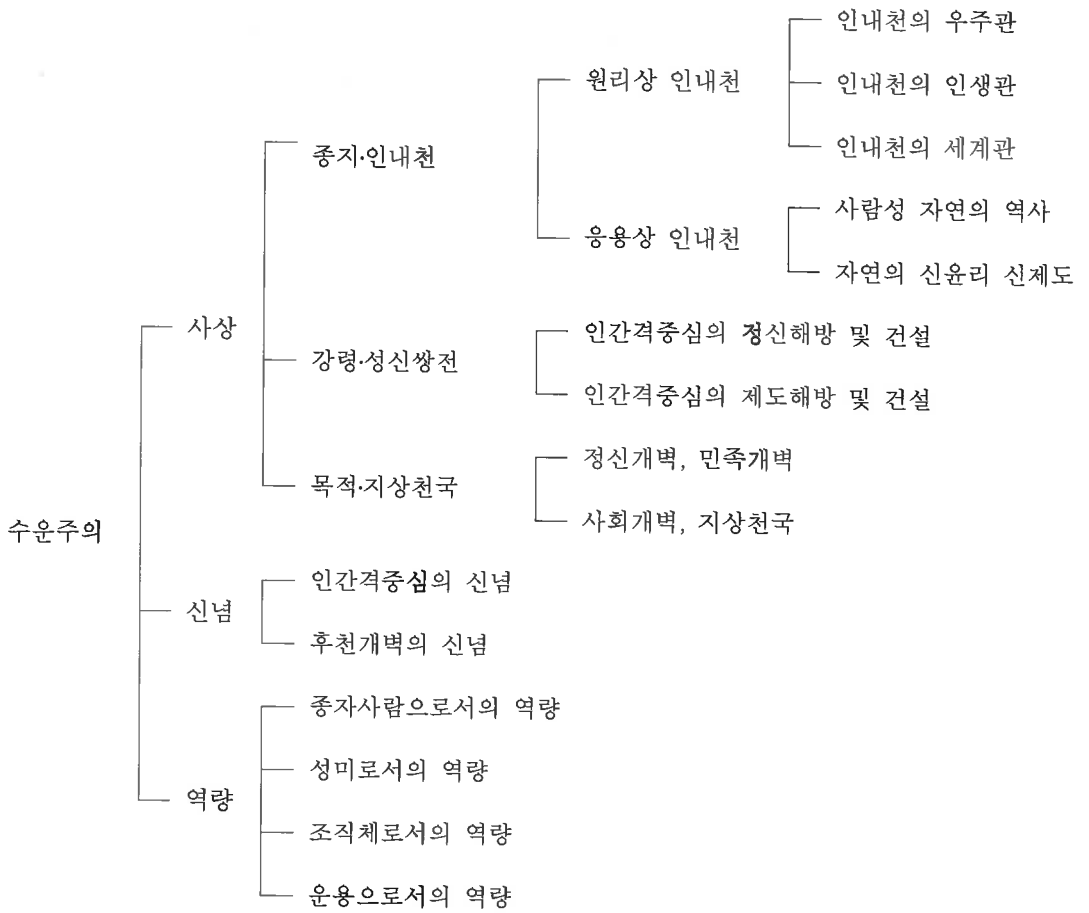
될 만한 소질 즉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인내천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돈화는 후천개벽의 전제조건인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는 한편 인내천 사상을 진화론적으로 증명하여 천도교의 종교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족운동이 절실했던 당시의 천도교인들에게 민족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4. 종교에서 사회로-수운주의와 3대 개벽론

이돈화가 1931년 발표한 『신인철학』은 철학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천도교 교리의 집대성이자 새로운 개벽세상을 향하는 방법론이었다. 특히 그는 수운주의와 3대개벽론을 통해 천도교의 사회적 실천과 이론적 배경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이돈화가 제시한 수운주의의 이상과 계획은 아래와 같다고 했다.<sup>163)</sup>

---

163) 『신인철학』, 146쪽.



주의에는 사상, 신념, 역량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사상에는 종지, 강령, 목적이 있는데 종지의 원리상 인내천이란 것은 수운주의사상의 본체론이 되었고 응용상 인내천이란 것은 현실상 활용 문제<sup>164)</sup>이며 그리하여 강령은 인간격 중심주의 하에서 유심유물의 통일을 꾀하는 지기 일원적 활용을 말한 것이다. 목적은 현실과 이상을 합한 것인데 정신개벽은 사상개조를 이룸하며 민족개벽, 사회개벽은 현실개조를 말한다. 그리하여 지상천국은 그의 이상주의에 속한 것이다. 다음 신념에 있어 인간격 중심의 신념이란 것은

164) 이돈화는 여기서 특히 사람성 자연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성 자연이란 인간사회를 자연히 이루어진 일종의 유기체로 보는 것으로 이른바 無爲而化 개념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곧 현실세계 응용상의 인내천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책, 103, 108-110쪽 참조.

우주 생활의 최고이상을 이룸하는 것이요, 후천개벽은 현실개조의 신념을 말하며 끝의 역량이란 것은 이상의 사상과 신념을 가진 동귀일체의 목적하에 단체적 실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sup>165)</sup>

이처럼 이돈화가 주장하는 수운주의는 사상, 신념, 역량을 바탕으로 3대 개혁을 통한 지상천국을 목표로한다. 여기서 수운주의는 종교이면서도 동시에 사회개조를 위한 운동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상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즉, 수운주의는 당대의 모든 문화를 혁신하기위한 일종의 생활 혁신 운동으로서의 종교이다. 모든 문화를 통일하여 조화하며 지도하고 나아가 그를 인간적 중심주의에 귀납케 하여 일대 신생활의 활로를 개척하여주는 의미의 종교인 것이다. 마치 과거 일신교의 원시적 종교혁명이 그 당시의 생활혁신이었던 것처럼 수운주의는 당시의 생활혁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후천개벽이라 명명한다. 후천은 신사회의 의미이고 개혁은 문화의 개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후천개벽은 곧 신사회 건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sup>166)</sup> 수운주의는 후천개벽의 첫 걸음을 개인의 '한울아(我)'를 회복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개체는 천태의 형상만상의 심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全人間的 본원이요. 인간적의 중심인 '한울我'는 全然同一할 것이니 사람의 현상적 個我是 시시각각으로 환경여하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 할 지라도 그 본원되는 '한울我'는 결코 피아가 없을 것이며 잡음이 없을 것이요. 그는 어디까지든지 全的이며 唯一이며 자존이며 자율이니 사람은 당연히 이 '한울我'의 체에 합일되어 인간적의 대생명을 체득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되는 지위에 올라갈 것을 말함이다. 그런데 현대의 인간은 그 형체상에서는 인간의 형체를 가졌으나 인간적으로 당연히 발견할만한, 다만 인간적이라야 소유할 만한 '全的我'(한울我)를 전연 망각한 상태로 사는 것이니 이것이 인간으로 생명을 잃은 자이며 영혼의식을 잃은 자라 볼 수 있다.<sup>167)</sup>

---

165) 위의 책, 147-148쪽.

166) 위의 책, 137-139쪽 참조.

이를 위해 수운주의는 우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위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 몸에 모신 한울 이른바 ‘한울아’는 아의 ‘전일(全一)의 아’이며 소아(小我)에 대한 대아(大我)이며 개체아(我)에 대한 보편아(我)를 말하는데 이것이 ‘오심즉여심’의 경지를 의미한다. 이것을 체득하는 날이 곧 개개인의 속된 마음인 각자위심을 극복하는 날이다. 이를 통해 수운주의는 인간적 중심의 생활 즉, 인간적의 정신해방 및 건설, 인간적 중심의 제도해방 및 건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학사상은 지극히 이상주의적이면서 철저한 현실분석에 바탕한 현실주의였기에 개혁은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포덕천하, 지상신선, 후천개벽의 이상사회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최후의 이상사회 건설이념이었다면, 보국안민은 당시 최고의 급선무였고 당장에 실천해 우리 민중들이 획득해야 할 대상이었다. 보국안민의 실현을 위해 수운주의에서 이돈화는 특히 인간개조를 중시해 그것의 우선조건으로 사상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3대개혁론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67)</sup>

이돈화의 삼대 개혁론은 정신개혁인 인간개조와 민족개혁과 사회개혁인 사회개조를 포함한다. 즉, 정신개혁은 “선천시대의 역사적 사회적으로 일러진 현재 인간의 의식을 개혁하여 후천사회 창설의 새 의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민족개혁은 “민족문화의 발전향상과 민족지위의 향상”을 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개혁은 “사회기구의 물질문화 및 정신문화의 체제를 인간본위의 표준으로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69)</sup>

이돈화는 최제우가 ‘보국안민’ ‘포덕천하’의 사상과 아울러 먼저 개인의 정신개혁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정신개혁이라 함은 일종의 사상개조를 의미한 말인데 수운이 ‘수아영부(受我靈符)하여 제인질병(濟人疾病)하

167) 위의 책, 126쪽.

168) 야외의 삼대개혁론은 그의 『신인철학』과 황선희, 1996.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동학·천도교편-. 해안. 255-281쪽을 주로 참조함.

169) “사회상식술어 제일집.” 『당성』 12호. 1932년 6월.

라'한 어구에서 정신개혁을 철저히 고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70)</sup> 정신 개혁에 있어 강조되는 것이 환경과 인간정신과의 관계이다. 그는 정신개혁은 모든 개혁의 준비행위라면 환경개조와 정신개조와의 불가분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대체 우리의 의식이 환경에 의하여 생겼다는 것은 부인치 못할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환경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악한 환경의 지배에서는 악한 정신이 움직이고 선한 환경의 지배에서는 선한 정신이 움직일 것은 사실이다. …(중략)…그러나 바깥 환경도 역시 사람이 고쳐 놓기 전에는 환경스스로가 고쳐질 리는 만무하다. 사람이 환경을 개조한다는 데는 반드시 의식문제가 따라가는 것이다. 의식으로 먼저 환경의 결함을 알고 환경의 부조화를 고찰한 후에 그것이 사상으로 변하며 양심의 고통으로 화하여 필경은 이것이 사회화되며 사상화되는 데서 처음으로 개조문제의 현판이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개혁은 모든 개혁의 준비행위가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개조와 환경의 개조는 절대로 분립되어 정신개조가 끝나는 날에야 환경개조가 시작되느냐 하면 그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정신개조에도 여러 정도가 있고 환경개조에도 여러 정도가 있다. 정신개조가 되니만치 환경개조를 재촉하고 또한 환경개조가 되면 되는만큼 내적 정신개조를 재촉함으로써 이 양자는 서로 색인하며 포함하며 연쇄가 되어 사회개조에 나아가는 것이다. 마치 노동의 양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생산행정이 커지고 생산행정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노동의 양을 요하는 것과 같이 정신과 환경은 필경 일이면서 이이오 이이면서 일이다.<sup>171)</sup>

그는 정신개혁의 구체적 방법으로 기성사회의 도덕적·제도적 부조리에 저항하는 반항도덕을 제시하였다.<sup>172)</sup> 반항도덕은 기성의 윤리·도덕 및

---

170) 위의 책, 『신인철학』 148쪽.

171) 위의 책, 149-150쪽.

172) 위의 책, 150쪽.

제반 제도의 결합을 알아내고 감정과 의지로써 그 부자연에 대하여 반항함을 말하는데 정신개벽에 있어 반항도덕이 얼마만한 중요역할을 하는가를 야퇴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논증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 신화의 아담과 이브의 신화는 인류에게 최초로 반항심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sup>173)</sup> 나아가 인류의 역사는 원시시대로부터 자연에 반항을 시작하였다. 맹수를 퇴치하며 홍수를 다스리며 풍우상설등 대자연의 횡폭에 대하여 방어와 투쟁을 계속하였다. 원시사는 인류대 자연의 전쟁사이다. 그리하여 자연에 반항하는 일면으로 자연을 제어 이용하기에 노력하였다. 불의 발명, 동철의 발명, 농업 목축의 발달, 자연의 이용을 시작하였다. 자연의 이용은 일면으로 자연에 대한 반항이다. 반항이 없는 이용이 없고 이용이 없는 반항이 없다. 농부는 곡초를 이용하기 위하여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다. 광부는 금을 얻기 위하여 토석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용은 일면에서 반항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최초반항은 자연에 대한 반항으로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 오늘날 자연과학은 실로 원시인류의 자연지식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은 반항에서 생겼다<sup>174)</sup>고 보는 것이다.

또한 계급투쟁 역시 인류의 반항성이고, 문예부흥운동은 교권에 대한 사상적 반항운동이며 종교개혁운동은 종교에 대한 교리적 반항운동이며 프랑스혁명은 정치적 반항운동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인류는 해방을 얻고 모든 과학적 지식과 신문화의 전개를 보게 되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현대의 신지식이 반항에서 나온 증거이다.<sup>175)</sup> 이처럼 정신개벽은 기득권자에 대한 반항도덕을 전제하고 있다 이들 정신개벽자야 말로 시대모순에 대항하는 자이자 시대 변화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173) 위의 책, 150쪽 참조. 물론 이 무상의 진보인 지식이 반항에서 생겼느냐 복종에서 생겼느냐 하는 문제를 이스라엘 신화는 반항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아담이 신의 계명을 반항하고 지식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지식을 탄생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인류에게 지식이 생긴 것이 죄일는지 선일는지 그는 별문제로 하고 어쨌든 지식이 반항에서 나온 것은 명백하다. 이는 신화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174) 위의 책, 151쪽.

175) 위의 책, 151쪽.

민족개벽은 민족의 문화와 생활정도를 향상 발전하고자 하는 개벽으로 모든 이상주의의 과도기에 있어서 최대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시 인류는 하나의 민족으로 동일한 인격과 동포애를 가진 것인데 분화되어 네 민족, 내 민족을 따지고 갈등하는 이유는 계급의 발생과 압제의 탓이라고 한다.<sup>176)</sup>

따라서 민족개벽은 우선 민족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한 차별성을 인정한 뒤에 융화하게 하여 상호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오늘의 민족문제는 약소민족의 민족문제를 의미하므로 개별 민족의 평등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이돈화는 압제하의 조선 민족의 지위 회복을 암시하고 있다.<sup>177)</sup> 즉, 과거의 민족주의가 인류간의 차별과 배제를 의미하는 민족주의라면 민족개벽은 인류의 평화와 평등의 인도주의적 민족주의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민족지위의 향상 요구로 이어진다.<sup>178)</sup>

수운은 당시 뇌사상태에 처한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개벽을 외쳤다. 즉 수운은 유교로부터 얻은 민족성을 숭고사상, 의타사상, 승문배무사상, 승례계급적 사상이라 규정하고 만사를 선생의 도로 표준하게 하여 우리 민족의 장래가 없는 민족이 되게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수운은 자신의 득도일을 선천과 후천의 분기점으로 삼고 “오도는 후천개벽의 운을 받고 난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유교적 폐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혼의 부식(扶植), 강령법으로 영가무용(咏歌舞踊)<sup>179)</sup>을 실시했고, 사인여천을 주장함으로써 봉건적 신분질서에 일대 혁명적 바람을 일으켰다.

한편 조선 민중이 영향받고 민족성화 된 불교의 폐로는 퇴보사상, 출세간사상을 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운은 “너이라 무슨 팔자 불로자득하

176) 위의 책, 153쪽.

177) 이러한 야뢰의 모습은 식민지 하의 독립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연약한 지식인의 모습과 일치한다.

178) 『신인철학』, 153-154쪽 참조.

179) 남원 은적암에서 수운이 홀로 목검을 들고 검가를 부르며 무용을 했다는 점은 유약한 조선 민중에 강인함을 불어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수운은 뒤에 이 검가로 인해 역모죄로 몰리기까지 한다.

단 말가 함지사지출생(陷地死地出生)들이 보국안민 어찌할고"하여 공적 도덕을 강조하였다.<sup>180)</sup> 이 같은 수운의 민족개벽운동은 그 뒤 그의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지상천국이라는 수운주의의 마지막 목표를 위한 단계로 민족개벽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개벽이다. 이 양자는 함께 가는 것으로 실제로 청우당의 부문운동을 보면 민족성 개조를 위한 민족개벽과 사회 진보를 위한 사회개벽운동은 동시에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운주의의 사회개벽은 경제적 충족만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이론과는 차별되고 있다. 수운주의의 사회개벽은 유물적 경제문제의 만족을 넘어선 인간격 중심 문제에 집중한다. 즉, 사회주의의 중심문제는 경제를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데 대하여 수운주의의 중심은 인간격으로 최고의 이상을 삼는 것이다. 경제문제는 인간격 생활에 대한 일단계적 문제요 일국부적 문제이다. 그러나 인간격 중심주의의 문제는 인간 이상의 최고 우주생활의 표현 이라고 수운주의는 보고 있다.<sup>181)</sup>

다시 말해 수운주의는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하는 것은 인간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였다. 경제문제는 인간격 중심의 생활에서 볼 때 국부적인 문제로 인간성회복의 과정 중 한 단계라는 것이다. 즉 유물론자들이 사회개혁의 이상실현을 위하여 물질적 조건에만 집착하였던 것에 반하여 수운사상은 인간격 중심주의 입장에서 도덕적 사회진화를 최고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간성극복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수운주의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한 이념이기에 성신쌍전(性身雙全)을 말하며 이를 통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이상사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격 중심주의 속에서 인간의 소유투쟁이 창조투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색이야말로 진정한 사회개벽으로 보는 것이다. 청우당의 활동과 노선 역시 창조투쟁에 진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 모두가 사회개

180) 『신인철학』, 156-157쪽 참조.

181) 위의 책, 158쪽.

벽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수운주의는 3대 개혁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후천개혁의 목적인 지상천국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때의 수운주의는 인간적 중심에서 모든 사상, 모든 주의를 귀납하여 그들을 통일케 하여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주의를 말한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처럼 이목구비의 오관의 작용과 사지백체의 운동을 조절하며 또는 통일하는 것과 같은 인간적 중심주의이다. 그러므로 수운주의는 부분이 아니요, 전체이며 기관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수운주의는 만회귀일을 도모하는 주의이기도 하다.<sup>182)</sup>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수운주의는 지상천국이라는 신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며 일제하 천도교의 민족운동이나 청우당의 정치운동은 이와 같은 수운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돈화의 수운주의와 삼대개혁론은 천도교의 위상을 종교에서 근대사회사상으로 정립시키었고 이러한 그의 사상은 천도교의 민족운동과 청우당의 정치이념으로 실생활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 5. 보편적 가치 지향의 정치추구

동학사상은 '후천개혁, 오심즉여심, 인내천, 동귀일체, 사해일가, 만족일인(萬族一人)'이라는 원리와 목표를 표방하여 그의 구체적 강령으로 나타난 것이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이다. 그리고 이것들의 총괄적 이름은 이 원리와 강령의 탄생이 동쪽의 도인 '동학'이라 한 것이요, 오늘날의 이름은

---

182) 위의 책, 162쪽 참조. 이돈화는 보국안민에서 보국은 민족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민은 사회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며 포덕천하 광제창생은 지상천국을 의미한다. 보국안민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주의라면 지상천국은 이상주의의 추구이므로 수운주의는 현실이상주의, 삼단사상(三段思想)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쪽.

천도교이다. 이 원리와 목표의 실현은 지상천국의 건설이고 그것의 전위조직으로 결성된 것이 청우당이다.

이돈화는 청우당의 출발인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해 왔다. 그는 청년당, 청우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을 천도교와 일체시키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와 당은 일체양면이며 이위일체이다. 교는 광원과 같다하면 당은 광선과 같다 할 수 있다.<sup>183)</sup> 교가 근원이라면 정은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운주의와 3대 개혁론을 통해 이미 현실 사회변혁에 참여하는 천도교의 위상을 정립한 이돈화는 본격적으로 청우당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치이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돈화가 판단한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실현이었다. 그런데 원래 보국안민을 천도교 현실참여의 명분으로 삼았기에 천도교의 전위단체인 청우당은 당연히 보국안민을 당의 이념으로 삼아야 했다. 보국은 민족해방이고 안민은 계급해방이 되는 점에서 이돈화의 입장은 더욱 명확해 진다. 특히 해방 후 이돈화가 월북해 청우당의 이념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청우당 최고의 이론서인 『당지(黨志)』<sup>184)</sup>는 보국안민의 계책은 이미 수운 대신사가 제시해 놓았다고 하며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輔國安民之策 計將安出乎?』 그러면 선생의 소신하는 보국안민의 책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선생의 저서중에서 其大義를 추출하여 보면 선생의 보국안민의 책은 대체 삼대요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一曰 신인간

183) 조기간, 『천도교 청년당 소사』 천도교청년당본부, 1935, 135쪽. 청우당이 일제시대 추진했던 7대 부문운동도 이러한 인식 하에 추진되었던 민족운동이자 천도교의 현실참여였다.

184) 『당지』는 청우당의 정치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야퇴 이돈화가 정리했으며 특히 북조선 청우당의 당원훈련용 교재였다고 한다.(당시 북한에서 청우당원이었던 임운길 현 교령님은 평양역 전 앞에 있었던 중앙당학교 강습에서 야퇴에게 이 교재로 직접강의를 들었다 한다. 『당지』는 북의 청우당 중앙당 선전부에서 1947년 간행된 것으로 월남자인 노재극씨가 한 부를 가져와 재야 정치학자인 임중산선생에게 전함으로써 남한에서도 햇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도 북한에서 출간된 낡은 『당지』를 중산선생에게서 구해 볼 수 있었다.

창조 二曰 조선魂把持 三曰 동귀일체운동이 이것이다.

선생은 신인간창조를...(중략)...우리 조선인민은 人間其者의 본질로서 무서운 질병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보국안민에 대한 최선급무가 인간개조이었다. 인간개조란 말은 인민을 정신적 질병상태에서 구출하자는 것이라고 절규하였다. 이것이 우리교의 정신개혁운동이었다. 다음은 조선혼의把持인데 조선인은 조선인이면서 조선혼을 망실한 민족이었다...(중략)...조선혼의 파지는 곧 천도교신앙도 되며 보국적 혼백도 되어진다. 이것이 천도교 팔십칠년래의 보국사상이며 민족개혁운동이었다...(중략)...세째로 동귀일체운동인데 현재조선은 무엇보다도 민족통일을 절규하고 있다. 그러나 알고보면 이것은 일세기 전에 부르짖던 동귀일체사상에 不外하는 것이다. 수운선생의 동귀일체사상은 조선민족은 조선혼인 천주사상으로 一以貴之하라는 사상이었다...(중략)...수운선생의 천주사상은 인내천적 세계관이 낳은 신인합일사상인 점에서 이는 조선민족만을 통일할 사상이 아니요 세계억조를 오심즉여심의 至氣一元의 下에 총친화 총단결할 세계일가사상이었다. 이러한 사상을 정치적 현실에 활용하여 지상에 이상적 천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청우당의 사명이요 우리교의 사회개혁운동이었다.185)

이돈화의 보국안민계획은 수운이 이미 제시했으니 그것이 오늘날 첫째, 신인간 창조를 통한 인간개조이고 이를 통해 근대적 난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일제시대에는 국권회복의 민족해방운동이었다면 해방 후에는 주권회복의 민족해방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정신개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한 운동의 바탕에는 민족혼이 담겨있어야 하므로 조선혼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민족의 혼을 파악해 실천하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민족개혁운동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계획은 동귀일체운동이다. 이것이 동학사상을 세계적 정치사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원이다. 즉, 조선인의 통일과 아울러 전 인류의 해방과

---

185) 『당지』 12-19쪽 참조

통일을 지향하는 사상적 지향을 강조한다.<sup>186)</sup> 여기에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사상도 모두 동귀일체되어 하나의 원대한 사상을 추구하자는 사상적 통일의 달성을 통해 사회개조를 이룩하는 것이 청우당 운동의 최종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돈화는 청우당의 정치이념에서도 자신의 3대 개혁에 입각한 논지를 잃지 않고 있다. 오히려 3대 개혁론은 더욱 정치이론화 되어 정신개혁은 신인간의 원천으로, 민족개혁은 조선혼을 담아 자주적 통일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강한 민족주의 의식으로 구체화 시켰으며, 나아가 사회개혁은 동귀일체의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세계일가주의적 이상론을 담고 있다. 즉, 이돈화가 제시하는 청우당이 실천해야 할 보국안민의 계획은 단계론적 접근으로 보국은 정신개혁을 이룬 신인간들이 활동하여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는 단계라면 안민의 단계는 그러한 자주독립국가의 항구적 지속을 위한 방책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민의 내용은 국민의 노력으로 실현되는 경제적 기초의 성립과 자치적 치안의 유지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독립체가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능력함양을 위한 정치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sup>187)</sup> 그러나 이돈화는 지나친 보국안민의 강조는 퇴행적 민족주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민족주의를 뛰어 넘는 인류주의, 세계주의를 제시하니 그것이 포덕천하라고 주장한다.

포덕천하의 단계는 보국안민을 이룬 뒤 실천하는 단계로 동귀일체의 이상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 인류적 차원의 보편적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말하며 무엇보다도 인류가 처한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 사회적 질병이라는 3가지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의 치유는 인내천으로 무장한 신인간들의 활동으로 가능한데 특히 청우당원들의 임무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sup>188)</sup> 따라서 청우당의 실천강령

186) 수운의 布德天下도 같은 의미이다. 그 덕을 우리 민족에게만 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 퍼자는 뜻이다.

187) 『당지』, 39-44쪽 참조.

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임무를 부여하고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일, 민족자주(民族自主)의 이상적 민주국가건설을 기(期)함.  
이,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정신에 맞는 새 윤리 수립을 기함  
삼,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신생활에 기(基)한 신경제 제도의 실현을 기함  
사, 국민개노제(國民皆勞制)를 실시하여 일상보국(日常輔國)의 철저를 기함<sup>189)</sup>

청우당의 강령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두 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집단인 정당의 강령에 도덕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청우당은 강령으로 사인여천의 윤리적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는 청우당이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이다.<sup>190)</sup> 즉, 도덕성을 상실한 조선에 도덕성 회복을 외치며 등장한 것이 동학이었기에 도덕성이야말로 국가기강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청우당은 사인여천의 정신으로 새로운 윤리관을 세우자는 것이다.<sup>191)</sup> 즉, 이돈화는 개인과 전체의 조화, 사회윤리 그리고 천도교의 삼경윤리를 제시하며 사인여천의 윤리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개인과 전체의 관계에서 전체는 아무쪼록 각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용인하는 동시에 개인은 어디까지던지 전체의사에 복종하여야 한다. 가정윤리

---

188) 위의 글, 45-48쪽 참조.

189) 『당지』를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천도교 모든 출판물에는 청우당 강령의 삼대강령만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제 3강령의 의미 속에 제 4 강령의 의미가 포함되기에 합치한 결과라고 한다. 임윤길 현 교령님(전 청우당원) 증언. 여기서는 『당지』의 해석에 따라 4강령을 포함시켰다.

190) 이러한 주장은 과거의 청우당관계자들 모두의 거의 공통된 증언이기도 하다.

191) 실제로 개인이든 사회든 윤리 도덕이 확립되어야만 국가가 부패하지 않는다. 세계사의 흥망성쇠를 보더라도 순수한 외침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예보다도 대내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에 의해서 내우외환을 자초하여 국가를 멸망으로 몰고 간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정치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은 나라의 존망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 더욱 경계의 대상이 된다. 김철. 앞의 책, 367쪽.

에 있어서는 心을 주로 하고 物을 종으로 하여야 한다. 가정생활을 공리적으로 판정하면 가정윤리는 즉시 파괴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자의 윤리질서가 빈자의 윤리보다 일층 惡性的 亂倫行爲가 일어나는 것은 가정의 윤리를 물질로 척도하는 까닭이다. 사회적 윤리에 있어서는 物心を 균형을 조화하여야 한다. 요하건대 사회적 윤리는 氣化를 원칙으로 하고 계급의식을 방편으로 하여야 한다. 계급사회에서 계급윤리가 유행되는 것은 제도가 究竟 倫理觀念을 생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선한 제도에서는 선한 윤리가 출래한다. 사인여천의 윤리에는 동귀일체의 교화와 동귀일체의 제도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동귀일체의 윤리를 건설하게 된다. 敬天 敬人 敬物의 삼경 윤리는 천도교의 새 윤리제도의 근간이 된다.<sup>192)</sup>

이돈화의 지적은 사인여천의 윤리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 모두를 담보하는 최고의 민주주의 이론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나아가 동학사상이 가지는 만물 공존의 공동체적 입장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인여천의 윤리는 평등만을 강조하는 듯하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에 일면에서는 평등이고 일면에서는 자유를 가진다. 사실 자유와 평등은 그 모순성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속제로 지금껏 남아 있다. 자유의 강조는 평등에의 치명적 폐를 끼치며 평등의 강조는 자유의 억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풀기 위해 민주주의는 이들 모두를 묶을 수 있는 이념으로 '인간에의 존엄'을 들고 있다. 즉, 자유와 평등은 모두 인간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이념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인여천이다. 사인여천 그 자체가 최고의 인간의 존엄을 강조할 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모순성을 자연스러운 질서와 제한으로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돈화의 정치이념은 오늘의 민주주의 정치이념이 가져

192) 『당지』 67-68쪽. 특히 해월은 그의 사인여천의 사상을 '경'의 개념과 결부시켜서 敬天敬人. 敬物을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사물에까지 확대하였다. 신용하. 『한국근대사 회사상사연구』 앞의 책, 159쪽.

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를 주고 있다.

## 6. 맺는 글

이돈화는 천도교가 동학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적 종교로 발전하는 초기단계에서 교리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이론화를 이룩한 최고의 이론가이자 천도교의 전통인 교정쌍전론에 입각한 사회 정치문제에로의 확대에 정통한 사상가였다. 그는 젊은 시절의 방황을 천도교에 입교해 극복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천도교 연구와 활동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이었다.

이돈화를 통해 천도교는 서구 근대철학을 적용해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내천의 종지화를 확고히 하게 되었고 근대 종교로서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 이론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천도교의 전위단체인 천도교 청년당과 청우당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기관지의 편집과 발행이라는 중요한 직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개벽』과 『신인간』 또는 『별건곤』과 같은 다른 천도교의 기관지에 이돈화는 수많은 글을 발표하는 한편 원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 대중강연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글과 강연으로 천도교의 천도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아가 이돈화는 천도교란 종교를 사회개혁의 방편으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수운주의와 3대개벽론을 주장하면서 천도교의 대사회운동의 논리적 바탕을 제공해 주었다. 이것은 후일 청우당의 당 이념이 되어 그대로 천도교의 정치이념이 되었다. 종교단체를 배경으로 한 정당임에 불구하고도 청우당은 매우 진보적이며 독창적인 정치이념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었다. 청우당의 정치 이론화 역시 이돈화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돈화의 흔적에 비해 아직 이돈화 연구는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돈화 연구가 그의 천도교 교리 근대화 과정과 서구 철학의

소개와 응용 등에 치중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이 왜 일제시대 천도교의 민족운동의 배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그의 정치이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천도교가 성신쌍전을 바탕으로 교와 정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는 독특한 한국적 종교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희생이 뒤 따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한국 민족주의 정치운동이었고 독창적인 정치사상의 전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돈화의 말년은 이러한 천도교의 정치이념을 정립하는 시기였다고 보아진다. 특히 그가 월북하여 정리한 『당지』를 비롯해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북한 청우당에서 발행한 책자들은 그의 논지가 대부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sup>193)</sup> 향후의 이돈화 연구가 더욱 요구되는 이유도 천도교 정치이념의 규명은 물론 천도교단 최고의 정치 사상가였던 이돈화의 재발견에 있다고 할 것이다.◎

---

193) 해방정국시기 북한 청우당에서 발행 책자들이 최근 국립도서관을 통해 열람이 가능해 졌다. 『천도교청우당의 기본이념』, 『천도교청우당론』 『천도교리대요』 등이 그것이다.

◇ 제3주제 토론



◇ 제4주제

「용담유사」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

임 금 복(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목 차

1. 서론
2. 신화적 인물-삼황오제와 요순, 기자
3. 정치사상적 인물-공맹
4. 통치자 인물-진시황과 한무제
5. 부정적 인물-결, 도척과 환퇴, 전자방과 단간목
6. 기타 인물-두목지와 사광, 편작
7. 결론



## 1. 서론

필자는 중국 인물이 「동경대전」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본 바 있다. 「동경대전」에는 중국 인물 유형이 신화적 인물, 정치사상적 인물, 문예적 인물, 기타 인물로 투영되어 있다.<sup>1)</sup>

그렇다면 이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수운의 「용담유사」<sup>2)</sup>에는 중국 인물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용담유사」는 주로 1860년-1863년에 쓰여졌으며, 이 역시 수운의 중국 인물에 대한 사유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용담유사」에 나타난 중국 인물은 <교훈가>에 '요순'과 '결', <안심가>에 '공부자'와 '진시황', '한무제'와 '편작', '요순', <용담가>에 '기자', <몽중노소문답가>에 '두목지'와 '사광', '요순'과 '공맹', <도수사>에 '공부자', '삼천제자'와 '칠십이인', '전자방'과 '단간목', <권학가>에 '삼황오제'와 '요순', <도덕가>에 '요순'과 '공자', '도척(盜跖)'과 '환퇴(桓魋)' 등이 나오고 있다.

「동경대전」에도 중국 인물로 <포덕문>의 '오제', <논학문>의 '공자'와 '요순', <수덕문>의 '공부자', '도연명'과 '강태공', '주렴계'와 '제갈량', '삼천

\* 성신여대 국제문화교육원 한국어 강사

- 1) 줄고, 「『동경대전』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 『동학학보』 21호, 동학학회, 2011. 4. '수운'은 이들 인물을 통해 신화적 인물은 철학사상론 정립을 위한 대비법으로, 정치사상적 인물은 성인의 경지와 제자 비유나 물상적 비유로, 문예적 인물은 풍류와 절조의 세계 비유법으로 쓰고 있고, 기타 인물은 총명한 자나 명의, 재물의 소유자를 지극정성의 수련 정도와 대비하여 그것을 뛰어넘는 경지로 설정하고 있다.
- 2) 「용담유사」는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무극대도의 출현을 강조하므로, 이 도를 올바르게 믿어 올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가르침을 편 종교가사이며, 동시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다 철저히 19세기 중반이라는 조선조 시대 상황을 비판하고, 또한 인식했던 그러한 의식을 담은 가사 작품이므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서학에 대한 비판, 나아가 일본 등 인접국에 대한 비판적 성찰, 외세의 침공에 대한 위기 의식과 극복해야 할 당위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개화기 초기의 자생적 개화 의식을 담은 가사이다. 윤석산, 『동학사상과 한국문학』, 한양대출판부, 1999, 58쪽.

제자, '자공', '왕희지', '석승', '사광(師曠)'과 '편작', <불연기연>의 '천황씨', <화결시>의 '공자', '도연명'과 '소동파', '주렴계'와 '이태백', <영소>의 '항아'3) 등이 다양하게 나왔었다.

이 글에서는 「용담유사」에 나오는 중국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용담유사」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정재호4), 조동일5), 김인환6) 등이 단

3)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 등장하는 중국 인물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담유사」에는 「동경대전」과 달리 '문예적 인물'보다는 '통치자 인물'과 '부정적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 유형        | 「동경대전」의 중국 인물  | 「용담유사」의 중국 인물   | 공통 인물    |
|-----------|--|---|----------|
| 신화적 인물    | <불연기연>의 천황씨<br><포덕문>의 오제<br><논학문>의 요순<br><영소>의 항아  | <권학가>의 삼황오제<br><교훈가>의 요순<br><안심가>의 요순<br><몽중노소문답가>의 요순<br><권학가>의 요순<br><도덕가>의 요순<br><용담가>의 기자 | 오제, 요순   |
| 정치 사상적 인물 | <논학문>의 공자<br><수덕문>의 공자<br><화결시>의 공자<br><수덕문>의 자공<br><수덕문>의 삼천제자<br><수덕문>의 강태공과 제갈량,<br>주렴계<br><화결시>의 주렴계 | <안심가>의 공부자<br><도수사>의 공부자<br><몽중노소문답가>의 공맹<br><도덕가>의 공자<br><도수사>의 72인<br><도수사>의 삼천제자           | 공자, 삼천제자 |
| 통치자 인물    | 없음   | <안심가>의 진시황과 한무제   | 없음       |
| 문예적 인물    | <화결시>의 도연명과 이태백,<br>소식<br><수덕문>의 왕희지   | <몽중노소문답가>의 두목지  | 없음       |
| 부정적 인물    | 없음   | <교훈가>의 곁<br><도덕가>의 도척과 환퇴<br><도수사>의 전자방과 단간목  | 없음       |
| 기타 인물     | <수덕문>의 사광과 편작,<br>석승   | <몽중노소문답가>의 사광<br><안심가>의 편작  | 사광, 편작   |

4) 정재호, 「동학가사의 일고찰」, 『아세아연구』 제38호, 1970.  
정재호, 「「용담유사」의 국문학적 고찰」, 『한국사상연구』 4, 태광문화사, 1975.  
정재호, 「「용담유사」의 근대적 성격, 한국고전문학회 편,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지성사, 1984.

편적으로 언급해오다가, 윤석산이 ‘용담유사’의 구조적 분석, ‘용담유사’에 원용된 제사상의 문학적 의미, ‘용담유사’의 주제의식 고찰, ‘용담유사’의 문학적 고찰 등) 다각도로 연구한 바 있다. 또 ‘동학 경전’에 대한 문학적 고찰은 필자의 신화적 고찰<sup>8)</sup>, 수사학적 고찰<sup>9)</sup>, 중국 인물 고찰<sup>10)</sup>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용담유사」에 등장하는 중국 인물 유형을 다섯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고 수운의 중국 인물에 대한 사유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인물 유형은 첫째, 신화적 인물(‘삼황오제’와 ‘요순’, ‘기자’), 둘째, 정치사상적 인물(‘공자’와 ‘맹자’), 셋째, 통치자 인물(‘진시황’과 ‘한무제’), 넷째, 부정적 인물(‘절’, ‘도척’과 ‘환퇴’, ‘전자방’과 ‘단간목’), 다섯째, 기타 인물(‘사광’과 ‘편작’, ‘두목지’)이다.

## 2. 신화적 인물 - 삼황오제와 요순, 기자

「용담유사」에 첫 번째 유형으로 신화적 인물, ‘삼황오제’와 ‘요순’, ‘기자’ 등이 나온다. ‘삼황오제’는 <권학가><sup>11)</sup>(1862)에, ‘요순’은 <교훈가><sup>12)</sup>

- 
- 5) 조동일, 「개화기 가사에 나타난 개화, 구국사상」, 『동서문화』 IV집,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1970.  
조동일, 「개화기의 우국가사」, 『개화기의 우국문학』, 신구문화사, 1974.
- 6) 김인환, 「‘용담유사’의 내용 분석」, 『문학과 문학사상』, 열화당, 1979.
- 7) 尹錫山, 『龍潭遺詞 研究』, 민족문화사, 1993.
- 8) 줄고, 「동양의 신화와 동학경전의 비교-요순 신화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10호, 동학학회, 2006. 5.  
줄고, 「‘목소리’와 ‘바위’, ‘새’와 ‘저울’의 현상학-서구 신화와 동학 신화의 비교」, 『문학공간』 202호, 문학공간사, 2006. 9.
- 9) 줄고, 「동양신화의 경전수사학-‘동학경전’에 나타난 ‘삼황오제 신화’를 중심으로」, 『문학공간』 228호, 문학공간사, 2008. 11.
- 10) 줄고, 「‘동경대전’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 『동학학보』 21호, 동학학회, 2011. 4
- 11) <권학가>(1862)는 전라도 피신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도를 열심히 믿도록 가르친 글이다. ‘수운’은 낡은 세상이 곧 가고 새로운 세상이 천리(天理)에 의해서 곧 돌아오게 되므로 자신이 한울님을 위한 것은 곧 자기자신의 확대요 천리를 따르는 것이므로 한울님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공경하면 반드시 좋은 시절을 만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유병덕 편저, 『동학·천도교』, 교문사, 1993, 150쪽.

(1860)와 <안심가>(1860)<sup>13)</sup>, <몽중노소문답가>(1861)<sup>14)</sup>와 <권학가>(1862), <도덕가>(1862)<sup>15)</sup>에, ‘기자’는 <용담가><sup>16)</sup>(1860)에 나오고 있다.

## 1) 삼황오제

먼저 ‘수운 최제우’의 <권학가>(1862)에는 신화적 인물로 ‘삼황오제’가 등장하고 있다.

‘천황씨’를 포함한 ‘삼황오제’는 이상적 제왕 신화의 주인공이자 중국 고대의 전설적 제왕이다. ‘삼황(三皇)<sup>17)</sup>’은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인황씨(人皇氏)’다. ‘천황씨(天皇氏)’는 중국 태고 시대의 전설적인 인물이며

- 
- 12) <교훈가>(1860)는 ‘수운’이 자신의 후세에게 가르치는 형식을 갖추어 당시의 제자들과 후생들을 교훈을 주기 위한 글이다. ‘수운’은 자기 가계의 훌륭한 점을 찬양하고 자기의 대(代)에 와서 몰락하게 됨을 탄식하면서 주유천하하다가 마침내 득도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유병덕 편저, 위의 책, 149쪽.
- 13) <안심가>(1860)는 ‘수운’이 겪는 지난날의 고생과 함께 경신년 4월을 맞아 한울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과정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종교체험 중에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영부(靈符)에 관하여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동학사, 2009, 363쪽.
- 14) <몽중노소문답가>(1861)는 꿈속에 어느 도사와 문답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가사에 나오고 있는 기남자로 지칭하는 한 사람의 탄생이나 성장과정 등이 ‘수운’의 여러 면모와 많이 유사하다. ‘몽중노소문답가’는 ‘수운’ 자신의 출자를 매우 비유적으로 노래한 가사로 추정된다.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413쪽.
- 15) <도덕가>(1862)는 객지에서 지은 글로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 본체생명(本體生命)인 한울님의 의사에 합치되는 개인의 모든 행위를 올바른 도덕으로 규정하고 그밖의 모든 인간의 행위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병덕 편저, 앞의 책, 151쪽.
- 16) <용담가>(1860)는 경신년 후반기에 쓰여진 가사이며, 주유팔로(周遊八路) 이후 용담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수운’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용담의 승지에 비견하여 매우 처연하게 노래하고 있다. 경신년 결정적 종교체험 이후 겪게 되는 득도의 기쁨과 함께 그 환희에 찬 모습으로 바라보는 구미용담의 풍경이 담겨져 있다.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395쪽.
- 17) 天皇氏, 姓望, 名獲, 字文生; 別号防五、天灵; 地皇氏之父, 人皇氏之祖父; “五龍”之首; 古越族; 以木德王天下; 治所在良渚古城中的莫角山台址上; 在位年代: 2607 B.C-2575 B.C.  
 地皇氏, 是中國上古神話時期的君主, 三皇之一, 天皇之后, 地皇興起, 在龍門和熊耳山一帶即位, 共在位三万六千年。一說地皇氏即神農氏。  
 人皇氏, 姓愷, 名胡洮, 字文生; 別号居方氏; 地皇氏之子; 古越族; 以土德王天下; 治所在今山東日照兩城鎮遺址; 在位年代: 2550 B.C-2520 B.C. www.baidu(百度).com 참조.

삼황(三皇)의 으뜸으로 12형제가 각각 만 팔천 년씩 왕 노릇을 하였다<sup>18)</sup>고 한다. '지황씨(地皇氏)'는 천황씨(天皇氏)의 뒤를 이은 왕이고 오행(五行) 중 화덕(火德)으로써 천하(天下)를 다스렸고, 기원전 8364년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역(日, 月, 年)을 만들었다. '인황씨(人皇氏)'는 '십팔사략'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형제가 아홉 사람이었고 그들이 나뉘어 아홉 주의 군주가 되었다고 한다.

또 '오제'에 해당하는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소호(少昊)'·'전옥(顛頊)'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사마천이 「사기」에서 '오제'로 든 것은 '황제헌원(黃帝軒轅)', '전옥고양(顛頊高陽)', '제곡고신(帝嚳高辛)', '제요방훈(帝堯放勳)', '제순중화(帝舜衆華)' 등이며, 별도로 '복희', '신농', 또는 '소호' 등을 드는 경우도 있어 일정하지 않다.<sup>19)</sup>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오제', '복희'·'신농'·'황제'·'소호'·'전옥'에 대해 한 인물씩 살펴보자.

'복희(伏羲)'는 B.C 29세기에 뱀의 몸을 가지고 신(神)과 같이 신비스럽게 태어났다고 한다. 점(占)에 쓰이는 '8괘(卦)'를 만들어서 문자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다음으로 '신농(神農)'은 고대 중국 신화에 나오며, 마차와 쟁기를 만들었으며 소를 길들이고 말에게 멩을 씌웠다. 또한 백성들에게 불로써 토지를 깨끗하게 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중국을 확고한 농경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 '황제(皇帝)'는 중국 전국 시대 이후로 문헌에 등장하는 오제(五帝) 중 첫 번째 제왕(帝王)으로, '황제헌원씨(黃帝軒轅氏)'라고도 부른다. '황제'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18) daum. Naver, 브리태니카, 위키백과 사전 등 참조.

19) NAVER백과사전.

로나 완전한 영역에 도달했으며, 그는 또한 문화를 만들어낸 영웅이기도 하다.<sup>20)</sup> '소호(少昊)'는 중국 태고 때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임금으로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으므로 호를 금천씨(金天氏)라고 부르며, 가을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전욱(顓頊)'은 고대 중국의 신화상의 제왕이며, 이름은 고양(高陽)이다. 오제의 한 명으로 소호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고, 재위는 78년이었다고 전해진다.

'수운'은 신화적 인물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복희', '신농', '황제', '소호', '전욱'을 포함한 '삼황오제'를 <권학가>(1862)에 등장시키고 있다. 그 원문을 살펴보자.

大抵人間 草木群生 死生在天 아닐런가  
 不時風雨 怨望해도 臨死號天 아닐런가  
三皇五帝 聖賢들도 敬天順天 아닐런가  
 滄薄한 이세상에 不顧天命 하단말가  
 長平坑卒 많은사람 한울님을 우러러서  
 造化中에 생겼으니 恩德은 姑捨하고  
 根本조차 잊을소나 可憐한 세상사람  
 各自爲心 하단말가 敬天順天 하였어라  
 滄薄한 이세상에 不忘其本 하였어라<sup>21)</sup> <권학가> (필자-밑줄)

윗 부분의 <권학가>에 나오는 '삼황오제'<sup>22)</sup>는 성현들이 경천순천하는 이

20) 아서 코트렐, 『그림으로 보는 세계신화사전』, 편집부 옮김, 까치, 2002, 180-181쪽.

21) 수운 최제우, <권학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천도교중앙총부, 1993, 207-208쪽.

22) '삼황오제'와 관련해 「동경대전」 <불연기연>에서는 '천황씨'를 인류의 최초로서 차용하며 인간의 형성 과정과 군왕학을 빌어 불연기연의 철학론을 펼쳤다. 또 <포덕문>에서는 '오제'를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경지 등을 포함한 천도적 이상주의와

치와 연관시켜 드러내고 있다. 경천순천(敬天順天)은 하늘의 법도를 공경하고 또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한울님의 조화 중에 생겨난 것이니,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 그 근본을 두고 있는지 잊지 말라는 말씀이 담긴 단락<sup>23)</sup>이다.

이상과 같이 「용담유사」 <권학가>에서 '수운'은 신화적 인물이며 이상적 제왕 신화의 주인공인 '삼황오제'를 통해 이들 성현도 경천순천하는 데 하물며 천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자신만을 위하는 이 세상 사람도 근본을 지켜야 하며 당연히 경천순천해야 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성현들의 삶을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그 근본을 잃어버린 세상을 안타까워 하며, 경천순천하는 성현들의 삶을 제시하기 위해 '삼황오제'를 등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 2) 요순

「용담유사」 중 또 하나의 신화적 인물 '요순'은 <안심가>(1860)와 <몽중노소문답가>(1861), <교훈가>(1862)와 <도덕가>(1862), <권학가>(1862) 등에 등장하고 있다.

먼저 '요순', 즉 '요와 순'을 살펴보자. '요(堯)'는 가장 이상적인 국왕으로 추앙받은 인물<sup>24)</sup>이다. '요'와 더불어 태평성대의 군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성군 '순(舜)'도 인간 승리의 모범이 되었다.<sup>25)</sup>

수운은 '요'와 '순'을 함께 묶어 이상적인 왕이자 이상사회의 비유 시대로서 '요순 성세' 재도래, '요순 세상'과 대비, 아버지 육친으로서 '요순', '요순 성세'와 개인의 태도, '요순'과 악인 '도척'의 비교 등 여러 측면에서 등장시키고 있다.

유교적 문화영웅주의를 합성시킨 분기점이자 시발점이라 보여주었다.

23)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473쪽.

24) 원가, 『중국의 고대신화』, 정석원 역, 문예출판사, 1989, 173쪽.

25)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황금부엉이, 2004, 259쪽.

먼저, '수운'은 <안심가>(1860)에서 임진란 이후 '요순성세(堯舜聖世)' 재도래와 관련시켜 난세(亂世)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可憐하다 가련하다 我國運數 가련하다  
前世壬辰 몇해런고 이백사십 아닐런가  
十二諸國 怪疾運數 다시開闢 아닐런가  
堯舜聖世 다시와서 國泰民安 되지마는  
崎險하다 기험하다 我國運數 기험하다  
개같은 倭賊놈아 너희신명 돌아보라<sup>26)</sup> <안심가>

위의 <안심가>에서 보이듯 수운은 다시 온 '요순성세(堯舜聖世)'와 국민안을 연결지어 보여주고 있다. 그는 조선 시대를 통찰하며 난세기(亂世期)였던 임란시기를 보여주고 다시 난세가 된 수운의 시대여건을 유사구조로 통찰하며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란시절 조선에 명현이 있어 보존됐듯이, 지금의 아국운수도 한울님의 옥새보전과 한울님의 복록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국의 운수가 겪어왔던 난세와 평화가 도래되었던 '요순' 세상의 반복 여정 중, 또 닥쳐와 있고 닥쳐올 수 있는 난세시기에 대해 고뇌하며 아국 운수의 기험함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안심가>에서 쓰인 '요순성세'는 평화로운 세상의 의미다.

둘째, <몽중노소문답가>(1861)에서 '수운'은 이 세상과 대비된 세상을 '요순시대'와 연결 다시개벽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서시라 아서시라 八道구경 다던지고  
故鄉에나 돌아가서 百家詩書 외워보세

26) 수운 최제우, <안심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59-160쪽.

내나이 十四歲라 前程이 萬里로다

아서라 이세상은 堯舜之治라도 不足施요

孔孟之德이라도 不足言이라 胸中에 품은 懷抱

(중략)

근심말고 돌아가서 輪廻時運 구경하소

十二諸國 怪疾運數 다시開關 아닐런가<sup>27)</sup> <몽중노소문답가>

위 <몽중노소문답가>에서 보이듯 이 세상과 대비된 '요순지치(堯舜之治)'가 펼쳐지는 곳을 이상적 세상으로 보고 있고 이 세상은 십이제국 괴질운수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세상은 '요순지치'로도 부족하며 다른 차원의 비전적인 세상, 다시개혁적 세계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효박하며 가련한 세상에는 요순지치도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다시개혁'할 시대사적 요청을 드러내고 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들듯이 십이제국 괴질운수 시기를 반복된 시대통찰로 읽거 더이상 그렇지 되지 않게 다시개혁시킬 상황이 아닌가로 역사전개의 깊이를 짚어냈다고 볼 수 있다. <몽중노소문답가> 역시 이 세상과 대비된 이상적 세상을 '요순지치'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수운'이 <교훈가>(1862)에 등장시킨 '요순' 대목을 보면 성현이지만, 가족 구성원인 육친 아버지로서 '요순'을 불민한 아들 문제와 연결시켜 설정하고 있다.

애달다 너희사람 어찌그리 매물한고

탄식하기 괴롭도다 堯舜같은 聖賢들도

不肖子息 두었으니 恨할것이 없다마는

27) 수운 최제우,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82-184쪽.

于先에 보는道理 鬱鬱한 이내懷抱  
 禁차하니 難堪이오 두자하니 애달해서  
 强作히 지은文字 句句字字 살펴내어  
 放蕩之心 두지말고 이내警戒 받아내어  
 서로만날 그時節에 刮目相對 되게되면  
 즐겁기는 姑捨하고 이내집안 큰運數라<sup>28)</sup> <교훈가>

위의 대목 <교훈가>에서는 성현인 ‘요순’도 불초자식<sup>29)</sup>이 있었듯이 사람들에게 한스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불초한 사람들이자 해몽 못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매몰차지만 주문을 잘 살피고 경계심을 받아내어 자신을 팔목상대시키면 큰 운수를 만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즉 해몽 못함과 불초함을 탓하지 않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한울님을 믿으면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지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교훈가>에서도 ‘요순’은 성현의 비유로서 쓰이고 있다.

넷째, ‘수운’은 <권학가>(1862)에서 ‘요순’ 성세는 사람마다 ‘요순’이라는 심성을 갖고 있는성선론적 존재로 비유하며 나타내고 있다.

自古及今 忖度하니 堯舜聖世 그때라도  
 一天之下 많은사람 사람마다 堯舜일세  
 輪廻같이 돌린運數 誰怨誰咎 아닐런가  
 아무리 이세상도 賢人君子 있지마는  
 塵土中에 묻힌玉石 누라서 分揀하며

28) 수운 최제우, <교훈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43-144쪽.

29) ‘요’는 왕위를 누군가 적합한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었으나 아들 ‘단주(丹朱)’는 아버지를 닮지 않아 성품이 거칠고 못되었다.

安貧樂道 하지마는 다투라서 指導할꼬<sup>30)</sup> <권학가>

위 <권학가>에서 '요순' 성세의 시대에는 개인도 '요순'이라는 성선론적 비유를 윤회적 운수와 연관지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현인군자가 있지만 제대로 옥석을 분간하지 못하며, 제대로 된 안빈낙도를 지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 현숙한 군자들이 동귀일체 못되는 상황, 합지사생 출생들의 보국안민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 등과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권학가>에서 요순은 시대와 개인의 성향을 관련시켜 피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운'은 <도덕가>(1862)에서 '요순'의 세계를 '도척'의 세계와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堯舜之世에도 盜跖이 있었거든

하물며 이세상에 惡人陰害 없단말가

孔子之世에도 桓魋가 있었으니

우리역시 이세상에 惡人之說 避할소나

守心正氣 하여내어 仁義禮智 지켜두고

君子말씀 本받아서 誠敬二字 지켜내어

先王古禮 잃잖으니 그어찌 嫌疑되며

世間五倫 밝은法은 人性之綱으로서

잃지말자 盟誓하니 그 어찌 嫌疑될꼬

聖賢의 가르침이 耳不聽 淫聲하며<sup>31)</sup> <도덕가>

30) 수운 최제우, <권학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205-206쪽.

31) 수운 최제우, <도덕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220-221쪽.

위 <도덕가>에서 '요순'과 대비된 '도척'의 세계를 지적하고 있어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극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악인지설과 악인 음해가 많아도 수심정기로 인의예지를 지켜낼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상에서 「용담유사」의 <안심가>, <몽중노소문답가>와 <교훈가>, <권학가>와 <도덕가>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인 신화적 인물 '요순'<sup>32)</sup>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요순성세(堯舜聖世)' 재도래와 관련시켜 난세(亂世)에 대한 고뇌, 이 세상과 대비된 세상을 '요순시대'와 연결 다시개벽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가족 구성원인 육친 아버지로서 '요순'을 불민한 아들 문제와 연결시켜 설정, '요순' 성세는 사람마다 '요순'이라는 심성을 갖고 있는 성선론적 존재로 비유시켜 보이고 있다. '요순'의 세계를 '도척'의 세계와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통해 보면 수운은 '요순'의 다양한 면을 강조하며, 아국운수를 다시 요순성세로 만들기, 12제국 괴질운수 시기를 다시개벽시킨 후 요순지치 세상으로 만들기, 개인의 입장에서 큰 운수만 들기, 요순성세 시대와 개인의 요순화 지향, 힘든 세상에서 수심정기로 지켜내기 등으로 구체적 실천관과 연결지은 비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기 위해 한편 극단적 상황의 대비법인 불초자식과 악인의 설정까지 보여주어 대안을 지적하면서 결국 요순세상이 아닌 사회, 불초한 사람들과 악인들까지 감안하면서 다시개벽적 세계관을 전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기자

<용담가>(1860)에 '기자'가 나오고 있다.

기자(箕子)<sup>33)</sup>(? ~?)는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시조이며, 중국계 한국인이며,

32) '요순' 관련해서 「동경대전」 <논학문>에서 드러낸 '요순'은 강령과 관련된 한울님의 선악 불백과 함께 '요순'시대 세계관과 한울님 인식관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한울님의 분리론 입장을 취하며 드러내고 있다.

33) 箕子 百科名片: 箕子, 是文丁的儿子, 帝乙的弟弟, 紂王的叔父, 官太師, 封于箕, 名胥余, 作為中華第一哲人, 在商周政權交替與歷史大動蕩的時代中, 因其道之不得行, 其志之不得遂, “違衰殷之

고조선시대 전설상으로 전하는 시조이기도 하다. 그는 중국의 은(殷)·주(周) 교체기에 주나라의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빼앗자 현인(賢人) 기자가 B.C 1122년 조선으로 건너와 기자조선을 건국하고 범금8조(犯禁八條)를 가르쳤으며, 무왕에 의해 조선왕에 봉해져 단군조선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오랜 연원을 갖고 있다. 지금은 기자 자체를 본래 왕을 뜻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칭호였다고 해석하는 견해, 기자조선은 부정하지만 그 기간을 예맥족이 근간이 된 예맥조선으로 설정하는 견해, 동이족 계통인 기자족의 이동과 관련하여 기자전설을 이해하려는 견해 등이 제기되어 있다.

또다른 기록을 보면 「죽서기년(竹書紀年)」에는 기자가 상왕국(商王國)의 마지막 왕인 주(紂)에 의해 감옥에 갇힌 바 있으며 상왕국이 멸망하고 서주왕국이 건립된 후 서 무왕 16년에는 기자가 서주왕실에 조근(朝覲)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논어’에는 제왕국 말기에 있었던 세 사람의 어진 인물 미자, 기자, 비간을 들고 있으며, 진(秦)시대 이전의 중국문헌에 나타난 기자(箕子)는 덕과 학문이 있는 어진 인물<sup>34)</sup>로 나오고 있다.

<용담가>(1860)에 ‘기자’가 나오는 부분을 보자.

國號는 朝鮮이오 邑號는 慶州로다  
城號는 月城이오 水名은 汶水로다  
기자때 王都로서 一千年 아닐런가

運, 走之朝鮮”, 建立東方君子國, 其流風遺韻, 至今犹存。



기자

34) 尹乃鉉, 「箕子新考」,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999, 178쪽.

東都는 故國이오 漢陽은 神府로다

我東方 생긴후에 이런王都 또있는가

水勢도 좋거니와 山氣도 좋을시고

(중략)

一千年 新羅國은 소리를 지켜내네

어화世上 사람들아 이런勝地 구경하소<sup>35)</sup> <용담가>

위의 <용담가>에는 경주가 ‘기자’때 유래된 유서깊은 수도로서 나오고 있다. 수운은 용담정이 있는 구미산을 중심으로 경주 일대의 지세나 산세에 뛰어남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듯 지세나 산세의 뛰어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과 함께 대대로 위국충신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수운과 같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인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의 암시이기도 하다.<sup>36)</sup> 이 부분은 수운이 ‘경주’라는 지역이 문명화가 된 지역으로 아주 오래된 지역을 강조하기 위해 어진 인물 ‘기자’를 비유해서 쓰고 있다고 보여진다.

### 3. 정치 사상적 인물 - 공맹(공자와 맹자)

「용담유사」에는 정치사상적 인물로 <안심가>(1860)와 <도수사><sup>37)</sup> (1861), <도덕가>(1862)와 <몽중노소문답가>(1861) 등에 ‘공자’와 72인제자,

35) 수운 최제우, <용담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65-166쪽.

36)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401쪽.

37) <도수사>(1861)는 신유년 12월에 ‘수운’이 관의 지목을 피해 은적암에 머물면서 쓴 글이다. 특히 길을 떠나게 된 사정과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생각하며 잠 못 드는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433쪽.

삼천제자, ‘맹자’ 등이 등장하고 있다.

## 1) 공자와 제자들

「용담유사」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인 ‘72인제자’와 ‘삼천제자’ 등이 나오고 있다.

‘공자(孔子)’(B.C 552~B.C 479, 이름 구(丘), 자 중니(仲尼))는 제자백가 중 유가(儒家)의 시조로 노(魯)나라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그곳에서 자리잡고 정치를 담당하였지만, 실권자와 충돌한 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제후들에게 자기의 사상을 설파하였다. 만년에 뜻을 얻지 못하자 노나라에서 제자 교육과 고전 편찬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공자는 중국문화사에서 개인으로 처음 강학을 시작해서 사학의 풍조를 열었고, 위대한 교육자상과 체계적인 교육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 육경을 편찬하여 가장 위대한 문헌 정리자가 되었고, 유가학파를 창립하여 최초로 계통적인 사상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풍부한 유가학설의 연원이 되고 있다.<sup>38)</sup> 현재의 「논어」 20편은 제자들이 편찬한 공자의 언행록이다. 「사기」에 따르면 그의 제자 중 72명이 ‘6예’를 통달했고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용담유사」에 ‘공자’는 <안심가>(1860)와 <도수사>(1861), <도덕가>(1862)와 <몽중노소문답가>(1861)에 72인제자, 삼천제자와 함께 나오고 있다. <몽중노소문답가>에는 ‘맹자’와 함께 ‘공맹’으로 나오고 있다.

38) 천웨이핑 지음, 『공자평전-유가의 1인자』, 신창호 옮김, 미다스북스, 2002, 16쪽.

## 2) 맹자

<몽중노소문답가>에는 ‘공맹지덕’의 소유자로서 ‘맹자’가 한 번 나오고 있다.

‘맹자(孟子)<sup>39)</sup>(기원전 372년~기원전 289년, 이름은 가(軻), 자는 자여(子輿))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 발전시킨 유학자이다. 전국 시대 추(鄒)나라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공자를 숭배하고,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 유교를 후세에 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맹자는 공자를 존경하고 공자를 사숙했다. 어려서 자모삼천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장하여 자사(子思)의 문인에게 배웠고 학문을 이루면서 천하의 어지러움을 한탄했으며, 천하를 다스리자는 뜻을 가지고 양혜왕과 제선왕 등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맹자는 인의(仁義)를 설하고 왕도(王道)를 주장했다. 은퇴하여 문인 만장(萬章)의 무리들과 문답하면서 공자의 뜻을 서술하여 ‘맹자’ 일곱 편을 지었다. 성선론은 맹자 학문의 근본사상이며, 선천양심론(先天良心論)과 인의(仁義)를 중시<sup>40)</sup>하고 있다.

수운은 「용담유사」에서 안빈낙도와 ‘공자’, 어진 도덕 인(仁)과 ‘공자’, ‘공자’ 세상과 악인 ‘환퇴’ 대비, ‘공맹’의 덕과 관련된 군자, 삼천제자와 72 인제자를 비유하며 등장시키고 있다.

39) 孟子(前372年—前289年)：名軻，字子輿。戰國時期魯國人，魯國慶父後裔。中國古代著名思想家、教育家，戰國時期儒家代表人物。著有《孟子》一書。孟子繼承并發揚了孔子的思想，成爲僅次于孔子的一代儒家宗師，有“亞聖”之稱，與孔子合稱爲“孔孟”。其學說出發點爲性善論，提出“仁政”、“王道”，主張德治。



맹자



40) 宇野哲人, 『중국의 사상』, 박희준 옮김, 대원사, 1991, 77-81쪽.

먼저, <안심가>(1860)에 나오는 안빈낙도 사상의 소유자 ‘공자’ 부분을 보자.

우리또한 빈천자로 草野에 자라나서  
 유의유식 貴公子는 仰望不及 아닐런가  
 福祿은 다버리고 口說殃禍 무섭더라  
 猝富貴 不詳이라 萬古遺傳 아닐런가  
孔夫子 하신말씀 安貧樂道 내아닌가  
 우리라 무슨八字 苦盡甘來 없을소나  
 興盡悲來 무섭더라 恨歎말고 지내보세41) <안심가>

위의 <안심가>에서 ‘수운’은 ‘공자’의 생활 태도인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과 고진감래를 되새기며 쓰고 있다. 빈천자이며 초야에 사는 자는 귀공자나 복록자를 꿈꾸게 되나, 부러워하는 대상들을 보면 흥진비래한 상황이 곳곳 목격된다. 우리는 그것에 비해 지금은 빈천자이지만 우리에게도 고진감래의 희망이 있을 것이라 반문하며 제시하고 있다. <안심가>의 ‘공자’는 안빈낙도 주창자로서 거론되고 있다.

둘째, <도수사>(1860)에서는 어진 도덕 소유자로서의 ‘공자’를 거론되고 있다. 이어 신통육예와 ‘칠십이인’ 제자, ‘삼천제자’ 부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1) 어질다 모든벗은 愚昧한 이내사람  
 잊지말고 생각하소 聖經賢傳 살렸으니

41) 수운 최제우, <안심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48-149쪽.

淵源道統 알지마는 師丈師丈 서로傳해  
 받는것이 淵源이오 그中에 가장높아  
身通六藝 道通일세 孔夫子 어진道德  
一貫으로 이름해도 三千弟子 그가운데  
身通六藝 몇몇인고 七十二人 道通해서  
 前千秋 後千秋에 一貫으로 傳차해도  
 一千年 못지나서 田子方 段刊木이  
 亂法亂道 하였으니 그아니 슬플소냐  
 어질다 이내벗은 自古及今 本을받아  
 順理順數 하였어라<sup>42)</sup> <도수사>

2) 自古聖賢 門徒들은 百家詩書 외위내어  
淵源道統 지켜내서 孔夫子 어진道德  
가장더욱 밝혀내어 千秋에 傳해오니  
그아니 기쁠소냐 내亦是 이세상에  
 無極大道 닦아내어 오는사람 曉諭해서  
 三七字 傳해주니 無爲而化 아닐런가  
 愚昧한 세상사람 自存之心 다던지고  
 自是之癖 무삼일고 師門에 없는法을  
 혼자앓아 지어내니 千秋에 없는法을  
 어디가서 本을보며 入道한 四五朔에  
 어찌그리 速成인고<sup>43)</sup> <도수사> (번호-필자)

42) 수운 최제우, <도수사>,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89-191쪽.

위의 <도수사> 중 1) 부분은 어진 도덕의 소유자 '공자'와 함께 그의 대단한 제자, 삼천제자와 신통육예한 72인제자 등을 제시하며 비교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후에 공자의 어진 도덕이 일관한다 해도 난법난도하는 제자가 생긴 것을 걱정하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제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순리순수하며 어질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2) 부분은 어진 도덕과 무극대도를 비교하며 21자 주문을 전해주었으니 천추에 없는 법임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仁)사상에 버금가는 무극대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도수사>에는 '공자'를 어진 도덕인 인사상의 소유자로 강조되고 있다. 또 삼천제자 중 신통육예는 몇 명이고 72인 도통에서 전한 자를 인정하며 그 중 난법난도자까지 지적하고 있다.

셋째, <몽중노소문답가>(1861)에 '맹자'와 함께 '공맹지덕'으로 지칭되고 있다.

아셔시라 아셔시라 八道구경 다던지고  
 故鄉에나 돌아가서 百家詩書 외위보세  
 내나이 十四歲라 前程이 萬里로다  
 아셔라 이세상은 堯舜之治라도 不足施요  
孔孟之德이라도 不足言이라 胸中에 품은 懷抱  
一時에 打破하고 허위허위 오다가서  
金剛山 上上峰에 暫間앉아 쉬오다가

(중략)

근심말고 돌아가서 輪廻時運 구경하소

十二諸國 怪疾運數 다시開闢 아닐런가<sup>44)</sup> <몽중노소문답가>

43) 수운 최제우, <도수사>,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96-197쪽.

위의 <몽중노소문답가>는 ‘수운’이 ‘요순지치’ 부족시 어법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공맹지덕’이라도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공자’나 ‘맹자’ 같은 성인의 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이라는 뜻으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한편 이 세상과 대비된 이상적 세계를 ‘공맹지덕’으로 보고 있고 이 세상은 괴질운수 시기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윤회운수 시기이고 다시개벽 시대가 아닌가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몽중노소문답가>에서는 이 세상의 대비개념으로 이상적 세상을 가리키는 ‘공맹지덕’ 시기로 썼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가>(1862)에 나오는 ‘공자지세’ 기간의 악인 ‘환퇴’와 비교 부분이다.

堯舜之世에도 盜跖이 있었거든

하물며 이세상에 惡人陰害 없단말가

孔子之世에도 桓魋가 있었으니

우리역시 이세상에 惡人之說 避할소나

守心正氣 하여내어 仁義禮智 지켜두고

君子말씀 本받아서 誠敬二字 지켜내어

先王古禮 잃잖으니 그어찌 嫌疑되며

世間五倫 밝은法은 人性之綱으로서

잃지말자 盟誓하니 그 어찌 嫌疑될꼬<sup>45)</sup> <도덕가>

위의 <도덕가>는 ‘요순지세’의 악인 ‘도척’과 같은 비교법으로 수운은 ‘공

44) 수운 최제우,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82-184쪽.

45) 수운 최제우, <도덕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220-221쪽.

자지세'의 악인 '환퇴'와 인의예지를 대비법으로 쓰고 있다. 춘추시대의 '환퇴'는 송의 대부로 한때 공자를 죽이려고 하였다.<sup>46)</sup> 그러한 좋지 않은 세상, 악인음해와 악인지설의 세상이더라도 수심정기로 인의예지를 지켜내야 함을 수운은 역설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담유사」 중 <안심가>와 <도수사>, <몽중노소문담가>와 <도덕가>를 통해 '공자'<sup>47)</sup>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공자'의 생활 태도인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과 고진감래를 되새기며 '공자'를 안빈낙도 주창자로서 거론하고 있다. 또 어진 도덕 소유자로서의 '공자'를 거론하며 신통육예와 칠십이인 제자, 삼천제자 부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맹자'와 함께 지칭된 '공맹지덕'은 이 세상의 대비개념으로 이상적 세상을 '공맹지덕' 시기로 썼다고 볼 수 있다. '공자지세' 기간의 악인 '환퇴'와 비교 부분은 악인음해와 악인지설의 세상이더라도 수심정기로 인의예지를 지켜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운이 볼 때 '공자'는 이상적 성인으로서 제시되었으며 공자를 음해하는 자들까지 미연의 방지할 것,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도를 지켜낼 것을 짚어 공자보다 더한 성인경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통치자 인물- 진시황과 한무제

「용담유사」에 등장하는 또다른 중국 인물 유형은 통치자 인물인데 <안심가>(1860)에 '진시황'과 '한무제'가 나오고 있다.

46)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499쪽.

47) '공자'와 관련해서 「동경대전」 <논학문>과 <수덕문>, <화결시> 등을 통해 '공자'는 역사적 인물 중 동양의 가장 이상적인 성인으로서 여겼다. 공자의 도의 전파 과정, 삼천제자의 비유를 비교와 대비법으로 성인지학과 성인지도, 성인지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같은 큰 의미를 담은 세계라는 다른 점까지도 서술하고 있다.

## 1) 진시황

먼저 '진시황'에 대해 알아보자.

'진시황(秦始皇)<sup>48)</sup>(B.C 259~210)은 중국 진(秦)나라의 황제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으나, 통일제국 진은 그가 죽은 지 4년 만에 멸망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룩해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실시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다. 승상 이사(李斯)에게 명하여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형을 통일하는 등 모든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장군 몽염에게 명하여 흉노를 토벌하고 만리장성의 대공사를 감독토록 하였고 분서갱유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또 진왕조의 지주 정권과 농민 간의 모순은 진승, 오광의 반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반란을 신호로 각지에서 진나라 타도를 외치는 반란이 타올랐고 유방과 항우도 봉기하여 여러 제후들과 합쳐 진나라 타도에 선도적 역할<sup>49)</sup>을 했다.

## 2) 한무제

'한무제 유철(漢武帝 劉徹)<sup>50)</sup>(B.C 156~87)은 전한의 제7대 황제이다. 유

---

48) 秦始皇 百科名片(公元前259年—前210年)：秦庄襄王之子，杰出的政治家、軍事統帥。戰國末期秦國君主、首位完成中國統一的秦王朝的開國皇帝。嬴姓，趙氏，名政正，先秦時期男子称氏不称姓，故称趙政、秦王政、秦王趙政、趙王政，然后世多称之嬴政。秦始皇是中國歷史上第一个使用“皇帝”称号的君主，對中國和世界的歷史均產生了深遠而重大的影響，被明代思想家李贄譽為“千古一帝”。  
主要成就：統一六國 建立中央集權制度 修筑長城 政權：秦朝 在位時間：公元前246年—前210年



진시황

49) 김구진, 김희영 편저, 『이야기 중국사』 제1권, 청아출판사, 1991, 252쪽.

학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다스렸으며 해외 원정을 펼쳐 흉노, 위만조선 등을 멸망시켜 당시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어 전한의 전성기를 열었다. 중국 역사상 진 시황제·강희제 등과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무제는 창업 이래 쌓아 올린 문화적, 경제적 여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정책을 펴 전한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다. 그는 지금까지 화친책으로 일관해 오던 대흉노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위청, 광거병 등에게 명하여 흉노를 토벌하여 전한의 위력을 크게 떨쳤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장건은 역사상 유명한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선구가 되었다.<sup>51)</sup>

이들 통치자 인물 ‘진시황’과 ‘한무제’는 <안심가>(1860)에서는 불로불사 욕구자로 불사약과 관련지어 드러내고 있다.

한울님 하신말씀 知覺없는 人生들아  
 三神山 不死藥을 사람마다 불까보나  
 (중략)  
 仙風道骨 내아닌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50) 劉徹 百科名片(前156年—前87年)：漢族，是漢朝的第7位皇帝，中國古代偉大的政治家、戰略家、詩人、民族英雄。漢武帝是漢景帝劉啓的第十个儿子、漢文帝劉恒的孫子、漢惠帝劉盈的侄孫子（劉盈為漢高祖劉邦的儿子），漢高祖的重孫子。其母王姁，在劉徹立太子同時被立為皇后。劉徹公元前156年生于長安，4歲時被冊立為膠東王，7歲時被冊立為太子，16歲登基，在位五十四年（公元前141年—公元前87年），建立了西漢王朝最輝煌的功業。公元前87年劉徹崩于五柞宮，享年70歲，葬于茂陵，諡号“孝武”，廟号世宗。



한무제



51) 김구진, 김희영 편저, 『이야기 중국사』 제1권, 352쪽.

이내身命 좋을시고 不老不死 하단말가  
萬乘天子 秦始皇도 驪山에 누워있고  
漢武帝 承露盤도 웃음바탕 되었더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身命 좋을시고  
 永世無窮 하단말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金을준들 바꿀소냐 銀을준들 바꿀소냐  
秦始皇 漢武帝가 무엇없어 죽었는고  
 내가그때 낳았더면 不死藥을 손에들고  
 嘲弄萬狀 하울것을 늦게나니 한이로다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身命 좋을시고52) <안심가>

위 <안심가>(1860)에서 보듯이 만승천자의 '진시황'에 대한 부분은 죽음과 종말, 영세무궁의 불로불사의 안타까움과 허무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한무제' 역시 승로반(承露盤), 즉 하늘에서 내리는 장생불사의 감로수를 받아먹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쟁반을 가졌던 그 역시 웃음바탕 대상이라 나오고 있다. 이들을 통해 '수운'은 강력한 통치자였던 '진시황'과 '한무제'를 통해 불로불사를 꿈꾸었던 영생을 갈망했지만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그들의 생명에 대한 무상함을 지적하면서 선약인 불사약의 세계이자 영세무궁의 세계를 몰랐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52) 수운 최계우, <안심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53-156쪽.

## 5.부정적 인물 - 걸, 도척과 환퇴, 전자방과 단간목

「용담유사」에 등장하는 네 번째 유형은 부정적 중국 인물 유형으로 <교훈가>(1860)에 '걸(桀)', <도덕가>(1862)에 '도척(盜跖)'과 '환퇴(桓魋)', <도수사>에 '전자방(田子方)'과 '단간목(段刊木)'이 등장하고 있다.

## 1) 걸

먼저 <교훈가>(1860)에는 '걸'이 등장한다.

'걸(桀)'<sup>53)</sup>은 중국 하(夏)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은(殷)의 주왕(紂王)과 나란히 중국 상고시대(上古時代)의 폭군으로 대표된다. 걸은 제왕으로서 지켜야 할 덕은 닦으려 하지 않고 황음무도에 치우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누구든 죽이고 학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악역무도하고 탐욕스러웠

53) 夏朝暴君 桀，又名癸、履癸，生卒年不詳，相傳桀是夏朝最后的一个國王，發子。發病死後繼位，爲歷史上著名的暴君。他建造許多豪華宮殿，无休止地征發百姓，強迫他們勞役。平民和奴隸紛紛怠工，反抗桀的暴政。桀還自比爲太陽，以爲可以和太陽一樣永存。老百姓恨死他了，咒罵他說：你這個太陽啊，什麼時候滅亡，我們愿意与你同歸于盡。在位53年，國亡，被放逐而餓死，葬于南巢臥牛山。桀力大无窮，能空手拉直鐵鉤。他仗着這股蠻力，經常无端傷害百姓。他爲政殘暴，破坏農業生產，對外濫施征伐，勒索小邦。他即位后的第三十三年，發兵征伐有施氏，有施氏抵擋不住，進貢給他一个美女，名叫妹喜。



걸

으나 남다른 힘과 지력과 용기가 있었다고 한다. 하나라를 망치게 하는 여인은 말희(妹喜)이며, 주지육림(酒池肉林)의 공사를 시작했고, 하의 걸왕은 은(殷)의 탕왕(湯王)에게 멸망했다.<sup>54)</sup> 즉 '걸왕'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는 폭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교훈가>(1860)에 '걸'이 나오는 부분을 보자.

그모르는 세상사람 勝己者 싫어할줄  
無根說話 지어내어 듣지못한 그말이며  
보지못한 그소리를 어찌그리 자아내서  
향안說話 紛紛하고 슬프다 세상사람  
(중략)

남보다가 배나하며 六親이 무삼일고  
怨讐같이 待接하며 殺父之讐 있었던가  
어찌그리 원수런고 恩怨없이 지낸사람  
그中에 싸잡혀서 또역시 원수되니  
助桀爲虐 이아닌가<sup>55)</sup> <교훈가>

위 <교훈가>에서 '걸'은 살부지수, 원수 등 이 세상사람이 '걸'과 닮았거나 결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과 연관지어 비유적 세계로 보이고 있다. '조걸위학(助桀爲虐)'의 의미는 폭군 걸(桀)을 도와 백성을 못살게 군다는 뜻으로, 못된 사람을 부추기어 악한 짓을 더 하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조걸위학에서 당시의 수운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흉언괴설은 바로 이 결과 같은 폭군을 도와서 학정(虐政)을 조장하는 경우로 한울님으로부터 대도를

54) 김구진, 김희영 편저, 『이야기 중국사』 제1권, 27-30쪽.

55) 수운 최제우, <교훈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34-136쪽.

받은 그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 특히 인근의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시기하고 험담하는 당시의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다.<sup>56)</sup> 즉 수운을 둘러싼 당시 사회의 부정적 세상사람들을 ‘결’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비유해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 2) 도척과 환퇴

수운은 <도덕가>(1862)에 나오는 부정적 인물 ‘도척’은 ‘요순’과 대비된 세계, ‘환퇴’는 ‘공자’와 대비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시키고 있다.

도척(盜跖)<sup>57)</sup>은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있었던 몹시 악한 사람의 이름이다.<sup>58)</sup> ‘장주’가 우언 속에 즐겨 ‘도척’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강도가 당시 반체제자 모습이기 때문이라 하기도 한다. 도척은 유하혜의 동생이며, 유하혜는 노나라 전금(展禽), 춘추 초기 사람으로 「맹자」에 유하혜의 풍도(風度)를 들은 자는 경박한 지아비가 돈후해지고, 비루한 지아비가 너그러워진다. 아우 척(跖)은 세상에 이름난 대도로 ‘장자’ 도척 편에 9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천하를 제멋인양 우쭐대고 다니면서 제후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다<sup>59)</sup>고 했다.

56)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345쪽.

57) 盜跖 百科名片: 原名展雄, 又名柳下跖、柳展雄, 相傳是當時賢臣柳下惠的弟弟, 爲魯孝公的儿子公子展的后裔, 因以展爲姓。系戰國、春秋之際奴隶起義領袖。“跖”一作“蹠”。在先秦古籍中被誣爲“盜跖”和“桀跖”。



도척

58) 네이버백과사전.

59) 시라카와 시즈카, 『전혀 다른 공자이야기-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 장원철 옮김, 한길사, 2004. 237쪽

환퇴(桓魋)<sup>60)</sup>는 중국 춘추 시대 송(宋) 나라의 대부(大夫)이다. 공자가 송 나라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큰 나무 아래에서 예를 익히고 있는데, 환퇴가 공자를 죽이고자 하여 그 나무를 뽑았다고 한다. ‘맹자’에 따르면 공자가 노 나라와 위나라에서 즐겁지 않아 송나라 지날 때 사마 환퇴가 그를 죽이고자 하므로 복색을 감추고 송나라를 지나갔다고 되어 있다. 「장자」에는 송나라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공자에게 던치게 하여 큰 괴로움을 겪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있다. 「좌전」에 환퇴 기록 부분을 보면 젊었을 때 송나라 경공(景公)의 총애를 받은 영신, 공자가 송나라 갈 때 환퇴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고 공자는 위험을 예견하고 복색을 바꿔 안전을 기했다 한다.<sup>61)</sup>

<도덕가>(1862)에 ‘도척’과 ‘환퇴’가 나오는 원문을 보자.

堯舜之世에도 盜跖이 있었거든

하물며 이세상에 惡人陰害 없단말가

孔子之世에도 桓魋가 있었으니

우리역시 이세상에 惡人之說 避할소나

守心正氣 하여내어 仁義禮智 지켜두고

君子말씀 本받아서 誠敬二字 지켜내어

先王古禮 잃잖으니 그어찌 嫌疑되며

世間五倫 밝은法은 人性之綱으로서

잃지말자 盟誓하니 그 어찌 嫌疑될꼬<sup>62)</sup> <도덕가>

60) 桓魋：古人名。任宋國主管軍事行政的官——司馬，是宋桓公的后代。他的弟弟司馬牛是孔子的弟子。【身世考証】桓姓。桓氏的源流有四：一是出自姜姓。据《通志·氏族略》記載，春秋時代齊襄公之弟子公子小白，曾出奔莒國；襄公被殺后，小白回到齊國繼承君位，任用管仲進行改革，成爲春秋五霸之首。死后諡号爲“桓”，即齊桓公。其支庶子孫乃以諡爲氏，称桓氏。一支是齊桓公之后；二是出自子姓。其支庶子孫向鬼，以王父的諡号爲氏，称爲桓魋。

61) 안평천, 『공자평전』, 김기협 옮김, 돌베개, 2010, 137-138쪽.

62) 수운 최제우, <도덕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220-222쪽.

위 <도덕가>에서 수운은 '요순'과 대척된 '도척'의 세계, '공자'와 대척된 '환퇴'를 지적하고 있어 세상의 악적인 상황을 거론하면서 극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요순'의 시대에도 '도척'과 같이 인륜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공자'와 같은 성인도 음해한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음모와 음해가 있는 것은 세상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옛 성인의 가르침인 인의예지를 지켜내야 하고, 인의예지를 보다 이상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수심정기를 그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운은 세상이 효박하고 음해가 많다고 해도 바른 마음으로 수도에 전력하여 바른 삶과 세상을 이룩해야 한다는 가르침<sup>63)</sup>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심법으로 지켜내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전자방과 단간목

<도수사>(1861)에는 부정적 인물로 '전자방'과 '단간목'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부정적인 학자 군상이라 할 수 있다.

전자방(田子方)<sup>64)</sup>은 전국시대 위나라 학자인데 자하(子夏)의 제자로 위문후(魏文侯)의 스승이 되었는데 훗날 노장학(老莊學)을 따랐기 때문에 유가(儒家)에서는 난법난도를 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게 된다.<sup>65)</sup>

공자시대 유협, 문협으로 불리던 자들은 많은 유망자(流亡者)를 이끌었다. 「여씨춘추」 <존사편>에는 각지의 대도(大盜)를 기록하면서 공자에게 배웠다는 노나라 양보(梁父)의 대도 안탁취, 자하에게 배웠다는 진(晉)나라 대장

63)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500쪽.

64) 田子方 百科名片：姓田，名无擇，字子方，魏國人，魏文侯의 友人，是孔子弟子子貢의 學生，道德學問聞名于諸侯，魏文侯慕名聘他爲師，執禮甚恭。

65)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440쪽.

(大駟:거간꾼) 단간목(段刊木), 목자에게 배웠다는 제나라 강도 고하, 현자 석, 금활리에게 배웠다는 동방의 거물급 사기꾼(목가집단의 퇴물) 색로삼 이름을 들고 있다. 단간목은 위문후(魏文侯)의 빈객으로 궁벽한 뒷골목에 숨어 살았으나 명성은 천리에 퍼졌다고 일컬어지는 인물이다.<sup>66)</sup>

그럼 <도수사>에 나오는 ‘전자방과 단간목’ 부분을 살펴보자.

어질다 모든벗은 愚昧한 이내사람  
 잊지말고 생각하소 聖經賢傳 살폈으니  
 淵源道統 알지마는 師丈師丈 서로傳해  
 받는것이 淵源이오 그中에 가장높아  
 身通六藝 道通일세 孔夫子 어진道德  
 一貫으로 이름해도 三千弟子 그가운데  
 身通六藝 몇몇인고 七十二人 道通해서  
 前千秋 後千秋에 一貫으로 傳차해도  
 一千年 못지나서 田子方 段刊木이  
 亂法亂道 하였으니 그아니 슬플소나  
 어질다 이내벗은 自古及今 本을받아  
 順理順數 하였어라<sup>67)</sup> <도수사>

위의 <도수사> 부분은 ‘수운’이 은적암으로 떠나고 남아 있는 제자들이 공부할 잘못할까 하여 여러 모로 당부를 하고 있는 단락이다. 특히 제자들에게 ‘전자방’과 ‘단간목’처럼 난도난법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스승

66) 시라카와 시즈카, 『전혀 다른 공자이야기-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 236쪽

67) 수운 최제우, <도수사>,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89-191쪽.

의 가르침을 어기지 말며, 자기 멋대로 공부를 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sup>68)</sup>고 당부하고 있다.

「용담유사」는 ‘동경대전’과 달리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그러기에 특별히 상반된 상황의 대비법을 통해, 악인과 부정적 인물들을 등장시켜 아쉬움, 사회적 감정과 시대여건이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인물은 「동경대전」에는 나오지 않는 부정적 인물들이다. ‘결’, ‘도척’과 ‘환퇴’, ‘전자방’과 ‘단간목’, 부정적 상황을 대비시키지만 다시개벽적 세계관인 개인의 무극대도와 지기수련 지키기로 나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6. 기타인물- 두목지와 사광, 편작

마지막으로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1861)에 ‘두목지’와 ‘사광’이, <안심가>(1860)에 ‘편작’이 기타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 1) 두목지와 사광

「용담유사」 중 <몽중노소문답가>에 ‘두목지’와 ‘사광’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중국 인물군<sup>69)</sup>에 포함되어 있다.

68)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452쪽.

69) 손지봉은 중국차용설화 주인공을 황제, 공공민, 요, 후직, 강태공, 개자추, 공자, 맹자, 장자, 편작, 진시황, 항우, 동방삭, 조조, 제갈량, 석승, 왕희지, 이태백, 두목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이 논문에서 구비문학대계에 나오는 중국 인물로 순(舜)이야기 1편, 공자(孔子)이야기 3편, 진시황(秦始皇)이야기 2편, 두목지(杜牧之) 이야기 1편도 소개하고 있다. 孫志鳳, 『韓國說話의 中國人物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논문, 1998, 76쪽.

먼저 두목(杜牧)<sup>70)</sup>(803~853)은 자가 목지(牧之)이고 당의 경조부 만년현인으로 만당(晩唐)의 대표적 시인이다. 두목은 명문거족, 전통적인 세가출신(世家出身)으로 10세 되던 해 조부가 죽고, 얼마 후 부친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 20세 되던 해 '상서', '모전', '좌전', '국어', '십삼대사서' 등을 읽게 되면서 국가대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두목의 생애는 정치적으로 이상과 현실이 부합되지 못한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시가 방면에서 국제민생(國計民生)을 논하는 호매한 시풍과 사랑과 경물을 묘사한 맑고 아름다운 시가 있어 만당의 대표적 시인이다<sup>71)</sup>. 만당시대의 시인에 어울리게 말의 수식에 능했으나, 내용을 보다 중시했다. 주요 작품에는 <아방궁의 부>, <강남춘(江南春)> 등이 있다.

또 '사광(師曠)'(B.C 572-B.C 532)은 진나라 평공(晉平公, B.C.557-B.C.532) 때 악사 이름으로 장님이었다. 평공이 새로운 음악을 좋아하자 사광이 공실(公室)이 점점 비천해지고 임금의 조짐이 그 쇠함에 나타나고 있었다. 음악이란 산천의 풍화(風化)를 빌어 보여주는 것이며 덕이 넓게 비추어 가도록 하는 것으로, 덕으로써 널리 퍼지며, 만물을 풍화시키며 산천을 통하여 널리 퍼지며, 만물을 풍화시켜 이를 듣게 하며, 무릇 덕이 널리 퍼지고 때와 절도에 맞으면 이로써 먼저 사람은 복종해오고 가까운 사람은 옮겨가기 않는 것<sup>72)</sup>이라 말을 했듯이, 사광은 음악을 통한 지혜통찰까지 볼 수 있는 경

70) 杜牧 百科名片(公元803—約852年)：字牧之，号樊川居士，漢族，京兆万年人，唐代詩人。杜牧人称“小杜”，以别于杜甫。与李商隐并称“小李杜”。因晚年居長安南樊川別墅，故后世称“杜樊川”，著有《樊川文集》。晚唐杰出詩人，尤以七言絕句著称。擅長文賦，其《阿房宮賦》爲后世傳誦。



두목지



71) 김성문, 「두목(杜牧)」, 이병한 외 22인 공저, 『中國詩와 詩人-唐代篇』, 사람과책, 1998, 781/825-826쪽.

72) 임동석 역, 「국어 3-3」, 동서문화사, 2009, 940-941쪽.

지의 소유자였다.

<몽중노소문답가>(1861)에 나오는 ‘두목지’와 ‘사광’ 부분을 보자.

十朔이 이미되매 一日은 집가운데  
 雲霧가 자욱하며 內金剛 外金剛이  
 두세번 震動할때 忽然히 産氣있어  
아들아기 誕生하니 奇男子 아닐런가  
 얼굴은 冠玉이오 風采는 杜牧之라  
 그러그러 지내나니 五六歲 되었더라  
八世에 入學해서 許多한 萬卷詩書  
無不通知 하여내니 生而知之 彷彿하다  
十歲를 지내나니 聰明은 師曠이오  
 智局이 非凡하고 才器 過人하니  
 平生에 하는근심 滄薄한 이세상에  
 君不君 臣不臣과 父不父 子不子를  
 晝宵間 歎息하니 鬱鬱한 그懷抱는  
 胸中에 가득하되 아는사람 전혀없어  
 妻子産業 다버리고 八道江山 다밟아서  
 人心風俗 살펴보니 無可奈라 할길없네  
 우습다 세상사람 不顧天命 아닐런가<sup>73)</sup> <몽중노소문답가>

위의 <몽중노소문답가>에는 기남자가 어릴 때 이미 관옥이란 남자의 아

73) 수운 최제우,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178-180쪽.

름다운 얼굴과 남성다운 풍채의 소유자 두목지에 비유하고 있다. 또 ‘사광’<sup>74)</sup> 부분은 기남자의 성장기 10세 즈음 자신의 지력에 대해 사광의 총명과 비유하여 나오고 있다. 새로 태어난 기남자는 그 슬기와 도량이 뛰어났고, 또 시대의 나라를 걱정하여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올바른 도를 구하고자 천하를 떠돌게 된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므로 한탄을 하게 된다. 이는 곧 ‘수운’의 주유팔로를 비유적으로 노래<sup>75)</sup>했다고 보았다. 이처럼 <몽중노소문답가>에서는 ‘두목지’는 어린 날의 풍채를 ‘사광’은 유년기 시절의 자질인 총명성과 연결시켜 비유해 쓰고 있다.

## 2) 편작

<안심가>(1860)에 ‘편작’이 나오고 있다.

편작(編鵠)(B.C 407-B.C 310)은 발해군 막읍의 오기 사람이며, 젊었을 때 남의 객사를 관리하는 우두머리 일을 하고 있었다. 그 객사에 장상군이라는 빈객이 몸을 의탁하고 있었는데, 편작은 그를 기인이라 여겨 언제나 정중히 대우하였고, 장상군 또한 편작이 보통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sup>76)</sup>는 일화가 있다.

<안심가>(1860)에 나오는 ‘편작’ 부분을 보자.

거룩한 내집婦女 이글보고 安心하소

所謂西學 하는사람 암만봐도 名人없데

서학이라 이름하고 내몸發闡 하렸던가

74) ‘사광’과 관련해서 「동경대전」 중 <수덕문>에서는 ‘사광’은 총명한 자로 나오나 지극정성의 수련경지와 대비시켜 그것을 뛰어넘는 경지로 설정하고 있다.

75) 윤석산,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423쪽.

76) 사마천, 『사기열전 3/4』, 임동석 역주, 동서문화사, 2009, 993쪽.

草野에 묻힌사람 나도또한 願이로다  
 한울님께 받은재주 萬病回春 되지마는  
이내몸 發闡되면 한울님이 주실런가  
주시기만 줄작시면 扁鵲이 다시와도  
이내仙藥 當할소나 萬世名人 나뿐이다<sup>77)</sup> <안심가>

위의 <안심가>에 나오는 명의 '편작'<sup>78)</sup>의 치료법은 자신의 선약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수운'의 동학이 서학과는 다르며,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무극대도가 이내 현현되면 세상의 악질(惡疾)을 모두 낫게 하게 될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씀<sup>79)</sup>이기도 하다. <안심가> 역시 명의인 '편작'이 다시와 고친다 해도 더 나은 것이 선약임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중국 인물 중 기타 인물 유형으로 '두목지'는 어린 날 남성다운 풍채의 비유로 '사광'은 유년기의 총명함의 비유로, '편작' 치료법은 선약이 더 우수함의 비교법으로 쓰고 있다.

## 7. 결론

이상으로 수운의 「용담유사」에 나타난 중국 인물을 다섯 유형 신화적 인물, 정치사상적 인물, 통치자 인물, 부정적 인물, 기타 인물로 살펴보았다. 이는 곧 수운의 신화적 자아와 정치사상적 자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수운이 처한 시대를 통치자적 상황과 부정적 인물 상황으로 연결지어 다양하게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77) 수운 최제우, <안심가>, 「용담유사」, 『天道敎經典』, 158-159쪽.

78) '편작'과 관련해서 「동경대전」 <수덕문>에서 쓰여진 '편작'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79) 윤석산 주해,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동학사, 2009, 386쪽.

첫째, 신화적 중국 인물은 '삼황오제'와 '요순', '기자'였다. <권학가>에서 수운은 이상적 제왕 신화의 주인공인 '삼황오제'를 통해 이들 성현도 경천 순천하는 자로 설정하고 있다. 또 '요순'은 <안심가>, <몽중노소문답가>와 <권학가>, <교훈가>와 <도덕가>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다. '요순성세(堯舜聖世)' 재도래와 관련시켜 난세(亂世)에 대한 고뇌, 이 세상과 대비된 세상을 '요순시대'와 연결 다시개벽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가족 구성원인 육친 아버지로서 '요순'을 불민한 아들 문제와 연결시켜 설정, '요순' 성세는 사람마다 '요순'이라는 심성을 갖고 있는 성선론적 존재로 비유시켜 보이고 있다. '요순'의 세계를 '도척'의 세계와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통해 보면 수운은 '요순'의 다양한 면을 연결시키면서 아국 운수를 다시 요순성세로 만들기, 12제국 괴질운수 시기를 다시개벽후 요순 지치 세상으로 만들기, 개인의 입장에서 큰 운수만들기, 요순성세 시대와 개인의 요순화 지향, 힘든 세상에서 수심정기로 지켜내기 등으로 구체적 실천관과 연결지은 비전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극단적 상황의 대비법인 불초 자식과 악인의 설정까지 보여주어 대안을 지적하면서 결국 요순세상이 아닌 사회, 불초한 사람들과 악인들까지 감안하면서 다시개벽적 세계관을 전망하고 있다. 이어 '기자'가 나오는 <용담가>에는 경주가 기자때 유래된 유서깊은 지역으로써 설정하고 있다.

둘째, 정치사상적 인물로 '공자'와 그의 삼천제자와 신통육예 72인 제자, '맹자'가 등장하고 있다. 「용담유사」 중 <안심가>와 <도수사>, <몽중노소문답가>와 <도덕가>를 통해 '공자'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자'의 생활 태도인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과 고진감래를 되새기며 '공자'를 안빈낙도 주창자로서 거론하고 있다. 또 어진 도덕 소유자로서의 '공자'를 거론하며 신통육예와 칠십이인 제자, 삼천제자 부분도 함께 제시하면서 반작용적 제자를 거론하고 있다. '맹자'와 함께 지칭된 '공맹지덕'은 이 세상의 대비개념으로 이상적 세상의 의미로 썼다고 볼 수 있다. '공자지세' 기간의 악인 '환퇴'와 비교는 악인음해와 악인지설의 세상이더라도 수심정기로 인의예지를 지켜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공자'는 이상적 성인으로

제시되며 대단한 제자 삼천제자, 72인 제자를 거론하지만 반제자가 발생할 미비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순리순수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운'은 통치자 인물, '진시황'과 '한무제'를 보여주고 있다. <안심가>에 나오는 통치자 인물 '진시황'과 '한무제'는 불로불사를 꿈꾸었고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들의 무상함을 지적하면서 선약인 불사약의 세계를 몰랐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넷째, 부정적 인물, '결', '도척'과 '환퇴', '전자방'과 '단간목'을 통해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용담유사」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악인과 부정적 인물들을 등장시킨 대비법을 통해 아쉬움이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인물을 통해 부정적 상황마저 결국은 개인의 무극대도와 수심정기 지키기로 나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섯째, '수운'은 기타 인물로 '두목지'와 '사광', '편작'을 드러내고 있다. '두목지'는 어린 날 남성다운 풍채의 비유로, '사광'은 유년기의 총명함의 비유로, '편작' 치료법은 선약이 더 우수함의 비교법으로 쓰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수운'은 태평성세의 군주이고 과거 동양의 유토피아의 상징적 비유인 '심황오제'와 '요순', '공맹'을 빌어 다양하게 대비하여 자신의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삼황오제처럼 살아야 함을, 요순지세와 공맹지덕 세상이 아닌 지금을 다시개혁적 세계관으로 이상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은 부족하고 부덕한 것이다. 또 '결', '도척'과 '환퇴'를 빌어 시대 상황의 악조건과 개인상황의 악조건일지라도 결국 비전적 세상과 비전적 방법으로 극복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시황'과 '한무제'는 우리 도의 특별한 선약을 제시하기 위해 안타까움을, '전자방'과 '단간목'은 순리순수한 제자만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썼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통해 보면 결국 수운은 「용담유사」에서 중국 인물을 통해서도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올바른 도의 실천이 최선임을 강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현재 그렇지 않은 세상을 이상적 제왕

과 이상적 성인들을 이 세상과 대비하기 위해 썼고, 수운은 그 너머의 세계  
까지 제시했다고 보아진다.

## 참고문헌

- 수운 최제우, 「용담유사」, 『天道教經典』, 천도교중앙총부, 1993.
- 김구진, 김희영 편저, 『이야기 중국사』 제1권, 청아출판사, 1991.
- 김성문, 「두목(杜牧)」, 이병한 외 22인 공저, 『中國詩와 詩人-唐代篇』, 사람과책, 1998.
- 김인환, 「‘용담유사’의 내용 분석」, 『문학과 문학사상』, 열화당, 1979.
- 사마천, 『사기열전 3/4』, 임동석 역주, 동서문화사, 2009.
- 孫志鳳, 『韓國說話의 中國人物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논문, 1998.
- 宇野哲人, 『중국의 사상』, 박희준 옮김, 대원사, 1991.
- 원 가, 『중국의 고대신화』, 정석원 역, 문예출판사, 1989.
- 유병덕 편저, 『동학·천도교』, 교문사, 1993.
- 尹乃鉉, 「箕子新考」,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999.
- 尹錫山, 『龍潭遺詞 研究』, 민족문화사, 1993.
- , 『동학사상과 한국문학』, 한양대출판부, 1999.
- , 『주해 東學經典-동경대전·용담유사』, 동학사, 2009.
- 임금복, 「동양의 신화와 동학경전의 비교-요순 신화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10호, 동학학회, 2006.
- , 「‘목소리’와 ‘마위’, ‘새’와 ‘저울’의 현상학-서구 신화와 동학 신화의 비교」, 『문학공간』 202호, 문학공간사, 2006. 9.
- , 「동양신화의 경전수사학-‘동학경전’에 나타난 ‘삼황오제 신화’를 중심으로」, 『문학공간』 228호, 문학공간사, 2008. 11.
- , 「‘동경대전’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 『동학학보』 제21호, 동학학회, 2011. 4.
- 임동석 역, 『국어 3-3』, 동서문화사, 2009.
-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황금부엉이, 2004.
- 정재호, 「동학가사의 일고찰」, 『아세아연구』 제38호, 1970.
- , 「‘용담유사’의 국문학적 고찰」, 『한국사상연구』 4, 태광문화사, 1975.
- , 「‘용담유사’의 근대적 성격, 한국고전문학회 편,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지성사, 1984.
- 조동일, 「개화기 가사에 나타난 개화, 구국사상」, 『동서문화』 IV집,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1970.

——, 「개화기의 우국가사」, 『개화기의 우국문학』, 신구문화사, 1974.  
레이첼 스톰, 『동양신화 백과사전』, 김숙 옮김, 루비박스, 2006.  
시라카와 시즈카, 『전혀 다른 공자이야기-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 장원 철 옮김, 한길사, 2004. 237쪽  
아서 코트렐, 『그림으로 보는 세계신화사전』, 편집부 옮김, 까치, 2002.  
안평친, 『공자평전』, 김기협 옮김, 돌베개, 2010, 137-138쪽.  
천웨이핑 지음, 『공자평전-유가의 1인자』, 신창호 옮김, 미다스북스, 2002.  
www.baidu(百度).com 참조.  
daum. Naver, 브리태니카, 위키백과 사전 등 참조.

## ◇ 제4주제 토론

### ‘「용담유사」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에 대한 논평

김 용 환(충북대학교 교수)

## 1. 들어가는 말

2011 춘계 학술대회는 동학학회와 성신여대 동아시아 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인물을 통해 본 동학사상의 계승’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동학사상의 계승을 주제로 인물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공자 사이의 교류와 소통이 강조되면서 동학연구에 대한 깊이와 외연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임금복 교수(이하 발표자라고 칭함)의 ‘「용담유사」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는 동학경전에 해당하는 용담유사를 소재로 중국인물이 소개된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전체주제와 상응하면서 시의적절한 가치를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 2. 논문구성의 이해

발표문은 서론과 본론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물이 인용된 경우를 용담유사에서 찾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용담유사」에 나타난 중국 인물을 다루고 있다. <교훈가>에 ‘요순’과 ‘결’, <안심가>에 ‘공부자’와 ‘진시황’, ‘한무제’와 ‘편작’, ‘요순’, <용담가>에 ‘기자’, <몽중노소문답가>에 ‘두목지’와 ‘사광’, ‘요순’과

‘공맹’, <도수사>에 ‘공부자’, ‘삼천제자’와 ‘칠십이인’, ‘전자방’과 ‘단간목’, <권학가>에 ‘삼황오제’와 ‘요순’, <도덕가>에 ‘요순’과 ‘공자’, ‘도척(盜跖)’과 ‘환퇴(桓魋)’ 등을 소개한다.

서론에서는 「용담유사」에 등장하는 중국 인물 유형을 다섯 부류로 나누어 인물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 인물 유형은 첫째, 신화적 인물(‘삼황오제’와 ‘요순’, ‘기자’), 둘째, 정치사상적 인물(‘공자’와 ‘맹자’), 셋째, 통치자 인물(‘진시황’과 ‘한무제’), 넷째, 부정적 인물(‘결’, ‘도척’과 ‘환퇴’, ‘전자방’과 ‘단간목’), 다섯째, 기타 인물(‘사광’과 ‘편작’, ‘두목지’)로 분류한다.

제 2장은 첫 번째 유형으로 신화적 인물, ‘삼황오제’와 ‘요순’, ‘기자’ 등을 다룬다. ‘삼황오제’는 <권학가>(1862)에, ‘요순’은 <교훈가>(1860)와 <안심가>(1860), <몽중노소문답가>(1861)와 <권학가>(1862), <도덕가>(1862)에, ‘기자’는 <용담가>(1860)에 나오고 있음을 밝히고, 여기서 말하는 삼황(三皇)은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인황씨(人皇氏)’이며, 오제는 이설이 있지만, ‘복희’·‘신농’·‘황제’·‘소호’·‘전욱’에 국한시킨다.

‘요순’은 ‘요와 순’으로 ‘요(堯)’는 이상적인 국왕으로 추앙받은 인물이며, 중국의 ‘순(舜)’도 인간 승리의 모범으로 묘사되어 이상적 왕으로서 대비시키고 있다. 또한 <용담가>에는 경주가 ‘기자’때 유래된 유서 깊은 수도임을 강조하면서 지리적인 조건을 강조하고 위국충신이 많이 나올 수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 3장은 「용담유사」에 나오는 정치사상적 인물로 <안심가>(1860)와 <도수사>(1861), <도덕가>(1862)와 <몽중노소문답가>(1861) 등에 등장하는 ‘공자’와 72인 제자, 삼천제자, ‘맹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제 4장은 「용담유사」에 등장하는 중국 인물로 통치자 유형 인물을 거론하면서 <안심가>(1860)에 ‘진시황’과 ‘한무제’를 거론하고 있다.

제 5장은 「용담유사」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인물의 유형으로서 <교훈가>(1860)에 ‘결(桀)’, <도덕가>(1862)에 ‘도척(盜跖)’과 ‘환퇴(桓魋)’, <도수

사>에 '전자방(田子方)'과 '단간목(段刊木)'을 거론하고 있다.

제 6장은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1861)에 나오는 '두목지'와 '사광'이, <안심가>(1860)에 나오는 '편작'을 거론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서는 첫째 유형의 신화적 중국 인물, '삼황오제'와 '요순', '기자'는 경천순천하는 의미, 둘째 유형의 '요순'은 '요순성세(堯舜聖世)' 재도래 열망과 난세(亂世)에 대한 고뇌, 다시개혁에 대한 갈망의 의미, 그리고 '기자'가 나오는 <용담가>에는 경주가 기자 때 유래된 유서 깊은 의미를 부각시킨다.

둘째 유형의 정치사상적 인물로 '공자'와 그의 삼천제자와 신통육예 72인 제자, '맹자'를 통해, '공자'의 생활 태도인 안빈낙도(安貧樂道)와 고진감래, '삼천제자, 72인 제자를 거론하지만 반면제자가 발생할 미비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순리순수를 강조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셋째 유형의 '진시황'과 '한무제'에서 불로불사와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들의 무상함을 지적하면서 불사약 세계를 몰랐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유형의 부정적 인물, '결', '도척'과 '환퇴', '전자방'과 '단간목'을 통해 부정적 상황마저 결국은 개인의 무극대도와 수심정기 지키기로 나갈 것임을 암시한다.

다섯째 유형의 기타 인물로 '두목지'와 '사광', '편작'을 거론한다. 여기서 '두목지'는 어린 날 남성다운 풍채의 비유로, '사광'은 유년기의 총명함의 비유로, '편작' 치료법이 알려졌지만 선약이 더 우수함을 대비시킨다. 결국 수운은 「용담유사」에서 중국 인물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올바른 도의 실천이 최선이며, 현재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변화시켜 이 세계 너머의 세계까지 내다본다고 마무리한다.

### 3. 논평 및 질의

지성인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한 가지는 말하기(대화 또는 토론)이며, 다른 한 가지는 글쓰기(논술 또는 칼럼)이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점에서 활동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발표자는 용담유사 구성에 중국인물이 무게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하여 중국인물을 주제로 선택하고, 중국 인물의 인용을 통해 용담유사는 다시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무게를 두어 논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1. 중국인물 유형의 기준과 문맥에 나타난 특징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는 「용담유사」에 등장하는 중국 인물 유형을 다섯 부류로 나누고 수운의 중국 인물에 대한 사유 태도를 고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국 인물을 분류한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분류 항목 사이의 적절한 긴장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넷째 유형에서는 부정인물을 묘사하고 다섯째 유형은 인물의 특징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기타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 구체적 분류 기준과 「용담유사」 문맥에 나타난 특징을 제시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첫 번째 질문은 이와 같이 중국인물 유형을 분류한 기준과 「용담유사」 문맥에 나타난 특징을 밝혀주기 바란다. 아울러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 2. '텍스트 안'(within context)에서의 중국인물 해석에 대하여

상식으로 알고 있는 중국인물과 용담유사에서 텍스트에서 드러난 중국인물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흔적, 또는 차연(差

延)으로 말한다. 공자인용의 경우, 공자 일반에 대한 기술은 하면서, 발표자는 「용담유사」에 나오는 ‘공자’와 그의 제자인 ‘72인 제자’와 ‘삼천제자’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용담유사」에 나오는 ‘공자’는 <안심가>(1860)와 <도수사>(1861), <도덕가>(1862)와 <몽중노소문답가>(1861)에 72인제자, 삼천제자와 함께 나온다고 기술할 뿐 어떻게 <안심가>와 <도수사>, <도덕가>와 <몽중노소문답가>에서 어떻게 다르게 묘사되는지와 차이점을 고려한 「용담유사」 전체 맥락에서 ‘공자’의 모습은 어떤 상관적 연동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논구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된다.

결국 상식의 공자에 대한 이해를 「용담유사」에 적용하면서 「용담유사」에 나타난 공자의 모습을 통해 논구하려는 방향제시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인물이 「용담유사」에 나타날 경우, 맥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와 전체구성에 드러난 특징을 대비하면서 자세하게 논구하지 않으면, 「용담유사」에 나오는 공자는 존재하지 않고 상식의 공자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은 공자가 「용담유사」 문맥에서 어떠한 정치사상 유형으로 표현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다시 말하면, 「용담유사」 텍스트가 제시하는 공자상의 상관연동의 의미가 「용담유사」 전체 맥락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물이 용담유사에 인용될 경우, 해석 방법론에 대한 고민 없이 중국인물 일반의 인식으로 유추하는 것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인용된 의미의 정확성은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인물이 용담유사에 인용되었을 경우, 해석 방법의 기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서론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보충할 내용에 대하여

서론에서는 용담유사에 인용된 중국인물이 용담유사의 전체 맥락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영향사적 해석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가>에서 수운은 ‘요순’과 대척된 ‘도척’의 세계, ‘공자’와 대척된 ‘환퇴’를 지적하면서 부정적 인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다른 분류와 같이 부정적 내용의 특징을 찾아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용어를 고집하면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로 대비하는 방법이 정확한 분류가 될 것이다. 긍정에서는 속성을 발하고, 부정에서는 형식만 전제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를 보일 것이다.

또한 ‘<몽중노소문답가>에는 기남자가 어릴 때 이미 관옥이란 남자의 아름다운 얼굴과 남성다운 풍채의 소유자 두목지에 비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광’ 부분은 ‘기남자의 성장기 10세 즈음 자신의 지력에 대해 사광의 총명과 비유하고, 새로 태어난 기남자는 나라를 걱정하여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올바른 도를 구하고자 천하를 떠돌게 된다.’고 한다.

뜻풀이에서 ‘수운’의 ‘주유팔로를 비유적으로 노래했다’고 해석한, 윤석산 교수의 <동경대전 주해> 견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중국인물의 인용에 있어서 <몽중노소문답가>에서는 ‘두목지’를 통한 풍채, ‘사광’의 총명성과 연결시켜 인용한 것이라면, <몽중노소문답가>의 중국인물 인용은 긍정적 삶의 자세에 초점을 둔 것이면서 수운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몽중노소문답가> 자체맥락에 대한 파악에 무게를 두지 않고, 기타 형식으로 분류하면서 수운의 주유팔로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의 인용은 맥락 자체의 천착(穿鑿) 없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양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용담유사에 나오는 모든 중국 인물을 전체적으로 다루기보다 인용된 ‘텍스트 안’(within context)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의미를 중심으로

「용담유사」에 나온 중국인물의 흔적을 자세하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인물로서의 상식적 이해와 「용담유사」에 나오는 중국인물의 특징적 이해는 구별되면서 항상 보충적 논의를 수반하여야 될 것이다.

끝으로 발표자가 각주에서 밝힌 것처럼, 『동학학보』 21호(동학학회, 2011. 4)에서 「'동경대전'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를 이미 논구한 만큼, 이번의 「용담유사」에 나오는 중국인물의 흔적에 대한 연구는 보다 '텍스트 안'의 의미에 충실하면서, 「용담유사」 고유의 해석학적 의미가 탈각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논평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 제5주제

동학농민혁명군 진압 인물과 그 행적

-미나미 코시로(南小西郎), 이두황, 조희연, 이도재를 중심으로-

강 효 숙(원광대학교 강사)

1. 들어가는 글
2. 미나미 코시로 (南小西郎)
3. 이두황(李斗璜)
4. 조희연(趙義淵)
5. 이도재(李道宰)



## 1. 들어가는 글

일본의 청일전쟁 개전의 빌미로 이용된 동학농민혁명은 대체적으로 대내적인 성격과 대외적인 성격으로 구분되어 학계에서는 제1차, 제2차 동학농민혁명 등으로 칭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대내외적 성격보다는 시기, 즉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시기부터를 제2차 동학농민전쟁이라 칭하여 제1차와 구분하기로 한다.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고에서는 생략하지만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투쟁했던 제2차 시기에도 대내적인 투쟁이 병행되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고부기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놀란 조선정부의 청군요청은 조선 내에서의 주도권장악을 노리고 있던 일본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하여 청일간에 체결한 천진조약을 근거로 조선에 비합법적으로 일본군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조선을 청일전쟁의 배후 병참기지화 하였고 이에 대해 조선의 동학농민군은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일본군의 러시아를 의식한 서남으로 몰아붙이기 작전에 기초하여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 조선정부 중앙군 및 지방군 그리고 민보군 등이 가세하여 동학농민군의 그야말로 이중 삼중의 탄압 속에 배일투쟁을 전개해 갔다.

본고에서는 동학농민군을 탄압했던 중심인물 가운데 일본군 측 인물로는 특히 '동학당 征討隊'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후비 독립 제19대대 대장으로 조선에 파견되어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의 '모두 죽여라'라는 명령을 철저하게 충실하게 실행한 미나미 코시로(南小西郎)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측 인물로는 조선 중앙군의 지휘자 혹은 지방관으로 동학농민군 탄압을 지휘하였던 이두황, 조희연, 이도재를 중심으로 그들의 행적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미나미 코시로(南小西郎)

미나미 코시로(1842. 6. 15. ~ 1920. 1. 12. 이하 미나미)는 '동학당 정토대'인 독립 후비보병 제19대대장으로 1894년 11월 7일 후비보병 제19대대를 인솔하여 인천에 도착하였다.

먼저 미나미가 조선에 파견되기 이전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나미의 구명(舊名)은 도시타네(敏胤)로, 1842년 6월 15일 야마구치현 요시키군(山口縣 吉敷郡)에서 부친 야나이 한쿠로(柳井半九郎)와 모친 야나이 츠유(柳井露) 사이에서 태어났다. 야나이는 모친의 성씨이다. 미나미는 1862년 5월 야마구치의 한학학원에 입학했다가 같은 해 9월 야마구치현의 의대(義隊, 의병)에 입대하여 무인으로써의 전투 생활이 시작되었다. 1864년 5월 존왕격파(尊攘激派)와 야마토 순행을 계획한 히사사카 요시스케(久坂義助)가 상경할 때 수행하였고, 같은 해 7월 19일 사카이초(界町) 전투에 참가한 후 동월 25일 고향으로 돌아갔다. 1865년 4월 중대장을 겸무하게 되었고, 1866년 4월 그의 부대는 어순대(御楯隊)와 합병되었고 5월에 중대장이 되었다.

1868년(명치 원년) 1월 8일 빙고노 쿠니 후쿠야마(備後國 福山)전투를 시작으로 보신(戊辰)전쟁에 , 4월 중대장이 되어 데와국(出羽國) 전투에 참가하였고, 동월 6일 홋카이도(北海道)로 건너가 곧바로 전투를 벌인 후, 5월 하코다테(箱館)에서 승전하여 6월 1일 도쿄에 도착하여 동월 대대(大隊) 이사가 되었다. 동월 24일 구 번주(舊 藩主)의 호위를 담당하여 같이 귀향하였다.

1870년 1월 4일 야마구치현에서 막부복고운동이 발생하였을 때 미나미 부대는 같은 해 2월 이를 평정하였다. 6월 다년간의 군인 공적을 인정받아 번주(藩主)로부터 사족(士族)의 지위를 받았다. 이때 미나미는 모친 야나이 성에서 미나미(南) 성으로 바꾸어 새로이 사족 집안을 세웠다. 따라서 미나미 고시로는 그 집안 미나미가(家)에 있어 제1대에 해당된다. 미나미는 10월 오사카(大阪)의 병부성 생도가 되어 프랑스식 훈련을 받은 후 동월 15일 입영하였다.

1871년 8월 소위, 1872년 중위가 되었다. 1874년 2월 사가(佐賀)현의 막부복고운동을 토벌하여 같은 해 4월 대위가 되어 11월에 야마구치현 막부복고운동을 토벌하였고, 1875년에는 가고시마(鹿兒島)현 막부복고운동을 평정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이 인정되어 미나미는 1888년 6월 육군보병소좌 후비역으로 임명되었고, 1894년 9월 5일에는 조선의 인천병참감 이토 히로요시(伊藤裕義)의 동학농민군 탄압에 맞는 '강한 자'로 선정되어 후비독립보병 제19대대장으로 임명받아 '동학당 정토대' 대장이 되어 조선에 파견되었다. 농민군 탄압 후 미나미는 1895년 5월 15일 후비보병독립 제19대대장에서 면직되어 남부병참사령관 보에 임명되었다가 27일 개성병참사령관이 되어 개성에 도착하였다. 같은 해 6월 후비병 만기에 따라 연장을 출원하여 17일 인가를 받아 계속 개성병참사령관직에 근무하면서 황해도 지역 동학농민군 탄압에 진력하였다. 1895년 12월 4일 개성병참부 폐쇄 명령에 따라 다음 날 5일 인천병참부에 도착하였다. 7일 귀국의 명령을 받고 12일 인천을 출발하여 17일 히로시마에 도착하였고 18일 귀향명령을 받았고, 1900년 후비보병 만기를 맞이하여 퇴역하였다. 1920년 1월 12일 자택에서 사망하여, 미나미家 집안 묘지에 묻혔다.

미나미의 동학농민군 탄압은 후비보병 제19대대(이하 제19대대)와 함께 이루어 졌는데 제19대대의 성격 및 조선 파견 후의 행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후비독립보병 제19대대는 1894년 7월 29일에 개설되어 시모노세키(下關) 해협 방어 수비대의 일부로 모토무라(本村) 부근의 시모노세키 북방에 배치되었다가 9월 5일 소집령을 받고 다음 날 제5사단 사령부에 출두하여 후비보병독립 제19대대장으로 임명받았다. 같은 날 히로시마(廣島)를 출발하여 9일 야마구치현 토요우라군(豊浦郡) 히코지마(彦島) 주둔 수비대 임무를 맡았다. 같은 해 10월 28일 조선 파견을 명령받아 다음 날 제5사단 사령부에 출두하여 같은 날 히로시마를 출발하여 바칸(馬關, 현재 시모노세키)을 경유하여 11월 7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미나미는 상륙 하자마자 병참감 후쿠하라 토요노리(福原豊功)의 지휘하에 들어갔고 인천병참감 이토 히로요시로부터 '동학당 정토대' 지휘관으로 임명한다는 명령 및 훈령을 받았다. 11월 17일 「후비제대일람표」

에는 그 소속이 남부병참 수비병으로 되어 있다. 10일 용산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 이노우에 공사로부터 동학농민군 탄압에 관한 특별 훈령을 받았다.

제19대대를 인솔한 미나미 소좌와 각 중대장은 인천병참감 이토 히로요시의 강한 요청에 의해 선발된 자들이었다. 제19대대는 3중대로 편성되었는데, 1893년 12월 23일 「후비보병연대편제표」에 「후비보병 독립대대의 편제는 본표의 대대와 같다」라는 표기에 의하면 본부는 56명, 1중대는 221명으로 구성되었다. '후비병'이란 상비역 7년(만20세부터의 3년간의 상비역과 예비역 4년간)을 마친 후, 5년간의 병역에 복무한 병사를 의미한다.<sup>1)</sup>

동월 16일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공사는 인천병참감 이토와 협의하여 동학농민군 완전 '소멸'을 목적으로 19대대에 서울수비대 후비보병독립 제18대대 1중대 및 용산·인천수비대로부터 각 1중대, 부산수비대 1대대와 그 보충병, 육전대(츠크바[筑波]함대 승무원 251명, 소코[操江]호 승무원 82명)등을 투입하였다.<sup>2)</sup>

서울이남 지역의 동학농민군 탄압에 투입된 일본군은 제19대대를 중심으로 약 12중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후비보병연대편제표」에 비추어 볼 경우, 서울 이남의 본격적인 동학농민군 탄압에 참가한 일본군의 인수는 2,708명에 달하고, 초기 동학농민군 탄압<sup>3)</sup>에 참가한 일본군 수비대를 포함하면 15중대가 되고 인수는 3,371명에 달한다.

특히 제19대대는 전라·충청 양도의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소멸시키고 나아가 재기의 후환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제19대대를 3분하여 진군시키는 작전으로 남진하였다. 즉, 서로군(제2중대)은 수원-천안-공주-전주-영광-장성-남원에 이르는 전주가도로, 중로군(본대·제3중대)은 용인-죽산-청주에 이르는 성주가도로, 동로군(제1중대)은 가흥-충주-문경-낙동에 이르는 대구가도(병참선로)로 진군케 하고, 그 중 동로군을 먼저 나아가게 하여

---

1) 1894년 4월의 「第1号 戰史歩兵大隊編成表」에 의하면 본부는 74명, 1중대는 2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第3号 後備歩兵中隊編成表」에 의하면 1중대는 237명으로 구성되었다.  
2) 操江號는 1894년 7월 25일의 풍도해전에서 일본군이 포획한 중국군함이다.  
3) 조선정부의 공식적인 동학농민군 탄압요청 이전 시기로 1894년 10월 18일 이전을 칭한다.(이에 대해서는 강효숙,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歷史學研究』, 歷史學研究會, 2002. 5, 일본 동경 ;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진압」, 『인문학연구』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5. 6 참고)

동학농민군을 둘러싸 가면서 서남단으로 몰아 부치려는 작전이었다. 이는 '농민군이 만약 강원·함경도 방면, 즉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곳으로 도망하게 되면 훗날 일본군에게 큰 해가 될 것은 선명한 일이므로 엄밀하게 그것을 예방해야한다'라는, 러시아를 의식한 '토벌책'이었다.

1894년 12월 21일, 전주에서 제19대대 서로군·중로군, 제18대대의 1중대 그리고 교도중대 등의 조선군이 미나미 소좌의 지휘 하에 들어갔다. 미나미가 전주에서 세운 이후의 '토벌책' 역시 동학농민군이 경상도 방면으로 도망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 점차 서남으로 몰아붙여 가는 것이었다. 즉, 동학농민군의 경상도 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동로군을 전라·경상 양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록을 따라 진군시켰으며, 그 반대쪽에서는 서로군으로 하여금 동학농민군을 구축케 하는 한편 미나미의 중로군은 다소 늦게 그 추적에 참가하여 좌수영의 계곡 사이에서 동학농민군을 「일괄 토벌」 하는 계획이었다. 같은 날, 미나미 소좌는 서로군을 태인·장성과 흥덕·영광에 파견하였다. 동로군은 경상·전라 양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맥을 따라 거창·함양·운봉을 경유하여 27일 남원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미나미 소좌의 지휘 하에 들어갔다.

1895년 1월 7, 8일 전라남도 장흥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시신이 산을 이루는 일방적인 공격이 발생하였다. 당시 미나미 자신은 나주에 체재하면서 동학농민군 '토벌' 관련 보고를 받으며 생포된 동학농민군에 대한 임시재판을 행하였는데, 장흥전투 이후로는 '다른 날 재기할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소 살벌한 방침을 취하라'는 공사 및 상관의 명령에 따라 '많은 비도를 죽이는 방침을 취하였으'며, 그 자신 또한 '많이 죽이는 방침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그는 '장흥 주변에서는 인민을 협박 하에 모두 동도가 되어 그 수는 실로 수백에 이르렀다. 따라서 진짜 동학당을 잡아들이면 바로 그들을 죽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진짜 동학당의 구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1895년 2월 5일 이마하시(今橋) 인천병참부 사령관으로부터 제19대대 귀경 명령이 도달하여 미나미부대는 12일 나주를 출발하였다. 도중, 전라북도 대둔산에 동학농민군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2월 18일 다케우치(武內) 조장에게 동학농민군 '토벌'을 명령하였다. 다음 날 다케우치 부대 3분대와 전주병 31명은 배후에서 9시간에 걸쳐 대둔산 동학농민군 26명 공격한 끝에 소년 1명을 제외한 모두를 죽였다. 그 가운데는 임산부와

1세의 여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전라북도 동학농민군에게 있어 최후의 항쟁이었다.

제19대대의 각 부대는 2월 28일 용산에 집합하였고, 같은 해 3월 1일 제19대대는 용산병참 수비대가 되어 계속 주둔하였다. 일본군에 있어 후비대란 원래 전쟁이 끝나면 해산해야만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청일강화조약 체결 후 상비군으로 조선에 설치한 군용전선 보호와 동학농민군 탄압에 이용하려 했으나, 삼국간섭 발생으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군대의 이동은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여, 제19대대를 조선에 남겨두어 그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sup>4)</sup>

### 3. 이두황(李斗璜)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동학농민군 탄압에 참가한 조선군으로는 중앙군 선발대의 1,247명을 비롯하여 경리청군 703명, 장위영군 850명 등의 약 2,800명과, 각 지역의 지방 영병 등이 이었다. 조선군은 진퇴 등 모든 것이 일본군의 지령과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일본군의 군율에 의해 처리되도록 되어 있었다.<sup>5)</sup>

이두황(李斗璜, 1858. 1. 11 ~ 1916. 4)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중앙군 壯衛營兵의 領官으로 동학농민군 탄압에 참가하였다.

이두황의 본관은 인천으로 자는 公七, 雪巖이다. 그는 부친 命洽과 모친 趙氏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난 상인 출신으로 가난하였다. 그의 원적은 서

4) 이상, 앞의 책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淸戰爭」 ;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진압」.

5) 앞의 책,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淸戰爭」 ;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진압」.

을 西部芳橋로 확인되고 1916년 당시의 주소는 서울 西署 餘慶坊 芳橋洞 28통 제1호로 확인된다. 그는 가정에서 한학을 수학하였으며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무과에 급제하여 이듬 해 親軍左營哨官으로 임명받았고 1884년에는 수문장으로 임명받았다가 곧 원에 의해 면직되었다. 1886년 訓練院主簿로 임명되었다. 이후 흥해군수, 흥양감목관, 나주감목관으로 임명받아 활동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하자 3월 10일 초토영군으로 임명받아 동학농민군 탄압에 참여하였다. 5월 6일(음 4월 2일) 이두황은 홍계훈, 오건영, 오원영, 이학승, 원세록 등과 함께 전라도로 출발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향하였다. 이두황은 1대의 병정을 인솔하고 인천 5월 7일 인천에 도착하여 8일 한양선을 타고 출발하여 9일 군산에 도착하여 10일 상륙하여 곧바로 전주로 향하였다. 13일 이두황은 이학영과 함께 2隊의 병력을 인솔하게 하여 금구, 태인, 고창, 흥덕으로 진군하였다. 5월 31일에는 이두황이 동학농민군과 전투하다 전사하였다고 일본공사관에 보고되기도 하였다.<sup>6)</sup>

1894년 8월 장위영참영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월 장위영 주영관으로 승진하였다. 10월에는 죽산부사로 임명되어 주변 지역의 동학농민군 탄압에 앞장섰다.

11월 7일 충청도 동학농민군 탄압을 위해 조선정부에서 파견된 조선군은 교도중대였다. 이 부대는 8월 20일의 「잠정합동조관」에 의해 조선군이 재편성될 때, 일본군 장교의 훈련을 받은 장위영병 소속 부대였다.<sup>7)</sup> 그리고 서울수비대에서 파견된 일본군 장교 시라기(白木)과 미야모토(宮本) 외에 약간의 하사관과 일본군 병사와 순사가 동행하게 되었고<sup>8)</sup> 교도중대에 관한 모든 지휘는 시라기와 미야모토, 두 사람이 취하게 되어 있었다. 인천 병참감이 히로시마의 병참총감 가와카미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다른 조선군도 예외 없이 일본군의 지휘와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며, 일본

6) 국사편찬위원회, 『재한일본공사관기록』 1 ; 『재한일본공사관기록』 2.

7) 구양근, 「東學農民軍の第2次東學蜂起と日本軍部署」, 『신한학보』, 1976, 102쪽.

8) 앞의 책,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진압」.

군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만약 위반할 경우 일본군 군율에 따라 처분된다는 사항을 각 조선군 대장에게 전달시켰다.<sup>9)</sup>

일본군 자료에 의하면, 이두황의 교도중대는, 11월 8일, 죽산-청주-충주와 진천-충주, 두 방면에서 충주 동학농민군을 포위하면서 공격하려는 계획으로 서울을 출발하여,<sup>10)</sup> 15일에는 죽천동부근에서 약 400명의 동학농민군을 격퇴시켰다. 이후, 12월 1일까지의 기록은 없으나 경기도 죽산을 출발하여 충청도 충주(혹은 청주), 보은을 경유하여 괴산, 청산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도중대의 일부는 12월 2일 청산에 도착하였고, 4일 동학농민군을 공격할 목적으로 양산촌(영동부근)을 향하여 진군하는 도중,<sup>11)</sup> 영동에서 제 19대대 남소좌부대의 2분대에 합류하였다.<sup>12)</sup> 4일 밤 10시, 금산 방면으로부터 동학농민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약 1시간 반에 걸친 격전 끝에 동학농민군은 40여명을 희생시키고 금산으로 도주하였다. 다음 날, 시라기가 인솔하는 교도중대와 동학농민군 사이에 또 다시 전투가 시작되어, 동학농민군은 6명의 희생자를 내고, 진산·고산·용담으로 도주하였다.<sup>13)</sup> 같은 날, 금산에 도착한 교도중대는 미나미소좌에게, 옥천에 이르기까지 세 번에 걸쳐 동학농민군 2·30명을 죽였다고 보고하였다.<sup>14)</sup>

한편 이두황의 교도중대는 12월 3일 해미성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였고 다음 날에는 서산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12월 9일, 제19대대의 미나미소좌는 교도중대에게, 논산·익산의 동학농민군이 용담, 금산으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산, 고산부근의 동학농민군을 탄압하도록 명령하였다. 교도중대는 다음 날(혹은 12월 11일) 이두황부대는 통위영병, 일본군과 함께 농산읍 부근에서 동학농민군 600여명을 발견하여 시라기부대는 우측으로부터, 미야모토부대는 좌측으로부터

9)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44쪽.

10) 앞의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33쪽.

11) 앞의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20쪽.

12)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282-306쪽.

13) 같은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20쪽, 522쪽.

14) 같은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282-302쪽.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여 13명을 살해하였다. 그 후, 고산으로 도주한 동학농민군과 진안. 동학농민군이 앞뒤에서 시라기부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먼저 진안에 이르러 동학농민군과 싸움을 벌여 동학농민군 18명을 죽이고 진안읍을 점령하였다. 13일에는 고산현에 이르러 동학농민군의 화약제조소를 찾아내어 미야모토 지휘 하에 공격하여 동학농민군 11명을 살해하고 화약제조소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화약제조소는 그 즈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진안 동학농민군이 화약제조소 등을 준비하여 일본군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교도중대는 12월 14일 고산에서 약 600명의 동학농민군과 두 시간 여의 격전 끝에 16명을 죽이고 동학농민군의 진지를 점령하였다.<sup>15)</sup>

금산, 고산부근의 동학농민군 탄압을 거의 마친 교도중대는<sup>16)</sup> 12월 17일 고산을 출발하여 18일 삼례에서 제19대대 본대에 합류하였다. 이후는 제19대대와 함께 움직였다. 교도중대는 1895년 1월 13일, 제19대대 제1·2중대의 지대와 함께 장흥전투에 참가하였고, 동월 15일에는 죽천동 부근의 동학농민군 약 400명을 격퇴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sup>17)</sup>.

제19대대는 1895년 1월 5일 전주에서 미나미 소좌의 중로군은 나주로, 서로군은 함평으로, 동로군은 능주로 출발하여 도착하였다. 그 가운데 중·좌측 지대는 8일에 장흥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싸움은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으며 일본군은 「적의 死屍 산을 이루었다」라고 보고하였다.<sup>18)</sup> 어디에서 총탄 몇 발을 사용하여 몇 명을 죽였다는 등, 항시 정확한 숫자로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던 일본군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

참고로 이상은 일본 측 자료를 중심으로 한 까닭에 향후 한국 측 그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15) 같은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24쪽, 528-529쪽.

16) 같은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294쪽.

17) 일본 방위연구소 소장, 『戰史編纂準備書類(58) 東學黨狀況』, 1894.1.25.

18) 일본 방위연구소 소장, 『千代田文庫301 朝鮮國に於て東學黨蜂起電報 外交門 八九』 1월28일조.

한편, 조선 측 자료인 『조선왕조실록』 고종편, 『고종시대사』, 『梅泉野錄』 등에 의하면, 11월 7일 이후 이두황은 먼저 보은의 동학농민군을 탄압하였고 이후 일본군 '동학당 정토대'인 제19대대와 동행하여 남으로 진군하면서 안성, 이천, 충청도 청산, 보은, 온양, 신창 등에서 동학접주 이용익, 우성철, 박만업, 이태우 등 수십명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사살, 효수, 방면하였다고 정부에 보고하였다. 11월 21일 경 천안 목천 세성산에서는 북접 김복용 등 5명을 생포하였는데 천안에서 모두 죽었다. 12월 19일경에는 일본군과 함께 전라북도 전주 근처인 금구, 원평 등에서 동학농민군 수만 명과 교전하였다.<sup>19)</sup>

『梅泉野錄』에는 장흥 전투 등에서 이두황이 이규태 및 일본군과 합세하여 동학농민군 3만 3천여 명을 살해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1894년 12월 22일 이두황은 여러 차례에 걸친 동학농민군 탄압 공적을 인정받아 兩湖都巡撫營右先鋒을 겸임하게 되었다.

1895년 5월 14일 이두황은 죽산부사와 양호도순무영우선봉에서 해임되었다가 22일 양주목사로 임명받았으며 동년 8월 5일 제1 훈련대 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1895년 10월 8일(음 8월 20일) 일본군의 주도면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명성황후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 이두황은 경복궁 경호관을 담당하였는데 일본군에 협조하여 그들의 경복궁 침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자신도 병사를 거느리고 왕궁에 침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두황은 동년 11월 11일 휴직하였다. 명성황후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전 군부협변 이주희는 일본군에 협조한 조선군을 지휘한 죄파로, 전 훈련대 正尉 윤석우는 왕비의 시신을 은폐한 죄파로, 박선은 당시 양복을 착용하고 일본군 등과 섞여 왕비를 살해한 죄파로 1895년 12월 28일 고등재판소에서 모반죄로 논죄되어

---

19) 한일 양국의 자료에서 약간의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것은 향후 또 다른 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규명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두황은 이미 도주한 상태여서 우범선, 정난교, 유혁로 등과 함께 체포령이 내려졌다.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명성황후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으로 도주하여 망명한 이두황을 비롯하여 유길준, 조희연, 장박, 권영진, 우범선, 이범래, 이진호 등에 대해 기일을 정해 놓고 잡아오라는 조령을 내렸다.<sup>20)</sup>

이두황은 부산으로 도주하여 조선 관리의 눈을 피해 일본인의 집에 숨어 있으면서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꿔 입은 후 1897년 1월 간신히 히로시마로 건너갔다. 그후 교토(京都)를 경유하여 도쿄(東京)로 가서 일본에 망명하였다. 이두황은 시간이 나는 대로 일본 각지를 유람하며 각 지역의 유지들과 교류하였는데, 이두황 등 망명자들에 대한 일본 거류비는 일본정부에서 제공하였다.

한편 우범선은 1903년 일본의 그레(吳)에서 고영근, 노원명 등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이를 기회로 이용직, 민영우, 이유인, 윤이병 등이 「만국공법회통」의 交還逃犯條와 干預內政條에 비추어 일본에 망명한 이두황 등을 조선에 귀국시킬 것을 일본정부에 요청하도록 상소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켰다. 일본에 망명하였던 이두황 등은 즉시 귀국하였다.<sup>21)</sup> 순종은 9월 6일 곧바로 그 죄를 사면하였을 뿐만 아니라<sup>22)</sup> 동년 10월 8일 중추원 부찬의가 되었고 1908년 1월 22일에는 전라북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sup>23)</sup> 이후 전라북도 의병 탄압에 진력하였으며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정부에 그에 관한 자세한 관한 보고를 하였는데, 이 보고서 등은 당시 전라북도 의병활동 연구에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910년 일본에 의한 한일병탄이 이루어지자 이두황은 전라북도 장관으로 임명되어

20) 『조선왕조실록 고종 34권』, 1896. 2. 11(양)

21) 『매천야록』 제5권.

22) 『조선왕조실록 순종 1권, 즉위년』, 1907. 9. 6(양) ; 「罪名蕩滌」, 1907. 9. 9자, 『황성신문』.

23) 『조선왕조실록 순종 2권』, 1908. 1. 22(양)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1916년 이후 3월 10경까지 그 직위에 있었다.<sup>24)</sup> 1916년 일본 정부로부터 훈3등 서보장을 서훈 받았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 있다.

#### 4. 조희연(趙羲淵)

조희연(趙羲淵. 1856. 5. 26 ~ 1915)의 본관은 평양으로 자는 심원, 호는 기원이다. 좌참찬 存赫의 아들로 태어났다. 1874년(고종 11) 9월 무과에 급제하여 1883년 機器局委員으로 임명받았다.<sup>25)</sup> 1887년 12월 7일 기기국봉변을 임명받았다.<sup>26)</sup> 1887년 병기 시찰 및 무역업무를 겸하여 상해, 홍콩 등지를 돌아보고 오는 길에 일본의 오사카(大阪), 도쿄 등에 가서 砲兵工廠을 견학하기도 하였다.<sup>27)</sup> 1888년 9월 12일에는 러시아 황족 알렉시 알렉산드로비치가 군함으로 인천에 도착하였을 때 고종은 조희연으로 하여금 인천에 영접하게 하였다.<sup>28)</sup> 1891년 6월 21일 광무총국의 계에 의하여 창원부사 조희연은 慶尙道鑛務監理가 되었고, 1893년 7월 27일 기기국회변으로 임명받았다.<sup>29)</sup>

1894년 4월 5일 상해로부터 김옥균의 사신과 홍종우를 태운 기선이 4월 6일 오전 12시 인천에 도착할 것이라는 전보가 왕궁에 도달하자 고종은 홍종우가 7, 8년 전에 조희연의 식객이었던 연고에 따라 특별히 기기국봉변

24) 이두황의 장례는 1916년 3월 13일 전주 다가공원에서 거행되었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 불교식으로 이루어졌다.(安藤精, 『조선사진화보(1주년 기념)』, 조선사진통신사. 1916. 4) 그의 묘는 전주 기린봉에 있다.

25) 『承政院日記』 고종 20. 5. 25 ; 『日省錄』 고종 20. 5. 25(양 6. 29).

26) 『承政院日記』 고종 20. 10. 23 ; 『日省錄』 고종 20. 10. 23(양 12. 7).

27) 조선역사정보통합시스템제공, 「조선역대인물자료」.(<http://www.koreanhistory.or.kr/>)

28)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고종 25. 8. 9, 8. 14 ; 『統緣日記 3』 1888. 8. 8, 8. 14.

29) 『承政院日記』 고종 28. 5. 15(양 6. 21) , 동 고종 30. 6. 15(양 7. 27) 등.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두황은 이미 도주한 상태여서 우범선, 정난교, 유혁로 등과 함께 체포령이 내려졌다.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명성황후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으로 도주하여 망명한 이두황을 비롯하여 유길준, 조희연, 장박, 권영진, 우범선, 이범래, 이진호 등에 대해 기일을 정해 놓고 잡아오라는 조령을 내렸다.<sup>20)</sup>

이두황은 부산으로 도주하여 조선 관리의 눈을 피해 일본인의 집에 숨어 있으면서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꿔 입은 후 1897년 1월 간신히 히로시마로 건너갔다. 그후 교토(京都)를 경유하여 도쿄(東京)로 가서 일본에 망명하였다. 이두황은 시간이 나는 대로 일본 각지를 유람하며 각 지역의 유지들과 교류하였는데, 이두황 등 망명자들에 대한 일본 거류비는 일본정부에서 제공하였다.

한편 우범선은 1903년 일본의 그레(吳)에서 고영근, 노원명 등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이를 기회로 이용직, 민영우, 이유인, 윤이병 등이 「만국공범회통」의 交還逃犯條와 干預內政條에 비추어 일본에 망명한 이두황 등을 조선에 귀국시킬 것을 일본정부에 요청하도록 상소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켰다. 일본에 망명하였던 이두황 등은 즉시 귀국하였다.<sup>21)</sup> 순종은 9월 6일 곧바로 그 죄를 사면하였을 뿐만 아니라<sup>22)</sup> 동년 10월 8일 중추원 부찬의가 되었고 1908년 1월 22일에는 전라북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sup>23)</sup> 이후 전라북도 의병 탄압에 진력하였으며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정부에 그에 관한 자세한 관한 보고를 하였는데, 이 보고서 등은 당시 전라북도 의병활동 연구에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910년 일본에 의한 한일병탄이 이루어지자 이두황은 전라북도 장관으로 임명되어

20) 『조선왕조실록 고종 34권』, 1896. 2. 11(양)

21) 『매천야록』 제5권.

22) 『조선왕조실록 순종 1권, 즉위년』, 1907. 9. 6(양) ; 「罪名蕩滌」, 1907. 9. 9자, 『황성신문』.

23) 『조선왕조실록 순종 2권』, 1908. 1. 22(양)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1916년 이후 3월 10경까지 그 직위에 있었다.<sup>24)</sup> 1916년 일본 정부로부터 훈3등 서보장을 서훈 받았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 있다.

#### 4. 조희연(趙羲淵)

조희연(趙羲淵. 1856. 5. 26 ~ 1915)의 본관은 평양으로 자는 심원, 호는 기원이다. 좌참찬 存赫의 아들로 태어났다. 1874년(고종 11) 9월 무과에 급제하여 1883년 機器局委員으로 임명받았다.<sup>25)</sup> 1887년 12월 7일 기기국봉변을 임명받았다.<sup>26)</sup> 1887년 병기 시찰 및 무역업무를 겸하여 상해, 홍콩 등지를 돌아보고 오는 길에 일본의 오사카(大阪), 도쿄 등에 가서 砲兵工廠을 견학하기도 하였다.<sup>27)</sup> 1888년 9월 12일에는 러시아 황족 알렉시 알렉산드로비치가 군함으로 인천에 도착하였을 때 고종은 조희연으로 하여금 인천에 영접하게 하였다.<sup>28)</sup> 1891년 6월 21일 광무총국의 계에 의하여 창원부사 조희연은 慶尙道鑛務監理가 되었고, 1893년 7월 27일 기기국회변으로 임명받았다.<sup>29)</sup>

1894년 4월 5일 상해로부터 김옥균의 시신과 홍종우를 태운 기선이 4월 6일 오전 12시 인천에 도착할 것이라는 전보가 왕궁에 도달하자 고종은 홍종우가 7, 8년 전에 조희연의 식객이었던 연고에 따라 특별히 기기국봉변

---

24) 이두황의 장례는 1916년 3월 13일 전주 다가공원에서 거행되었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 불교식으로 이루어졌다.(安藤精, 『조선사진화보(1주년 기념)』, 조선사진통신사. 1916. 4) 그의 묘는 전주 기린봉에 있다.

25) 『承政院日記』 고종 20. 5. 25 ; 『日省錄』 고종 20. 5. 25(양 6. 29).

26) 『承政院日記』 고종 20. 10. 23 ; 『日省錄』 고종 20. 10. 23(양 12. 7).

27) 조선역사정보통합시스템제공, 「조선역대인물자료」.(<http://www.koreanhistory.or.kr/>)

28)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고종 25. 8. 9, 8. 14 ; 『統緣日記 3』 1888. 8. 8, 8. 14.

29) 『承政院日記』 고종 28. 5. 15(양 6. 21) , 동 고종 30. 6. 15(양 7. 27) 등.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두황은 이미 도주한 상태여서 우범선, 정난교, 유혁로 등과 함께 체포령이 내려졌다.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명성황후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으로 도주하여 망명한 이두황을 비롯하여 유길준, 조희연, 장박, 권영진, 우범선, 이범래, 이진호 등에 대해 기일을 정해 놓고 잡아오라는 조령을 내렸다.<sup>20)</sup>

이두황은 부산으로 도주하여 조선 관리의 눈을 피해 일본인의 집에 숨어 있으면서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꿔 입은 후 1897년 1월 간신히 히로시마로 건너갔다. 그후 교토(京都)를 경유하여 도쿄(東京)로 가서 일본에 망명하였다. 이두황은 시간이 나는 대로 일본 각지를 유람하며 각 지역의 유지들과 교류하였는데. 이두황 등 망명자들에 대한 일본 거류비는 일본정부에서 제공하였다.

한편 우범선은 1903년 일본의 그레(吳)에서 고영근, 노원명 등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이를 기회로 이용직, 민영우, 이유인, 윤이병 등이 「만국공범회통」의 交還逃犯條와 干預內政條에 비추어 일본에 망명한 이두황 등을 조선에 귀국시킬 것을 일본정부에 요청하도록 상소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켰다. 일본에 망명하였던 이두황 등은 즉시 귀국하였다.<sup>21)</sup> 순종은 9월 6일 곧바로 그 죄를 사면하였을 뿐만 아니라<sup>22)</sup> 동년 10월 8일 중추원 부찬의가 되었고 1908년 1월 22일에는 전라북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sup>23)</sup> 이후 전라북도 의병 탄압에 진력하였으며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정부에 그에 관한 자세한 관한 보고를 하였는데, 이 보고서 등은 당시 전라북도 의병활동 연구에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910년 일본에 의한 한일병탄이 이루어지자 이두황은 전라북도 장관으로 임명되어

20) 『조선왕조실록 고종 34권』, 1896. 2. 11(양)

21) 『매천야록』 제5권.

22) 『조선왕조실록 순종 1권, 즉위년』, 1907. 9. 6(양) ; 『罪名蕩滌』, 1907. 9. 9자, 『황성신문』.

23) 『조선왕조실록 순종 2권』, 1908. 1. 22(양)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1916년 이후 3월 10경까지 그 직위에 있었다.<sup>24)</sup> 1916년 일본 정부로부터 훈3등 서보장을 서훈 받았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 있다.

#### 4. 조희연(趙羲淵)

조희연(趙羲淵. 1856. 5. 26 ~ 1915)의 본관은 평양으로 자는 심원, 호는 기원이다. 좌참찬 存赫의 아들로 태어났다. 1874년(고종 11) 9월 무과에 급제하여 1883년 機器局委員으로 임명받았다.<sup>25)</sup> 1887년 12월 7일 기기국봉변을 임명받았다.<sup>26)</sup> 1887년 병기 시찰 및 무역업무를 겸하여 상해, 홍콩 등지를 돌아보고 오는 길에 일본의 오사카(大阪), 도쿄 등에 가서 砲兵工廠을 견학하기도 하였다.<sup>27)</sup> 1888년 9월 12일에는 러시아 황족 알렉시 알렉산드로비치가 군함으로 인천에 도착하였을 때 고종은 조희연으로 하여금 인천에 영접하게 하였다.<sup>28)</sup> 1891년 6월 21일 광무총국의 계에 의하여 창원부사 조희연은 慶尙道鑛務監理가 되었고, 1893년 7월 27일 기기국회변으로 임명받았다.<sup>29)</sup>

1894년 4월 5일 상해로부터 김옥균의 시신과 홍종우를 태운 기선이 4월 6일 오전 12시 인천에 도착할 것이라는 전보가 왕궁에 도달하자 고종은 홍종우가 7, 8년 전에 조희연의 식객이었던 연고에 따라 특별히 기기국봉변

24) 이두황의 장례는 1916년 3월 13일 전주 다가공원에서 거행되었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 불교식으로 이루어졌다.(安藤精, 『조선사진화보(1주년 기념)』, 조선사진통신사. 1916. 4) 그의 묘는 전주 기린봉에 있다.

25) 『承政院日記』 고종 20. 5. 25 ; 『日省錄』 고종 20. 5. 25(양 6. 29).

26) 『承政院日記』 고종 20. 10. 23 ; 『日省錄』 고종 20. 10. 23(양 12. 7).

27) 조선역사정보통합시스템제공, 「조선역대인물자료」.(<http://www.koreanhistory.or.kr/>)

28)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고종 25. 8. 9, 8. 14 ; 『統緣日記 3』 1888. 8. 8, 8. 14.

29) 『承政院日記』 고종 28. 5. 15(양 6. 21) , 동 고종 30. 6. 15(양 7. 27) 등.

조희연을 인천에 파견하여 맞이하게 하였다. 조희연은 금부도사 1명, 隸屬 8명, 좌우포도청의 포교 24명, 포졸 약간 명을 인솔하여 4월 5일 인천으로 출발하였다. 동년 6월 28일 조희연은 한성부좌윤으로 임명받았다.<sup>30)</sup> 동월 동학농민군의 기세를 두려워하여 민씨 세력이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려 할 때 조희연은 “청병이 우리나라에 오면 東亞의 소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열강의 간섭이 심해져 나라의 기초가 위태롭게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동학농민군 초토사 홍계훈, 양호순변사 이원희 등의 출진에 따른 군량 등 제반물자를 보급, 준비하였다.<sup>31)</sup>

동년 7월 23일 일본군의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조선의 왕궁이 점령되고 곧이어 일본 특명전권대사 오도리 케스케(大鳥圭介)의 강권으로 대원군이 입궐한 것을 전후하여 조희연, 김가진, 안경수, 유길준 등 친일세력 10여 명이 입궐하였다.<sup>32)</sup> 이날 대원군이 입궐을 주저하자 일본대사관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 서기관은 몰래 사람을 조희연에게 보내어 칙사를 대원군에게 보내어 속히 입궐하도록 하였다. 결국 대원군은 고종으로부터 입궐하라는 칙어를 받고 입궐하였다. 7월 23일 이후 일본군이 계속 왕궁을 수비하고 궁문 출입을 감독하여 일본 공사관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sup>33)</sup>

7월 24일 친일내각인 제1차 김홍집내각이 조직되자 조희연은 壯衛使로 임명받았다가 동월 27일 좌변포도대장이 되었으며<sup>34)</sup> 9월에는 군무대신서리가 되었다. 12월 17일에 새로이 조직된 제2차 김홍집 내각 때는 군무대신이 되었다.<sup>35)</sup>

1894년 9월 19일 조희연은 일본공사 오도리에게 일본군의 평양전투 승리를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냈고, 동년 12월 28일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전봉준

30) 『承政院日記』 고종 31. 5. 25(양 6. 28) 등.

31) 조선역사정보통합시스템제공, 「조선역대인물자료」. (<http://www.koreanhistory.or.kr/>)

32) 『東學亂記錄 上』 갑오실기 6. 21(양 7. 23) 등.

33) 같은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4) 『承政院日記』 고종 31. 6. 22(양 7. 24), 동 고종 31. 6. 25(양 7. 27).

35) 같은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이 체포되자 그 내용을 일본공사 이노우에 에게 보고하였다.<sup>36)</sup> 1895년 3월 중순경 일본대사관의 권유로 조희연 외 15명이 조선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군 위문을 겸하여 중국 대련으로 출발하였다.<sup>37)</sup>

이와 같은 조희연의 친일적 활동은 항일운동가의 암살대상이 되고도 남았다. 1895년 5월 9일 일본의 재한 특명전권대사 이노우에 카오루가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츠(陸奥宗光)에게 보낸 「대원군과 이준용의 음모에 관한 전말 보고」에 의하면, 내무, 법무대신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조용승을 중심으로 한 고종주, 김국선, 한기석, 전재석 등은 친일당의 중심인물인 조희연, 유길준, 김홍집, 김학우, 김종한, 김가진, 이운용 등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또한 그들 계획 중에는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을 서울로 끌어들이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sup>38)</sup> 이것은 당시 항일운동가들이 일본군을 조선 땅에서 축출하는데 동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살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희연은 여전히 군부대신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권영진, 권동진 등과 함께 궁에 입궐하였다.

동년 11월 일본의 강압에 의한 단발령이 발령되자 전국에서 의병운동이 거세게 발생하였고 조선 내의 친일세력은 점차 약화하였다. 그와 반대로 친러세력이 득세하면서 중심인물 이범진 등에 의해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급거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였다. 3월 24일 고종은 명성황후 살해사건 주범자로 조희연, 유길준, 장박, 권영진, 우범선, 이범래 등을 즉시 체포하라는 조칙을 내렸다.<sup>39)</sup> 2월 13일에는 새로이 내각이 조직되었으며 동시에 고종은 게시문을 통하여 “역도 조희연, 우범선, 이두황, 이진호, 권영진 등을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즉시 목을 베어 바치고 너희들은 러시아 공

36)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등.

37)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등.

38) 국사편찬위원회, 「대원군과 이준용의 음모에 관한 전말 보고」,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39) 『承政院日記』 고종 32. 12. 28.

조희연을 인천에 파견하여 맞이하게 하였다. 조희연은 금부도사 1명, 隸屬 8명, 좌우포도청의 포교 24명, 포졸 약간 명을 인솔하여 4월 5일 인천으로 출발하였다. 동년 6월 28일 조희연은 한성부좌윤으로 임명받았다.<sup>30)</sup> 동월 동학농민군의 기세를 두려워하여 민씨 세력이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려 할 때 조희연은 “청병이 우리나라에 오면 東亞의 소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열강의 간섭이 심해져 나라의 기초가 위태롭게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동학농민군 초토사 홍계훈, 양호순변사 이원희 등의 출진에 따른 군량 등 제반물자를 보급, 준비하였다.<sup>31)</sup>

동년 7월 23일 일본군의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조선의 왕궁이 점령되고 곧이어 일본 특명전권대사 오도리 케스케(大鳥圭介)의 강권으로 대원군이 입궐한 것을 전후하여 조희연, 김가진, 안경수, 유길준 등 친일세력 10여 명이 입궐하였다.<sup>32)</sup> 이날 대원군이 입궐을 주저하자 일본대사관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 서기관은 몰래 사람을 조희연에게 보내어 칙사를 대원군에게 보내어 속히 입궐하도록 하였다. 결국 대원군은 고종으로부터 입궐하라는 칙어를 받고 입궐하였다. 7월 23일 이후 일본군이 계속 왕궁을 수비하고 궁문 출입을 감독하여 일본 공사관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sup>33)</sup>

7월 24일 친일내각인 제1차 김홍집내각이 조직되자 조희연은 壯衛使로 임명받았다가 동월 27일 좌변포도대장이 되었으며<sup>34)</sup> 9월에는 군무대신서리가 되었다. 12월 17일에 새로이 조직된 제2차 김홍집 내각 때는 군무대신이 되었다.<sup>35)</sup>

1894년 9월 19일 조희연은 일본공사 오도리에게 일본군의 평양전투 승리를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냈고, 동년 12월 28일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전봉준

30) 『承政院日記』 고종 31. 5. 25(양 6. 28) 등.

31) 조선역사정보통합시스템제공, 「조선역대인물자료」.(<http://www.koreanhistory.or.kr/>)

32) 『東學亂記錄 上』 갑오실기 6. 21(양 7. 23) 등.

33) 같은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4) 『承政院日記』 고종 31. 6. 22(양 7. 24), 동 고종 31. 6. 25(양 7. 27).

35) 같은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이 체포되자 그 내용을 일본공사 이노우에 에게 보고하였다.<sup>36)</sup> 1895년 3월 중순경 일본대사관의 권유로 조희연 외 15명이 조선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군 위문을 겸하여 중국 대련으로 출발하였다.<sup>37)</sup>

이와 같은 조희연의 친일적 활동은 항일운동가의 암살대상이 되고도 남았다. 1895년 5월 9일 일본의 재한 특명전권대사 이노우에 카오루가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츠(陸奥宗光)에게 보낸 「대원군과 이준용의 음모에 관한 전말 보고」에 의하면, 내무, 법무대신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조용승을 중심으로 한 고종주, 김국선, 한기석, 전재석 등은 친일당의 중심인물인 조희연, 유길준, 김홍집, 김학우, 김종한, 김가진, 이윤용 등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또한 그들 계획 중에는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을 서울로 끌어들이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sup>38)</sup> 이것은 당시 항일운동가들이 일본군을 조선 땅에서 축출하는데 동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살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희연은 여전히 군부대신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권영진, 권동진 등과 함께 궁에 입궐하였다.

동년 11월 일본의 강압에 의한 단발령이 발령되자 전국에서 의병운동이 거세게 발생하였고 조선 내의 친일세력은 점차 약화하였다. 그와 반대로 친러세력이 득세하면서 중심인물 이범진 등에 의해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급거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였다. 3월 24일 고종은 명성황후 살해사건 주범자로 조희연, 유길준, 장박, 권영진, 우범선, 이범래 등을 즉시 체포하라는 조칙을 내렸다.<sup>39)</sup> 2월 13일에는 새로이 내각이 조직되었으며 동시에 고종은 게시문을 통하여 “역도 조희연, 우범선, 이두황, 이진호, 권영진 등을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즉시 목을 베어 바치고 너희들은 러시아 공

36)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등.

37)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등.

38) 국사편찬위원회, 「대원군과 이준용의 음모에 관한 전말 보고」,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39) 『承政院日記』 고종 32. 12. 28.

사관으로 대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김홍집, 정병하 두 사람은 순검에게 체포되어 경무청에서 사형되어 경무청의 문 앞에 효수되었다. 같은 날 조희연은 명성황후 살해사건의 주범자 중 한명으로 지목되어 군부대신에서 면직되기도 하였는데,<sup>40)</sup> 유길준, 장박 등과 함께 일본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sup>41)</sup>

조희연 등이 일본에 망명하여 체류하고 있는 동안 일본의 해당지역 縣知事 등은 그들의 거동을 일일이 조사하여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고하였고 그 내용은 또 다시 재한 일본 특명전권대사 하라 다카시(原敬)에게 전달되었다.<sup>42)</sup> 조희연은 시간적 여유가 되는대로 고베(神戸), 가마쿠라(鎌倉), 도쿄 등을 주유하였고 1899년 6월에는 이두황 등과 함께 홋카이도(北海道)를 방문하였다. 이와 같이 이곳저곳을 주유하는 망명생활에 지쳐서인지 조희연은 1899년 6월 귀국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동년 6월 9일 재목포 일본영사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가 일본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보낸 「조희연·정란교 및 망명자 보호 요청」에 의하면, 조희연은 정란교와 함께 재목포 일본영사관에 목포의 일본인 거주지 거주를 희망하면서 안전보호를 요청한 것을 알 수 있다. 재목포 일본 영사는 “일본인 전속거류지가 아니며 가옥은 밖에서도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최근에는 국사범 등이 도주하여 목포 부근에 잠복해 있는 까닭에 조선 경찰도 그들의 안전을 기하기 어려우니 목포에 오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는 답을 하였다

한편, 1900년 6월 의정부의정 운용선, 경부대신 임시서리탁지부대신 조병식, 중추원의장 신기선 등은 각각 조희연, 유길준 등을 일본으로부터 불러들여 재판하여 징죄할 것을 상소하였다.<sup>43)</sup> 6월 22일 조선정부는 제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이하영을 통하여 일본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조희연, 이두황 등을 즉시 조선으로 보내어 체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오키는 “귀국인 이준용, 조희연, 유길준, 이두황, 권동

40) 앞의 책,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41) 『일성록』 고종 32. 12. 28 등.

42) 국사편찬위원회, 「朝鮮國亡命者 動靜報告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43) 『承政院日記』 광무 4년 5, 22, 5. 26.

진 및 조의견이 범죄가 있다고 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인도하라는 귀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이달 22일자 서한으로 조회하신 것은 잘 알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범죄였는지, 만약 정치상의 범죄라면 동인 등을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은 일반 국제 例規상 인정되지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상 이외의 범죄라고 하여도 피차 양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아무런 조약도 현존하지 않으므로 제국 정부는 귀국 정부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일입니다.”며 거절하였다.<sup>44)</sup>

이와 같은 조선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망명객 요청 및 그들에 대한 암살자 파견 등으로 일본정부는 고민하였다. 1901년, 하야시는 경무서리대신 겸 평리원장 이근택과 만나 망명자 처분 문제를 상의하여, 고종에게 먼저 망명자의 친족, 친우라는 이유로 망명한 자들에 대해 사면한 후에 서서히 조회연 등 5, 6인에 대하여 선후책을 강구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비밀리에 상소하였고, 그 안을 착수하려 하였다.<sup>45)</sup> 그러나 고종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조회연 등 망명자의 귀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04년 4월 14일 고종은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를 통하여 일본에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망명자 14명의 명단을 일본 외무대신에게 전하였는데 조회연, 유길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46)</sup>

1906년 3월 3일 일본의 의도 및 계획대로 조선을 일본의 완전한 지배하에 두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조선 초대 통감제도가 생겨났고 그 직위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임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점점 조회연 등에게 유리한 환경이 이루어졌지만 명성황후 시해사건 관련하여 그들은 쉽게 귀국하지 못하였다.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이 발생하자 7월 20일 일본은 강제로 고종을 양위시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회연 등은 8월 1일 일본 측에 절실히 귀국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였고, 그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귀국하지 못한 상황을 파악한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서 조회연

44)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등.

45)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7』 등.

46) 「在日韓國亡命者處分問題ニ關スル件」, 『日韓外交資料集成 5』 1904. 4. 14.

등 망명자에게 매달 주었던 생활비를 몇 달분인가를 모아 귀국 여비로 사용하게 하였다.<sup>47)</sup> 동년 8월15일 오전, 조희연 등 8명은 부산에 도착하였고, 8월 16일 서울에 들어갔다.<sup>48)</sup>

조희연 등이 이토 통감 등 일본의 위세를 등에 업고 귀국하여 서울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명성황후 살해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그들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조선의 관리가 먼저 나아가 순종에게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하세가와(長谷川) 통감대리 등이 직접 순종을 방문하여 간절히 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였다. 일본 측에 의해 등극한 순종은 결국 이두황, 이범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하세가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9월 6일 조희연 등은 특별사면 되었다.<sup>49)</sup> 특별사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07년 11월 19일 조희연은 궁내부 特進官으로 임명되었다.<sup>50)</sup> 1908년 11월에는 한흥농회 총재로 선임되었고, 1909년 3월 29일에는 표훈원총재 서척임관 1등으로 임명되었으며 1909년 9월에는 대한공업사 총재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sup>51)</sup> 1910년 4월 19일 순종은 조희연에게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였다.<sup>52)</sup> 동년 8월 한일병합 체결 후 조선귀족령에 의해 남작을 하사받았으며,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 중추고문으로 활동하다<sup>53)</sup> 1915년 사망하였다

조희연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들어 있다.

---

47) 「망명자 중 조희연 외 7, 8명 귀국 희망에 대한 조회」, 『통감부문서 3권』 1907. 8. 1.

48) 「일행 8인 지금 도착하다」, 『통감부문서 3권』, 1907. 8. 15 ; 『續陰晴史 하』 용희 1907. 8. 16.

49) 「亡命者 趙義淵 등 特赦奏請에 관한 業策 請訓 件」, 『통감부문서 3권』, 1907. 8. 24 ; 『承政院日記』 1907. 7. 29.

50) 『承政院日記』 용희 원년. 10. 17.

51) 「韓興農會, 총회 개최하여 趙義淵을 총재에 선임」, 1908. 11. 14, 『황성신문』 ; 규장각조선학연구원 제공(<http://e-kyujanggak.snu.ac.kr/>) ; 「대한공업회의 임시총회가」, 1909. 9. 7, 『대한매일신보』 등.

52) 『조선왕조실록』 순종 4권, 1910. 4. 19.

53) 조선역사정보통합시스템제공.(<http://www.koreanhistory.or.kr/>)



민군지도자 김개남을 생포하여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전봉준(全琫準)을 순창에서 생포하여 서울로 압송하였다.

이도재는 1895년 5월 지방관제개혁에 따라 전주부관찰사가 되었고, 동년 11월 27일 군부대신으로 임명받았다.<sup>57)</sup> 이어 곧 이어 학부대신으로 바뀌었으나 1896년 단발령 강행에 반대하여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하였다.<sup>58)</sup> 전국에서는 단발령에 반대하여 의병운동이 거국적으로 발생하였다. 러시아 대사관으로 파견한 고종은 선유조치를 발령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도재, 최익현, 신기선 등을 선유관원으로 파견하여 회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도재의 경우는 처음부터 선유원의 임명조차 거절하였다.<sup>59)</sup> 그러나 결국 1896년 東路宣諭使로 특파되어 강원도 지방 의병의 선유에 나섰고, 이어 중추원의관을 거쳐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 1898년 2월 3일 외부대신으로 임명받았는데 동년 3월 절영도를 러시아에 조차해준 외부대신서리 閔種默의 처사에 반대하여 사직하였다.

그 후 秘書院卿을 거쳐 농상공부대신이 되어 1898년 7월에 설치된 量地衙門의 총재관을 겸임하였으며 8월 8일 외부대신서리에 취임하였다. 동월 15일 크리인에게 외국인의 국내철도 부설 불허를 통고하였다. 10월에는 학부대신이 되어 비서원경을 겸하였고 池錫永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성의학교의 설치를 인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기관을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 이어 내부대신서리·궁내부특진관을 거쳐 景孝殿提調가 되었다. 1899년 법부대신이 되어 고등재판소재판장을 겸하고 이어 의정부찬정, 귀족원경을 거쳐 1900년 7월 평안북도관찰사에 발령받아 1902년 3월까지 역임하였다. 그 후 다시 侍從院卿, 궁내부특진관을 거쳐 11월에 홍문관학사를 거쳐 12월에 육군부장이 되어 철도원총재가 되었다.<sup>60)</sup>

57) 일본 외무성 소장, 「전보 경성 中村 중좌 1895. 11. 27 발송, 대본영 川上操六 중장 수신」, 『조선내란사건』.

58) 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제1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155~156쪽.

59) 같은 책, 189쪽.

60) 조선학중앙연구원 제공.

이도재는 1903년 초에 외부대신, 그해 말에는 평안북도관찰사로 임명받았다. 당시 압록강 너머 서간도 지역에는 1869년, 70년 그리고 1882년의 대흥년으로 이주하여 사는 이주민의 수가 8천 7백 22호, 3만 7천 명에 달하였는데, 서간도 서쪽 지역에는 중국인 왕씨 일가가 있어 월경 이주민들에 대해 많은 작폐를 일삼고 있었다. 이도재는 이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간도의 면(面)을 연강(沿江) 각 군에 배속시켜 관리하게 한 후 이주민에게 호세 30전을 상납하게 하였으며, 연안 각 군 민병을 모집하여 충의사를 조직하여 하여 이주민들을 보호하게 하였다.<sup>61)</sup>

1903년 2월 10일 당시 외부대신이었던 이도재는 미국공사 알렌에게 인천항 경인철도 정차장부지협약안에 동의한다고 통고하였다. 3월 31일에는 대한제국 이도재의 명의로 스위스 연방정부 대통령에게 보내는 만국적십자회의에 대한제국의 대표단을 의뢰한다는 문서가 보내졌다.

동년 4월 28일에는 영국관리공사에게 광산의 채굴권 청원 사절하였으며, 같은 날 龍岩浦에서 러시아인의 불법적인 토지 구매자 4-50명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5월 5일 일본공사에게 전라도 연안 측량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7월 30일에는 일본공사에게 경부철도회사의 남대문정차장 부지가 협정 범위를 위반하였다고 항의하였다. 동년 8월 4일에는 덴마크와의 통상조약 비준 전권대신이 되었다가 곧 전권대신으로 임명받았다.<sup>62)</sup>

1904년에는 충청남도관찰사를 거쳐 내부대신, 表勳院議定官을 역임하였고 다시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1905년 다시 내부대신으로 발령되었다. 경상북도, 그 후 평안남도, 충청남도 관찰사를 거쳐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sup>63)</sup> 동년 11월 17일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자 강분을 참지 못한 오강표(吳剛杓)라는 자가 일본군을 토벌할 것을 청하는 상소문을 지어 전라도관찰사 이도재에게 바치며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61)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제5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52~54쪽.

62) 조선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

63) 조선학중앙연구원 제공.

도재는 이를 거절하였다. 오강표는 비분을 참지 못하고 공주 명륜당에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목숨을 구하였다. 그러나 1910년 한일병합 후 절명사를 지어놓고 공주 강학루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sup>64)</sup>

1906년 6월 11일 광주관찰사로 있던 이도재는 최익현 의병장으로부터 “국가의 난을 해결해 나가자”는 편지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종의 선유조치를 전하며 해산을 중용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sup>65)</sup> 1906년 8월 그동안의 공적에 의하여 태극장을 서훈받았으며, 그후 장례원경·시종원경에 임명되었다.

1907년 6월 헤이그밀사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정부는 그 처리문제에 고심하였다. 결국 7월 10일 내각에서 “조선 내정에 관한 정권을 장악할 것을 희망 한다”는 내용의 「조선 황제의 밀사파견에 관련하여 묘의(廟議)결정의 대한 처리 방침 통보의 건」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전보로 보냈다. 그에 따라 7월 17일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각료들은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하였고 이를 강하게 거부한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의 의중을 타진하기 위하여 시종원경 이도재를 보내어 다음 날인 7월 18일 오후 4시 입궐할 것을 통달하였고, 고종은 한편으로 그날 밤에 박영효를 궁내부대신으로 임명하여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내각에 대한 준비를 하려 하였다. 그러나 박영효는 이토 히로부미 등의 압력을 받아 18일에 사임하였고 이완용이 그 자리를 겸하게 되었다.<sup>66)</sup> 8월 22일 이완용은 고종과 함께 행동을 취하고 있던 궁내부 대신 박영효, 시종원경 이도재, 원로 남정철 및 평소 불만스러웠던 군 관계 인물인 이갑, 어담, 이재덕, 이희두 등을 체포하였다.<sup>67)</sup> 동년 7월 22일 이도재는 박영효, 이갑, 어담 등과 고종 퇴위를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8년 1월 11일 서우학회와 한북학회가 통합된 서북학회

64)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243~244쪽.

65)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56쪽.

66)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429~432쪽.

67)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185쪽.

의 개회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도재는 서북학회의 총재로 선출되었다.<sup>68)</sup>

1909년 4월 이도재는 또 다시 내무대신으로 임명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sup>69)</sup> 동년 6월 23일 이도재는 김윤식과 함께 존립기간 50년 자본금 10만원의 농사조합소를 건립할 것을 발기하였다.<sup>70)</sup> 1909년 9월 22일 피질에 걸려 사망하였다.<sup>71)</sup>

이도재의 저서로는 『非章訓學存案』와 『全州府報告書』가 있다. 『非章訓學存案』은 1900년(光武 4)부터 1902년(光武 6)까지 평안북도 관찰사를 역임하던 이재도가 법부, 내부 등 각부 대신과 평리원 재판장 등에게 올린 각종 보고서와 관하 각 군수에게 내린 훈령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의 存案을 모아놓은 책이다. 『全州府報告書』는 1895년(고종 32) 7월에 전라도 관찰사 이재도가 법부의 훈령에 의거하여 올린 간단한 보고서로, 동학 농민군의 定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895년 6월에 법부에서는 전라도 관찰사에게 훈령을 보내 임피현에 거주하는 高長賢을 영흥에 定配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전주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장현은 1894년(고종 31) 7월에 임피현 남일면 상갈령리의 동학 접주로 40명의 동학군을 거느리고 농민전쟁에 참여하였다. 그 후 임피군에서 체포되어 전주부로 압송되고, 1895년 3월에 영흥에 정배되었다.<sup>72)</sup>

68) 조선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

69) 「내각변동설」, 1909. 4. 7, 『신한민보』.

70) 「농사조합소 설립」, 1909. 6. 23, 『신한민보』

71) 「이도재씨 졸서」, 1909. 10. 20, 『신한민보』

72) 조선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

◇ 제5주제 토론



◇ 제6주제

東學敎團과 (合同)一進會의  
일본 유학생 파견과 '斷指同盟'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 머리말
2. 손병희의 일본 '외유'와 유학생 파견
  - 1) '외유' 과정과 일본에서의 동향
  - 2) 동학교단과 유학생
3. (합동)일진회의 일본 유학생 파견
4. 단지동맹의 전말과 국내외 사회의 반향
  - 1) 단지동맹의 발단과 경과
  - 2) 단지동맹과 국내외의 반향
5. 맺음말



## 1. 머리말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 파견된 한국 유학생의 대부분은 官費留學生이었다. 1895년 제1차 파견 이후 1904년의 황실특파유학생과 1909년 학부 소관 유학생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1905년 11월의 ‘을사늑약’을 전후로 개별유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私費留學生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규모가 큰 유학생 단체들도 조직되어 단순한 친목위주의 성격에서 벗어나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도 두드러졌다. 사비유학생처럼 개별적인 유학의 성격 외에도 종교단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파견하는 이른바 ‘貸費留學生’도 적지 않았다.<sup>1)</sup> 특히 동학교단의 경우 농민전쟁 이후 정부의 탄압에 대응해 새로운 조직개편과 문명개화의 필요성에 따라 ‘外遊’ 중이던 義菴 孫秉熙의 주도로 일본유학이 이루어졌다. 또 1905년 12월 동학교단의 민회조직인 進步會가 一進會와 세력을 합쳐 (合同) 一進會가 성립된 후에도 다수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1907년 1월, 이들이 일본에 파견했던 유학생으로서 당시까지 남아있던 32명 중 21명이 왼손의 5번째 손가락을 잘라 血書와 함께 한국유학생 감독 韓致愈를 통해 한국 학부에 보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기에 단지동맹에 참여한 21명의 학생들과 나머지 11명의 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책임소재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단지동맹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이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사회적 반향은 어떠했는지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전모를

1) 유학생 전반에 대한 것이나 ‘貸費留學生’의 용어 사용은 韓詩俊, 1985 「韓末 日本 留學生에 관한 一考察」 『千寬宇先生選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를 참조하였다.

파악할 수 없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동학교단이나 一進會 측의 엇갈리는 기록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 민족종교로서의 명망이 있는 동학(천도교)과 친일을 기치로 내걸고 활동한 일진회의 대립이 원인 중이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단지동맹을 감행한 유학생들의 책임 소재가 알려지면서 국내외의 반향은 주로 일진회의 친일행적을 비판하는 데 집중되었다. 일본 유학생들은 '반일의식'의 표출이라는 맥락에서 일진회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에서 파견한 일본 유학생은 대략 1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동학교단은 1902년 3월과 1904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64명을, (합동)일진회 시기에도 30명 내외를 파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 이유는 이들이 파견한 유학생들의 행적을 위의 시기대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가 파견했다고 하는 각각의 유학생의 해당 시기를 염두에 두고 분석을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동학교단이 두 차례에 걸쳐 파견한 유학생의 규모가 대략 28명이라는 것과, (합동)일진회 시기에는 24명이라는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굳이 시기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또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究明하려 한 것은 손병희의 '外遊'와 관련한 것이다. 1901년 3월부터 1906년 1월까지 약 5년여를 일본에서 보낸 손병희의 행적은 자세하게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동학(천도교)과 손병희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나 개별 행적에 따라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sup>2)</sup> 필자는 이전의 글에서 짧게나마 이 시기 손병희의 행적을 단편적으로 다루기는 했지만,<sup>3)</sup> 이후에도 여전히 상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까지는 주로 『주한

2) 金昞宅, 1990 「韓末 東學教門의 政治改革思想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1990 「東學教團의 '甲辰開化運動'(1904~1906)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崔起榮, 1994 「韓末 東學의 天道敎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韓國學報』 76, 一志社 ; 黃善禧, 1996 『한국 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 동학천도교를 중심으로-』, 혜안 ; 曹圭泰, 2001 「일제의 한국강점과 東學系列의 변화」 『韓國史研究』 114, 韓國史研究會 ; 김정인, 2002 「孫秉熙의 文明開化路線과 3·1 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 이용창, 2001 「韓末 孫秉熙의 동향과 '天道敎團再建運動」 『中央史論』 15, 韓國中央史學會 ; 李庸昌, 2005 『東學天道敎團의 民會設立運動과 정치세력화 연구(1896~1906)』,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 제1장 제3절 '손병희의 日本에서의 동향과 정세인식' 참조.

일본공사관기록』이나 『일본외교문서』 등을 활용해 손병희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근래에 『韓國近代史料集成』 등의 자료에서 손병희의 행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sup>4)</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새로 제공되는 자료와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등을 활용해, 손병희의 행적을 일본에 체재 중이던 국사범들과의 관계, 그리고 귀국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sup>5)</sup> 이와 함께 단지동맹이 일어난 전후로 이들의 동향과 국내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되어 갔는지, 또 어느 정도의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는지 모금현황과 규모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사회적 반향이나 모금현황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는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에 집중 보도되었고, 『만세보』에도 일부가 확인된다. 일본에서의 반향은 각 유학생 단체가 발행한 『태극학보』·『대한유학생회학보』·『서우』·『대한홍학보』 등을 활용하였다.

끝으로 이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일진회의 교육사업과 함께 이들이 설립한 광무학교와 지방학교 등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시사와 도움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에 선구적인 성과를 거둔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의 여러 논문,<sup>6)</sup> 국내에는 통감부 시기 교육정책을 연구한 이계형이 일진회의 학교설립을 상세하게 다룬 논문이 있다.<sup>7)</sup>

4) 『한국근대사료집성』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사·수집한 국내외 한국근대사 관련 자료를 정리한 자료집이다. 이 중 손병희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수집한 外務省記録 중 『要視察韓國人舉動』(1886~1910)에 수록되어 있다.

5) 다만 내용의 비중에 비해서는 이번 발표의 주제나 내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없으므로 이후 좀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해 별도의 글로 발표하고자 한다.

6) 永島廣紀, 1995 「一進會の活動とその展開-特に東學·侍天教との相關をめぐって」 『年報朝鮮學』 5,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 나가시마 히로키, 1997 「일진회의 일어학교에 관한 고찰」 『한일관계사 연구』 7, 168~170쪽 ; 廣島永紀, 2001 「一進會立「光武學校」考」 『朝鮮學報』 第178輯, 朝鮮學會 등이 필자가 확인한 대표적인 글이다.

7) 李桂炯, 2006 「일진회의 학교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2. 손병희의 일본 '외유'와 유학생 파견

### 1) '외유' 과정과 일본에서의 동향

의암 손병희는 1901년 3월경 10년을 계획으로 선진된 문명과 외부 세계의 흐름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동학을 확고한 종교체계로 만들기 위해 '外遊'8)를 실행하였다. 직접적인 목적은 “…… 세계를 유람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양해하옵고 좋은 때를 기다려 좋은 인연으로 서로 만날 계획”이었다. 즉 자신의 외유가 '세계를 유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학의 보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과 교단재건을 위한 기회를 기다려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1901년 3월경부터 1906년 1월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 건너가 머무르는 과정은 대략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901.3~10)는 손병희가 동학교단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탄압을 피해 '외유'를 선택한 후 일본에서 거처를 마련하는 시기이다. 제2기(1901.10~1902.3)는 다시 국내로 돌아온 손병희가 교단조직을 재정비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시기이다. 제3기(1902.3~1906.1)는 일본에서 國事犯들과 모의

---

8) 대부분의 자료들은 당시 손병희의 外國行을 '遊覽' '歷探' '出遊' '外遊' 등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天道敎創建史』 제3편 義菴聖師編의 제6장은 '聖師의 外遊'로 되어 있다), 이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에는 '亡命'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학은 동학농민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손병희는 일본으로 간지 8개월 만에 귀국하여 6개월을 옮겨 다니면서 지낼 수 있었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 4년이 넘게 지내는 동안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망명자' 대상에 있지 않았다. 또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 정부에서 손병희를 견제하거나 그의 행동을 주목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1906년 1월 말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손병희는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환영 속에서 귀국행사를 치렀다. 한국 정부의 손병희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 또는 '방관적'인 태도는, 러일전쟁 이후 國事犯들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귀국을 용인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일진회를 둘러싼 고종과 손병희의 이해관계가 부합된 것이다. 손병희의 입장에서는 일진회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고종은 일본의 세력을 배경으로 정부와 황실을 위협하는 일진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 속에서 '모종의 협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조건이 어떠했더라도 손병희가 당초 국외로 가게 된 것은 외국의 형편을 돌아보기 위한 스스로의 '방향모색'이자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여타 '국사범'들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하여 교단재건을 위해 민회설립을 주도하고, 이를 통한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손병희는 일본으로 외유한 전체 5년여의 기간 중 위의 제2기 동안의 6개월을 제외하면 4년 8개월여를 일본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제3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1904년 3~4월경의 두 차례에 걸쳐 64명의 교인자제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교육시키는 한편 국내 교단재건운동에 힘썼던 것이다.

『요시찰한국인거동』과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이 주로 1904년 이후, 곧 손병희의 외유 기간 중 제3기의 후반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선 시기에 대해서는 교단 측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먼저 제1기에는 처음에 손병희가 의도했던 것은 미국으로의 ‘망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단 측의 자료만으로는 왜 미국으로 가려 했는지는 알 수 없을뿐더러 아무런 준비도 없이 10년을 작정하고 미국에 가려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손병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머무르게 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여겨진다.<sup>9)</sup> 곧 손병희는 원래 미국으로 가려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다. 손병희는 외유 준비과정에서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일본 측을 의식하여, 자신은 미국의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 ‘유람’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위촉된 교단 안정과 교세확장을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1기의 후반부와 제2기의 쏠 과정, 그리고 제3기의 초기에 대해 살펴보자. 이 시기는 일본에 있던 손병희가 상하이(上海)로 가게 된 이유와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교인 자제들을 데리고 다시 일본에 가서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

9) 손병희 등이 오사카에서 2만 원을 주고 미국으로 가는 배편을 구하려다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측의 탐문도 있었다(『駐韓日本公事館記録』 22, 421쪽, 「李祥憲ノ身元及舉動ニ關スル回申」(機密第85號, 1904.9.7)의 別紙 「李祥憲에 대한 探問書」). 다만 이 내용은 李祥憲에 대한 부정확한 조사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다.

1901년 4월경 趙東元이 오사카에 왔다가 손병희를 만나고 귀국한 후 別入侍 李昌九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창구는 손병희에게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귀국을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칙령으로 소환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자 손병희는 동생 손병흠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피신했다가 일본으로 돌아와 이름을 李祥憲으로, 號를 笑笑라 하고,<sup>10)</sup> 國事犯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던 權東鎭·吳世昌·趙羲淵·李軫鎬·趙羲聞·朴泳孝 등과 자주 접촉하면서 지냈다. 이해 10월경 元山 → 12월 果川 → 1902년 1월에는 서울 西江으로 거처를 옮겼다. 같은 해 3월에 교인 자체 24명을 나라현(奈良縣)을 거쳐 교토로 데려갔다.<sup>11)</sup>

이것이 1901년 4월경부터 1902년 6월경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손병희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다. 정리하면 1901년 4월경에는 한국 정부 측이 오사카에 손병희가 머물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 망명한 국사범들과는 달리 자유롭게 한국·청국·일본을 오갈 수 있었다는 것, 일본에서는 1901년 3월에 나가사키→오사카, 1902년 3월에 나라, 6월 현재 교토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후의 행적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망명객들 중에서도 특히 조희연·권동진·오세창 등과 밀접하게 교류했다는 것 등이다.

그러면 손병희가 상하이로 가게끔 빌미를 제공한 조동원과 이창구는 어떤 인물인가?

일본 측 탐문 자료에 의하면 조동원의 본명은 趙翹이며 한국 軍部の 물품을 대기 위해 일본을 왕래했지만 사실은 황실의 밀명을 받아 망명자들의 동향을 조사해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며, 고영근이 우범선을 암살한 사건의 주모자로 이후 황실로부터 수 만 원의 돈을 받고 육군 副尉로 승진

10) 손병희는 일본 체제 중 여러 이름을 썼다. 주로 이상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식 이름은 川上又次(『要視察韓國人舉動』 3, 「韓人李祥憲動靜」(甲秘第157號, 1904.7.20) ; 李光洙, 「天道教大領 鄭廣朝 縱橫觀」 『東光』 제19호(1931.2), 15쪽)으로 알려져 있으나, 渡邊又次(『要視察韓國人舉動』 3, 「韓人ニ關スル件 [鄭鎭弘·李軫鎬·趙羲聞·李祥憲·李周伯 등의 動靜]」(甲秘第129號, 1905.5.8))라는 이름도 썼다. 또 일본 측의 탐문자료에는 본명이 李圭完·孫時秉 등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일본 측의 잘못된 탐문에 의한 것이다.

11) 손병희와 동학교단의 제1차 유학생 파견, 그리고 제3기인 1904년 3~4월경의 제2차 유학생 파견 등에 대해서는 '동학교단과 유학생'에서 다루기로 한다.

했다는 것이다.<sup>12)</sup> 시기는 1904년 8월 초인데 이미 이상헌·이용구와 조동원은 매우 가까운 관계로 자주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또 다른 보고에는 조동원이 1901년 3월 仁川에서 효고현(兵庫縣)을 거쳐 오사카로 출발했다는 내용도 확인되며,<sup>13)</sup> 1903년 9월 말 배를 타고 고베(神戸)에 도착한 조동원이 자객 혐의를 받고 고베경찰서에서 순사를 보내 감시 중이라고 하였다.<sup>14)</sup>

교단 측 자료에도 손병희가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러시아세력을 驅逐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1903년 8월경 교단의 두목 朴寅浩·李鍾勳·洪秉箕 등이 고베항에 도착했는데 같은 배에 탄 조동원이 일본 측의 의심을 받아 모두 내리지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특히 위의 내용은 이용구와 함께 손병희의 傳令 역할을 하던 동생 손병흠이 일본으로 가던 중 1903년 8월 3일 부산에서 病死한 직후였다. 이로써 손병희가 계획하던 제1단계의 교단재건운동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계획을 도모하던 시기와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1903년 8~9월경에는 조동원이 손병흠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게 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다음으로 이창구와 관련하여 교단 측 자료에는 別入侍·嬖臣이라고 하여 고종 신임이 매우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창구는 손병희에게 편지를 보내 귀국을 종용한 직후인 1901년 9월에 평양진위 4대 대대장으로 있으면서 表勳院 총재 閔泳煥의 上奏로 勳4等 從2品에 봉해졌다.<sup>15)</sup> 또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1902~1903년 시기에는 친러파인 李根澤(경위원 총관), 閔致憲(궁내부 특진관), 權鍾錫(홍문관 경연관 겸 시종원 서연관) 등의 일파

12) 『要視察韓國人舉動』 3, 「韓人金士俊ノ性行其他取調方ニ關シ安立警視總監ヘ回答ノ件」(機密第19九號, 1904.8.4).

13) 『要視察韓國人舉動』 3, 「外國人來往 [趙翹 및 淸國人 唐才質의 神戸 滯留]」(兵發秘第161號, 1901.3.16).

14) 『大阪毎日新聞』 1903년 9월 26일 2면 「尹孝定の退去」, 10월 1일 5면 「韓客趙翹」.

15) 曹圭泰, 2001 「일제의 한국강점과 東學系列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189쪽. 조규태는 일본 측 자료를 이용하면서 시기를 혼동한 것 같다. 교단 측 자료에는 조동원이 이창구에게 손병희가 오사카에 머물고 있다고 알린 것은 1901년 4월 이후다. 그런데 일본 측 조사 보고(각주 16)에 이근택·민치현·권중석·이창구 등이 일본에 있던 엄달환·천응성·이하중 등과의 관계와 손병희의 주선으로 이들을 불러들인 시기는 1902년 또는 1903년이기 때문이다.

로서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sup>16)</sup> 그러면서 손병희의 주선으로 일본에 있던 嚴達煥·千應聖·李夏鍾을 불러 들여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손병희와 조동원·이창구 등의 행적과 관련하여 일본 측이 정작 탐문하려 했던 것은 국사범들과 한국 정부의 관계, 특히 趙義淵과 한국 정부 내 친러파들과의 관계였다.<sup>17)</sup> 곧 일본 정부는 손병희와 러시아 및 친러 세력의 관계를 통해 국사범인 조희연이 한국 정부에 자신의 세력을 부식하여 고종의 신뢰를 얻어 귀국하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조희연은 당시 쟁쟁한 ‘日本黨’의 한 사람이자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을 위해 주선한 공로가 컸던’ 인물이었다.<sup>18)</sup> 이러한 관계로 일본에서 조희연과 가까워진 엄달환·이하종 등이 귀국 후 고종에게 조희연은 결코 악의가 없는 인물이라고 보고하였고, 이로 인해 고종이 조희연을 사면시키려 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손병희는 일본에 체재하면서 조희연을 통해 권동진·오세창 등과 자주 어울렸는데, 1901년 3월 처음 일본에 도착해 오사카에 머물고 있을 때 조희연을 만났다. 조희연은 부유한 이상현으로 행세하던 손병희에게 千應聖을 접근시켜 인연을 맺었다. 이러한 만남 중에 권동진·오세창 등과의 관계도 형성되면서 손병희는 박영효 일파보다는 조희연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조희연·권동진·오세창은 1904년 이전부터 이상현=손병희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권동진은 『동아일보』에 게재한 회고담에서 자신들은 적어도 1904년 이전부터 이상현이 손병희임을 알았다는 것을 솔직한 바 있고, 손병희도 이후 3·1운동 관련 재판에서 도쿄에서 이들을 만나 동학에 入敎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망명자들이 손병희와 의기투합하게 된 것은 서로의 출신은 다르지만 현실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同病相憐의 입장이

16)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7, 150~154, 「亡命者趙義淵等企劃ノ件」(機密送第62號, 1902.9.13)·「嚴達煥 등의 歸國活動 報告書」(1902.10.4)·「亡命者趙義淵等企劃ノ件」(機密第119號, 1903.10.7). 다만 시기가 앞의 자료에는 1903년 중, 뒤의 두 자료에는 각각 1902년 3월과 7월의 정황인데 서로 맞지 않는다.

17) 『要視察韓國人舉動』 3, 「李祥憲에 대한 情報 照會 依頼」(甲秘第194號, 1904.8.19).

18) 細井肇, 1910 「雍雍にる溫容愛すべさ 趙義淵」 『現代漢城の風雲と名士』, 日韓書房, 86-89쪽.

었고, 손병희 또한 장차 망명객들을 중심으로 정치변혁이 일어나게 되면 종교적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sup>19)</sup>

손병희는 1906년 1월 25일 오전 부산에 도착해, 1월 28일 남대문 역에 도착하였다. 일본 도쿄를 출발해 한국의 부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월 20일 (도쿄에서) 新橋 → 1월 21일 오사카 → 1월 22일 고베·히로시마(廣島) → 1월 23일 야마구치현(山口縣) 시모노세키(下關·馬關), 1월 24일 시모노세키에서 관부연락선 對馬丸으로 귀국 길에 오름 → 1월 25일 부산 → 1월 26일 대전<sup>20)</sup> → 1월 27일 대구 → 1월 28일 오후 남대문역 도착

이렇게 하여 손병희는 1월 28일 오후 1~2시경 마중 나온 4000~5000명의 환영을 받으며 남대문 역에 도착하였다. 수행자는 50~60명으로 손병희 등 일행은 인력거를 타고 南署 廣通坊 上茶洞 2統 10戶의 손병희 자택으로 들어갔다.

당시 권동진·오세창 등 국사범들에 대한 귀국은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고종을 비롯한 한국 정부 측과 어떤 협상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손병희와 고종을 비롯한 한국 정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일진회에 대한 견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sup>21)</sup> 손병희는 일본에 있으면서 민회를 조직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개선을 목적으로 교단체 건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進步會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면서 각 지역 진

19) 권동진씨의 감상, 「可驚할 果斷性: 日本亡命時代」 『天道教會月報』 임시호(1922.5), 26쪽.

20) 대전과 대구 모두 거쳐서 서울로 간 것인지, 대전과 대구가 혼동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자료에 따라 대전과 대구가 별개로 기록되어 있어 구분하였다.

21) 崔起榮, 1994 「韓末 東學의 天道敎의 개편에 관한 검토」 『韓國學報』 76, 一志社, 113~125쪽; 金旻宅, 1990 「韓末 東學敎門의 政治改革思想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93쪽.

보회 지회장들이 진보회장 이용구에게 일진회와 '합동'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용구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거친 후 일진회와 '합동'함으로써 손병희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合同)一進會는 동학교단의 조직체계를 토대로 전국적인 단체로 재정비되었다. 그러나 오지영의 지적처럼 세력이 커진 일진회에 참여한 교인들도 점차 입신양명을 앞세워 民瘼을 일으키게 되자 '동학=일진회=친일'이라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더욱이 1905년 11월 일진회가 외교권 위임을 청원하는 '일진회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교단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고종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인)의 비호를 받으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일진회가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일본에 있던 손병희와 모종의 밀약을 통해 일정한 타협을 이루고, 일부 국사범들의 귀국을 묵인하면서 동학(천도교) 세력을 이용해 일진회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sup>22)</sup>

## 2) 동학교단과 유학생

손병희는 일본에 외유하던 5년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동학교인 자제들을 일본에 유학시켰다고 한다. 1차 유학생은 1902년 3월 손병희가 동학교인 자제 24명을 직접 일본에 데리고 갔으며, 2차 유학생은 1904년 3~4월경에 동학교인 자제 40여 명을 일본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총 64명이라고 알려졌다. 교단 측은 두 차례에 걸쳐 64명을 일본에 유학시켰다고 하지만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그나마도 1차 유학생인지 2차 유학생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 동학교단이 파견한 일본 유학생의 실체에 대한 사실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먼저 앞서 살펴본 교단 측 자료에 의하면 1901년 10월경 손병희와 함께 상하이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元山으로 들어와 朴寅浩·金冀培를 관서지역,

22) 鄭喬, 1974 『大韓季年史』 下(隆熙 4年 庚戌 7月), 국사편찬위원회, 382쪽.

곧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 지역으로 보내 교인들에게 개화의 필요성을 알리게 하였다.<sup>23)</sup> 12월부터 果川에서 지내다가 1902년 1월에 서울 西江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家事는 鄭廣朝에게 맡겼다. 이어서 3월에는 주로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선발한 학생(또는 書生) 24명을 데리고 나라현으로 가서 일본어를 배우게 한 후, 6월에는 교토로 옮겨 관립중학교에 입학시켰다.<sup>24)</sup>

한편 1904년 2월 손병희는 러일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학중이던 모든 학생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자리에는 30여 명이 참석해 ‘한울에 맹세하고 서로 형제를 맺었다’고 하면서 이 중 金顯玖를 교단 측 유학생 감독에 임명했다고 한다. 1902년 3월에 ‘24명’을 데리고 일본에 갔다고 했으므로, 2년이 지난 1904년 2월 현재 동학교단이 파견한 1차 유학생은 ‘3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동학교단의 제2차 일본 유학생 파견은 제2단계의 교단재건운동이 시작되던 1904년 3~4월경에 손병희가 일본에서 국내 교단에 지시해 이루어졌다.<sup>25)</sup> 시기로 보면 2차 유학생 파견은 대동회 설립 논의가 중단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04년 2월 손병희는 러일전쟁 개전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교토부(京都府)를 통해 일본 육군성(또는 대장성)에 군사비 1만 원을 헌금하고, 이후에도 일본 적십자사에 3,000원을 기부하는 한편, 6월에는 참모본부의 우사카와 가즈마사(宇佐川一正)·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 한국 사정에 능통한 당국자 등과도 접촉하였다고 한다.<sup>26)</sup> 이것은 손병희의 러일전쟁에 대한 전망과

23) 1900년 전후 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 서북지역의 교인이 50만여에 달했다고 한다(康弼道, 1944 『東學道宗繹史』, 372~373쪽).

24) 『大阪毎日新聞』(1903년 11월 28일 1면 「京都の韓國人」)에는 이상헌이라는 자가 7~8월경 교토로 이사해 왔는데 “학생이라고 칭하는 20세부터 30세정도의 韓人 20여 명을 양성한다.”는 첩보가 있었다.

25) 교단재건운동에 대해서는 이용창, 2005 「東學教團의 민會設立運動과 進歩會」 『中央史論』 21, 韓國中央史學會 참조. 민회설립을 통한 제2단계의 교단재건운동은 2~3월경의 大同會를 시작으로 7월(양력 9월)의 中立會를 거쳐 8월(양력 10월)에는 전국 360여 개 지역에서 進歩會가 개최할 수 있었다. 1904년에 추진된 교단재건을 위한 민회설립운동은 3대 혁신운동 중 하나인 ‘甲辰開化革新運動’을 말한다.

2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441쪽, 「李祥憲의 身上調査依頼件」(機密送第10號, 1904.2.23)의 ‘別紙 2 京都府報告拔萃’ 및 375~377쪽, 「上件에 관한 忠章의 探查內容」(1904.9.29). 忠章은 千章

반드시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으로,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승전국의 자격으로 國權을 잡아 정치를 개혁하려 한 것이다. 곧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 교인 수 십 만을 동원하여 전쟁에 참여하면 일본이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일본과 밀약하여 러시아를 공격하면 '大革命'·'大改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손병희는 러일전쟁 직후 도쿄(東京)로 거처를 옮기고 3~4월경에 다시 유학생 '40여 명'을 추가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이 때 파견한 유학생의 전모도 1차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알려진 바 없기 때문에 1차와 2차 유학생의 구분은 분명하지 않다.

한편 일진회의 공식기록인 『원한국일진회역사』(1911.7)와 春園 李光洙의 회고류의 글에서도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의 유학생 파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원한국일진회역사』의 유학생 파견 전모에 대한 것으로, 후술하는 일본 유학생들의 '斷指同盟'과 관련해 일진회가 고종에게 보고한 전말 내용 중 일부이다.

“이전에 천도교에서 교인 30명을 일본 유학생을 파견해 손병희가 일본 동경에서 이들을 감독하였습니다. 이후 일진회 창립 후 회원 子弟 중 聰俊者 20여 명을 유학생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천도교와 일진회가 전후로 파견한 유학생은 모두 50여 명입니다. 작년(1906년-필자 주) 손병희가 귀국한 후 천도교에서 파견했던 유학생 중 20여 명이 차례로 還國하여, 현재(1907년 1월-필자 주) 남아있는 유학생 32명 중 7명은 천도교에서 파견한 유학생인데 그 갈래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sup>27)</sup>

여기에서 천도교라고 한 것은 1905년 12월 이전의 동학교단이고, 일진회

---

郁이다. '일본 적십자사에 1,000원을 기부한 일로 3월 13일 적십자사 사장으로부터 유공장을 받았다.'고 한다(『大阪毎日新聞』 1904년 3월 14일 1면 「赤十字社有功章授與」).

27) 『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四, 1907.1.14, 5쪽.

는 1904년 12월 이후 진보회와 일진회가 합동한 후의 이른바 ‘(合同)一進會’를 말한다. 그러므로 (합동)일진회에서 파견한 유학생의 경우 천도교인과 일진회원이 섞여 있음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위 인용문의 말미에도 일본에 남아 있는 32명의 유학생 중 7명이 동학(천도교) 교인이지만 누구누구인지, 또는 나머지 일진회원은 누구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동학교단에서 일본에 파견한 유학생이 1차·2차 구분 없이 총 ‘30명’이라는 것은 이광수가 1935년 8월호 『新人文學』에 게재한 「나의 40 반생기」에서도 확인된다.

“그때 천도교의 손의암 선생은 도쿄에 계시며 일본으로 유학생 30명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신문명을 수입하려는 그의 이상이었고 포부였겠지요. 그 다음으로 다시 유학생 9명을 뽑아 도쿄에 보내었는데 그 9명 중에 내가 한 사람……”<sup>28)</sup>

이라고 하여 손병희가 도쿄에서 교인자제 30명을 불러 유학시켰다는 것이다.

이광수가 말한 “그 때”의 시점은 손병희가 도쿄로 거처를 옮기고 유학생 40명을 불러들였다는 1904년 3~4월경 이후이고, “그 다음으로”의 시점은 자신이 일본에 처음 일본에 건너간 1905년 8월경을 말하는 것이다.<sup>29)</sup> 따라

28) 金允植, 1999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솔출판사, 141쪽에서 재인용. 김윤식은 이광수가 일본에 간 것은 1905년 여름(8월경)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광수는 光武 12년에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정광조를 처음 만났는데 당시에는 鄭昌世라는 이름을 썼으며 유학생이 60여 명이라고 하였다(李光洙, 「天道教大領 鄭廣朝 縱橫觀」 『東光』 제18호(1931.2), 15쪽). 광무 12년이면 1908년 인데 이것은 1905년의 오류이고, 유학생 60여 명이라고 한 것은 1905년 8월 이후의 시점에서 이전 동학교단에서 파견한 유학생과 (합동)일진회에서 파견한 유학생을 합친 수를 가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9) 이광수는 「나의 고백」에서 “내가 일본 도쿄에 간 것은 을사년의 여름 장마 때였는데”라고 하여 1905년 여름에 처음 일본에 간 것으로 회고하였다(김윤식, 앞의 책 1, 140쪽에서 재인용).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는 이광수가 말한 “그때”를 1905년으로 해석함으로써 ‘1904년 3월 동학교단의 제2차 유학생 파견과 1905년 일진회의 유학생 파견은 아무래도 동일한 파견을 가리키는

서 손병희가 도쿄에서 유학생 30명을 불러 들였다는 의미는 동학교단 측에서 일본에 파견한 유학생이 전후 30명이었으며, 이후 (합동)일진회 시기인 1905년 8월경에 자신(이광수)을 포함한 9명이 도쿄로 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동학교단 측이 구분한 두 차례의 일본 유학생 파견을 염두에 두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활용해 '30여 명'의 일본 유학생의 전모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교단 측 자료에 의거해 분류할 수 있는 1902년 3월 이후 1904년 3~4월 이전까지의 1차 유학생은 다음과 같다.

① 「본교력스」에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손병희가 학생들을 불러 혼시한 내용과 함께 이 자리에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면서 유학생 중 9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김창수(金昌洙) 김현구(金顯玖) 류기영(柳淇英) 리관영(李寬永) 리인숙(李仁淑) 리던홍(이진홍) 정광도(鄭廣朝) 최덕준(崔德濬) 황석교(黃錫翹)”<sup>30)</sup>

② 『天道教百年略史』에는 '1902년 3월에 손병희가 鄭廣朝·吳尙俊 등 학생 24명을 데려갔다'고 하였다.<sup>31)</sup> ①과 ②에는 정광조가 중복되므로 오상준만 합하면 10이다.

---

것'(永島廣紀, 1995 「一進會の活動とその展開-特に東學·侍天教との相關をめぐって」 『年報朝鮮學』 5,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66~67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1904년 3~4월경)와 “그다음”(1905년 여름)은 전혀 다른 시기이고, 동학교단 자체의 유학생 파견과 (통합)일진회의 유학생 파견은 별개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

30) 「본교력스」 『天道教會月報』 1915년 2월호, 19쪽(언문부). 「본교력스」에는 구어체의 한글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 필자가 확인 가능한 인물의 한자명을 ( )에 병기하였다.

31) 『天道教百年略史』(上), 332쪽.

③ 『천도교백년약사』와 『義菴孫秉熙先生傳記』<sup>32)</sup>에는 동학교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64명의 유학생을 파견했으며 이 중 10명의 이름만 확인된다고 하면서 ①과 중복되는 이관영·정광조·황석교 외에 다음의 7명이라고 하였다.

“金勝運·朴宗卿·白宗洽·徐允京·李光洙·張景洛·崔昌朝”

그런데 이광수(일본 유학 중에는 어렸을 때의 이름인 李寶鏡을 썼다)는 1905년 8월경에 유학한 것이 맞으므로 동학교단에서 파견한 유학생이 아니라 (합동)일진회 시기에 파견한 유학생이 맞다.<sup>33)</sup> 따라서 ③의 7명 중 이광수를 뺀 6명은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단 2차 유학생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④ 일본 유학생이 발간한 잡지 등을 조사해 2차 파견 이전에 일본에 유학한 동학교인 자제로 추정되는 인물 중 교토부립(京都府立) 제일중학교·제이중학교·尋常中學校 등에 다녔던 梁大卿·李善暻·李熙철·洪聖淵 4명을 확인하였다.<sup>34)</sup>

이렇게 하여 ①~④를 종합하면 1차 유학생으로 14명인데, 이 중 유기영은 교단 측 분류로 할 때 2차 유학생에 포함되므로 총 13명이 된다(후술).

다음으로 교단 측이 구분한 2차 유학생에 해당하는 인물을 살펴보자. 먼저 『천도교백년약사』와 『의암손병희선생전기』에서 언급했던 김승운·박종

32) 『義菴孫秉熙先生傳記』, 171쪽.

33) 이광수에 대해서는 김윤식, 앞의 책 1, 96~140쪽의 방대하고 치밀한 연구에 자세하다. 일진회와 관련된 일어학교에 대해서는 나가시마 히로키와 李桂炯의 연구에 자세하다.

34) 이계형은 위의 4명과 趙東元을 포함해 5명을 1차 시기의 유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다(이계형, 앞의 논문, 53쪽의 각주 25) 참조). 다만 조동원이 포함된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경·백종흡·서운경·장경락·최창조 등 6명이 있다.

또 일본 측 자료인 『요시찰한국인거동』에 유기영을 포함한 9명이 확인된다.

“한국인 이상현으로부터 學資를 얻어 오사카에 체재 중인 한국 학생 金顯奎·金尙淵·金在龍·金永錫·金有聲·辛錫永·李庸漢·高永相·柳基英 등 9명은 5월 19일 이상현의 초대에 응하여 교토로 와서 이날 밤 이상현 방에서 열린 향연에 참석하고 1박 후 20일 오사카로 돌아갔다. 이때 이상현은 이들을 위해 특별히 小宴을 베풀고 앞으로는 서로 간친을 통해 한 뜻으로 學事に 精勵하라는 뜻을 말하였다. 또 협의 끝에 매년 1회 當日인 음력 3월 4일을 기하여 간친회를 열기로 하였다.”<sup>35)</sup>

1904년 5월은 교단 측의 분류로 보면 2차 유학생에 해당한다. 이 중 柳基英은 앞의 「본교력스」에서 1차 유학생으로 분류한 柳淇英과 동일인으로 『요시찰한국인거동』의 오기이다. 이렇게 해서 두 자료를 통해 확인된 2차 유학생은 15명이다.

이광수(이보경)는 동학교단의 1차나 2차 유학생이 아니라 (합동)일진회 시기에 파견한 유학생이라는 것, 유기영은 1차 유학생이 아니라 2차 유학생으로 분류된다는 것 등에서 볼 때 동학교단이 1902년 3월에 1차 유학생 24명, 1904년 2~3월에 40여 명, 총 64명의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 『천도교백년약사』에서 1902년 3월, 곧 1차 유학생으로 ‘정광조·오상준 등 24명’이라고 한 것은 결정적인 오류이다. 정광조는 1905년 일본에 건너가 에도객사(江戸客舍)에서 공부하다가 도쿄 세이소쿠중학교(正則中學校)에서 1년간 수학한 후 제일고등학교(第一高等學校) 제1부 법과에 입학했으며

35) 『要視察韓國人舉動』 3, 「李祥憲의 留學生 招宴」(高甲第369號, 1904.5.21).

1년여 후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에 건너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전문부 정경과에 입학해 1910년에 졸업하였다.<sup>36)</sup> 앞서 이광수의 이야기로 보아도 정광조는 동학교단 시기에 보낸 유학생은 아닌 것이다(각주 28) 참조).

이와 같은 사례는 위의 3명 이외에도 있을 것이고, 후술하는 (합동)일진회에서 파견한 유학생 중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동학교단에서 일본에 파견한 유학생을 1차·2차로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1차 유학생 13명, 2차 유학생 15명, 총 28명으로 구분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전체를 1907년 1월 현재 남아 있는 유학생과 귀국한 유학생, 남아 있는 유학생 중 단지동맹 참여자 등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동학교단이 파견한 일본 유학생 28명의 분류(1902.3~1904.3)

##### ○ 귀국(20명, 1907년 1월 이전)

고영상·김상연·김승운·김영석·김유성·김재룡·김창수·김현구·김현규·박종경·신석영·오상준·유기영·이관영·이용한·이인숙·이진홍·정광조·최덕준·홍성연

##### ○ 유학 중이지만 단지동맹에 불참(1명, 1907년 1월 현재)

황석교

##### ○ 단지동맹 참여(7명, 1907년 1월 현재)

백종흡·서윤경·양대경·이선경·이희철·장경락·최창조

전체 28명 중 단지동맹에 참여한 유학생은 7명이다. 『원한국일진회역사』

36) 「人物評論」 『半島時論』 제2권 제4호(1918.4), 73쪽 ; 『東光』 제18호(1931.2) ; 『朝鮮思想家總觀』(三千里社, 1933.2), 20쪽 ; 『早稻田大學一覽』(早稻田大學, 1936.12.20), 173쪽.

에는 1907년 1월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32명 중 7명이 동학교단에서 파견한 유학생이라고 했으므로 황석교를 제외한 7명과 일치한다.<sup>37)</sup>

교단재건운동의 제2단계로 추진한 민회설립운동은 1904년 10월(양력) 진보회가 전국에서 개최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해 12월에는 진보회가 일진회와 결합해 (합동)일진회 성립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동학교단의 유학생 파견은 (합동)일진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동학교인과 일진회 회원의 자제들을 선발해 손병희가 관리하는 구조가 되었다(주로 일진회 회원이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손병희와 동학교단이 문명개화의 한 방편으로 실행했던 독자적인 일본 유학생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일진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손병희가 귀국한 이후 20여 명의 유학생들도 차례로 귀국하여 정작 동학교단이 파견했던 유학생은 10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06년 6월 이후부터는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이해 9월 천도교 내 일진회 핵심인물들이 黜敎되면서 천도교와 일진회는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일진회 회원 자제로서 일본에 파견된 유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도 손병희가 학비와 생활비가 중단한 이유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병희는 1906년 9월 이전부터 천도교에서 일진회를 분립시키기 위해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 중 하나는 천도교단이 독자적인 재정으로 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동)일진회가 주도하고 있던 재정권을 되찾는 것이었다. 이것은 손병희가 1906년 1월 귀국하기에 앞서 교무와 재정을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일진회 계열로 (합동)일진회의 재정을 맡고 있던 嚴柱東 대신, 일본에서 유학생들을 감독하던 金顯玖를 본국으로 보내 재정장부를 인계하도록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미 유학생 파견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905년 9월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합동)일진회의 위세도 높아져 각 지

---

37) 동학교단 파견 유학생 7명과 (합동)일진회가 파견한 유학생 14명, 곧 단지동맹에 참여한 21명에 대해서는 ‘3장 1절 단지동맹의 발단과 경과’에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다만 황석교를 포함해 동학교단에서 파견한 21명의 행적은 앞으로 추가로 작성할 것이다.

역에서 주로 일진회원들의 作弊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 일진회원들은 자신들이 “外人悵鬼”·“亡國賊”·“賣國奴”로 불린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였다(‘일진회선언서’). 이러한 폐해는 손병희가 귀국한 후에도 줄어들지 않아 손병희는 일진회에 대한 반감이 천도교와 일치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때문에 국내의 여론과 천도교는 ‘일진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가 일본에 유학생을 보내는 것보다는 국내의 사립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을 육성시키고, 이를 통해 외부에서 천도교와 ‘일진회’를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1906년 3월 이후 수십 개의 사립학교에 수십 원씩의 후원금을 제공하였고, 이후이기는 하지만 1909~1910년에는 同德女子義塾에 수백 원을 기부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던 普成學校에도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1910년 12월에는 천도교에서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소학교·중학교·전문학교를 인수하였다. 손병희와 천도교단이 교육 사업을 통해 민심을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노력은 이미 1906년 1월 귀국 전후로 준비되었던 것이다.

### 3. (합동)일진회의 일본 유학생 파견

1905년 2월 (합동)일진회는 의정부에 官紀振肅·行政整理·地方政治·國民教育·殖産興業 등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이 중 국민교육을 진흥하는 방법으로 ① 京鄕에 학교 증설, ② 교과서 편찬, ③ 외국교사 雇聘 등을 건의한 것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경향에 학교를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동)일진회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실제로 1905년 10월 현재 (합동)일진회에서 설립한 학교는 34개교, 학생 수 2,255명으로 1개 학교당 학생 수는

평균 50여 명이였다. 규모는 서울의 光武學校가 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安峽이 25명으로 가장 적었다.<sup>38)</sup>

---

38) 『皇城新聞』 1905년 10월 5일 잡보 「一進設校數」. 이계형은 앞의 논문에서 1906~1907년에 설립된 '일진회' 학교 5개교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하 일진회와 (합동)일진회의 일어학교에 대해서는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의 1995년, 1997년, 2001년의 논문. 또 이계형, 앞의 논문을 참조해 정리하였다.

<표> 일진회 설립 각 지역 학교와 학생 수(1904~1905)

|       |     |    |     |    |    |     |    |    |    |    |    |    |    |    |     |     |
|-------|-----|----|-----|----|----|-----|----|----|----|----|----|----|----|----|-----|-----|
| 서울·경기 | 서울  | 江華 |     |    |    |     |    |    |    |    |    |    |    |    |     | 2   |
| 학생 수  | 170 | 70 |     |    |    |     |    |    |    |    |    |    |    |    |     | 240 |
| 황해도   | 海州  | 載寧 | 信川  | 安岳 | 瑞興 | 鳳山  |    |    |    |    |    |    |    |    | 6   |     |
| 학생 수  | 114 | 60 | 70  | 55 | 40 | 42  |    |    |    |    |    |    |    |    | 381 |     |
| 평안북도  | 義州  | 江界 | 定州  | 龜城 | 龍川 | 宣川  | 寧邊 | 鐵山 |    |    |    |    |    |    |     | 8   |
| 학생 수  | 140 | 70 | 80  | 60 | 73 | 90  | 57 | 48 |    |    |    |    |    |    |     | 618 |
| 평안남도  | 安州  | 祥原 | 平壤  | 順安 | 江西 | 咸興  | 永興 | 高原 | 文川 | 安邊 | 利原 | 三水 | 甲山 | 端川 | 14  |     |
| 학생 수  | 60  | 35 | 130 | 46 | 35 | 120 | 80 | 75 | 55 | 36 | 70 | 36 | 38 | 40 | 856 |     |
| 경상남도  | 晋州  |    |     |    |    |     |    |    |    |    |    |    |    |    | 1   |     |
| 학생 수  | 35  |    |     |    |    |     |    |    |    |    |    |    |    |    | 35  |     |
| 강원도   | 伊川  | 安峽 | 金城  |    |    |     |    |    |    |    |    |    |    |    | 3   |     |
| 학생 수  | 70  | 25 | 30  |    |    |     |    |    |    |    |    |    |    |    | 125 |     |

(합동)일진회는 국민교육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문명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서울과 지방, 만주일대에도 학교를 세워 새로운 교육을 실시했는데 주로 일본어과목과 산술에 집중되었다.<sup>39)</sup> 다른 사립학교가 국어·한문·산술·地誌·역사 등을 가르친 것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군 원조를 위한 언어 습득 및 통역생 육성의 필요성과 늘어난 일본 이주자들과의 소통 때문이기도 하였다. (합동)일진회의 학교설립은 동학 大領 朴燦明이 세운 私塾을 인수해 일어학교로 개편한 후 1905년 5월경 소공동으로 이전하면서 개칭한 光武學校(교장 이용구, 감독 박찬명)가 대표적이다. 또 1909년 봄에는 별도로 漢城中學校를 설립했는데, 1910년 4월에 광무학교와 한성중학교를 통합해 광무중학교(교장 이용구, 감독 尹敬順)를 설립하였다.

광무학교는 (합동)일진회의 지방학교의 상급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기 위한 예비학교의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합동)일진회는 1905년 4월 한국 정부에 관비유학생 파견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1905년 여름에 광무학교 학생 중 이광수를 비롯하여 일본어에 능숙한 20대 초반의 학생 20여 명을 선발하여 일본에 보냈다고 한다.<sup>40)</sup> (합동)

39) 대한매일신보는 광무학교가 일본어만 가르쳐 자퇴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였다(『大韓每日申報』 1907년 1월 24일 잡보 「把盃一笑」).

일진회가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1905년 11월경에 광무학교의 학생 수는 14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06년 1월 손병희가 귀국하고 이해 9월에 천도교(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가 일진회 핵심 인물 100여 명을 黜敎하면서 1년 10개월여 동안 유지되었던 (합동)일진회 체제가, 천도교와 일진회(1906년 12월 일진회의 동학계열 종교조직으로 조직된 시천교 포함)로 분립되면서 일본 유학생 자금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앞서 양 측에서 일본에 파견한 유학생 중 귀국하지 않고 재학 중이던 32명의 학비와 생활비가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1907년 1월 5일에 이른바 ‘단지동맹’을 결행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천도교와 일진회 모두 비난을 받았다. 천도교와 일진회의 분립으로 양 측은 조직적·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유학생을 돌볼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합동)일진회가 일본에 유학생을 보낸 시기나 규모, 횟수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앞에서 인용했던 『원한국일진회역사』의 일부를 다시 정리해 전후 관계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1907년 1월 14일자로 ‘일진회’가 정부에 일본 유학생들의 ‘단지동맹’ 정황을 보고한 내용과 『황성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그 대강을 추정해보자.

#### ① 『원한국일진회역사』 관련 내용 요약

‘일진회 창립 후 회원 자제 중 聰俊者 20여 명을 유학생으로 파견하였다. 1907년 1월 현재 남아있는 유학생은 32명인데 이 중 7명은 동학교단에서 파견한 유학생이다.’

1장 2절의 ‘동학교단과 유학생’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학교단에서 파견한 유학생은 28명이었다. 그리고 이 중 8명이 남아 있다가 7명이 단지동맹에

40) 이계형, 앞의 논문, 52쪽. 이계형은 “1905년 가을”이라고 했지만 필자는 1905년 여름이 맞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고쳤다. 또 이들이 모두 광무학교 학생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숫자와 관련해서도 20여 명이 한꺼번에 간 것 같지는 않다. 앞서 이광수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면 1905년 여름(8월)에 이광수를 포함한 9명과 이외의 유학생은 별개로 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하였다. 또 1907년 1월 현재 남아 있는 유학생은 32명이므로 동학교단에서 파견했던 유학생 중 남아 있던 8명을 제외하면 24명이 되는데, 결국 이들이 (합동)일진회 시기에 파견한 유학생 중 일진회 회원의 자제들인 것이다.

② 『황성신문』 1906년 12월 18일 잡보 『學生의 乏資回國』 중 일부

“작년에 일진회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회원자제 중 총명하고 뜻있는 청년 60여 명을 택하여 일본 동경에 유학하게 한 것은 可謂 사회의 책임을 務盡한다 하겠으나 학비가 없어 60여 명 중 30여 명은 귀국하였고 지금까지 喫苦待哺하는 28명은 進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레 총대를 회장과 道主에게 보내 애걸하였으나 可否를 알려주지 않아 ……”

이 중 “작년에 일진회에서”라고 한 표현은 아마 당시 일진회로 통칭되는 (합동)일진회, 더 나아가서는 동학계열을 포함한 ‘일진회’일 것이다. 때문에 1906년 12월까지 이들이 일본에 파견한 유학생이 60여 명이라는 것이고, 이 중 30여 명이 학비가 없어 귀국하고 3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이광수도 처음 일본에 유학 가서 손병희의 집에서 정광조를 만났을 때를 회고하면서 당시 ‘천도교유학생 60여 명’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위의 두 자료와 이광수의 회고를 종합하면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가 일본에 파견한 유학생의 전체 규모는 60명 이상이다. 이 중 (합동)일진회 시기에는 20~30명 규모의 유학생을 파견했는데,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이었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학교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64명의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했다는 것도, 사실은 1906년 9월의 천도교와 일진회 분립 이전 시기까지 통칭 ‘일진회’로써 일본에 파견한 60여 명의 유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단지동맹’ 관련 내용을 보도한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 심지어 천도교의 기관지였던 『만세보』에도 ‘일진회 파견 유학생’, ‘천도교파견 유학생’ 등으로 통칭해서 불렀다. 따라서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에서 파견한 유학생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곧 (합동)일진회 이전 시기에 동학교단에서 파견한 일본 유학생의 규모는 20명 이상 최대 40명이고, (합동)일진회 시기에 파견한 일본 유학생은 주로 일진회 회원이나 광무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30여 명 내외가 되는 것이다.

『원한국일진회역사』에 1907년 1월 14일자로 일진회장 이용구 명의로 고종에게 제출된 ‘전말보고서’에는 유학생들에게 돈을 보내지 못해 미지급된 액수를 기록한 내역과 남아 있는 유학생 32명의 이름·거주지가 실려 있다. 또 21명의 단지학생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신보』와 일본 유학생들이 발간하는 잡지 등에도 이름·거주지·나이 등이 소개되고 있지만 서로 차이가 있다. 이 자료들 중 동학계열의 8명을 제외하고, (합동)일진회 시기 파견한 24명을 단지동맹 참여 여부로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합동)일진회가 파견한 일본 유학생 24명의 분류(1905.8~)

#### ○ 단지동맹 참여(14명, 1907년 1월 현재)

김운영·김창하·김치련·민재현·박윤철·안희정·유영희·이윤찬·장운룡·정이태·최충호·한문선·한문언·함준호

#### ○ 단지동맹 불참(10명, 1907년 1월 현재)

姜敬燁·安鼎夏·李寶鏡(李光洙)·李容璿·李應茂·張啓澤·張益淳·崔國鉉·崔元基·洪淳五<sup>41)</sup>

41) 각주 37)에서 언급했듯이 동학교단이 파견한 일본 유학생 중 단지동맹에 참여한 7명 외에 1907년 1월까지 남아 있던 황석교를 포함한 21명과, (합동)일진회에서 파견한 24명 중 단지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행적을 조사해 제시할 예정이다.

(합동)일진회 시기에 일본에 파견한 유학생 규모가 대략 24명이었던 것으로 일단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들이 전부인지는 알 수 없다. 『원한국일진회 역사』의 기록대로라면 “일진회 창립 후 회원 자체 총준자 20여 명”이 일본에 유학한 것인데 창립 후부터면 1904년 8월 이후가 된다. 그리고 이광수는 1905년 8월에 자신을 포함한 9명이 도쿄로 갔다고 했지만 나머지 8명은 알 수 없다. 당시 이광수는 일진회가 세운 학교, 곧 광무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갔다고 했으므로 (합동)일진회에서 파견한 유학생들은 모두 일진회 회원과 광무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기로 보면 (합동)일진회, 더 정확하게는 당시 일진회로 통칭되어 불리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정확하게 일진회 회원인지 동학교인인지는 개별 인물을 추적해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다. 다만 단지동맹을 결행한 21명의 학생들 중에는 동학교단에서 파견한 유학생 7명과 (합동)일진회에서 파견한 유학생 14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4. 단지동맹의 전말과 국내외 사회의 반향

##### 1) 단지동맹의 발단과 경과

1906년 12월 16일자 『황성신문』에는 (합동)일진회가 파견한 일본 유학생들 중 30여 명이 생활이 어려워 (합동)일진회 회장 이용구와 천도교 대도주 손병희에게 총대를 보내 자신들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도록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본 유학생 감독 韓致愈를 통해 일본 의무성이 밀린 하숙비와 귀국 비용을 부담하도록 약속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위의 기사는 일본에서 돌아온 누구인가로부터 듣고 작성한 기사인데 외

무성이 비용 부담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가 파견한 유학생을 언급한 유일한 기사이자 이들의 곤궁함을 국내에 처음으로 보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들의 동향은 한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해를 넘겨 1907년 1월 12일 같은 날짜의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만세보』에 (합동)일진회에서 파견한 유학생 중 崔昌祚 등 21명이 손가락을 잘라 혈서와 함께 보냈다<sup>42)</sup>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각 신문에 보도된 ‘단지동맹’의 전말은 일본 유학생감독 한치유가 이들이 감독부로 혈서로 작성한 請願書와 잘린 손가락을 보내와 이를 학부에 보고한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이 청원서를 보도한 신문기사 중 유학생 숫자는 앞서 살펴본 『원한국일진회역사』의 보고 내용 등과 거의 일치한다. 한치유는 이들의 밀린 생활비와 하숙비[月謝] 부채가 4,000여 원이나 되어 1906년 12월 30일 그동안 편의를 봐주던 칸다구(神田區) 連雀町 스즈키(鈴木八重)의 여관에서 쫓겨나 모두 유학생감독부로 몰려왔으며 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여기저기 부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이 학생들이 밀린 돈을 갚으라며 매일 감독부로 찾아오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또 ‘단지동맹’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血心으로 결의하여 졸업 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어도 돌아가지 않기로 단지동맹을 결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1월 중순에야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단지동맹이 1907년 1월 5일 오전 2시 30분에 결행되었다는 것과 ‘同盟人列名血書’의 全文, 그리고 이들의 명단과 거주지·나이 등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학생들이 발간한 잡지에는 1907년 2월호부터 사건 전말과 모금 관련 소식이 게재되었기 때문에 국내보다 늦게 알려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42) 『大韓每日申報』 1907년 1월 12일 잡보 「斫指呈願」, 1월 13일 잡보 「斫指呈願(續)」; 『皇城新聞』 1907년 1월 12일 잡보 「二十一學生의 斫指」; 『萬歲報』 1907년 1월 12일 잡보 「學生血書同盟」; 『大阪毎日新聞』 1907년 1월 18일 5면 「在京韓國學生의 窮境」. 한편 일제 측 탐문조사에도 1906년 12월 초부터 이러한 정황이 보고되었다(『統監府文書』 3(1998, 국사편찬위원회), 「一進會에서 派遣한 東京留學生의 學資金對策에 관한 件」(來電第69號, 1906.12.5) 및 「[留學生學資金 一部送金과 學生在留與否 留保 件]」(往電第37號, 1906.12.6); 『要視察韓國人舉動』 3, 「韓國留學生ニ關スル件 [崔錫夏 외 25名의 經濟的 困難]」(乙秘第25號, 1907.1.17).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썼다는 사건도 국내보다 빨리 알려졌다. 태극학회는 단지동맹이 발생한 다음 날인 1월 6일에 총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돕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자리에서 30원을 모아 총대 4명을 파견하였고, 7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각 신문에 의연금 모집 광고와 각 단체에 알리는 일과 학부에 上書하는 일 등을 의결하였다. 『대한매일신보』에도 일본 유학생 단체인 태극학회가 1월 8일부터 모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광고를 보도하였고, 1월 13일자에는 일본에 유학 중인 張膺震 등 11명이 태극학회 회원 명의로 학부대신에게 長書를 보내 이들을 구제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이들이 “만일 학업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하면 이것은 오히려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면서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썼다고 보도하였다. 장응진 등이 이들을 구제해 달라는 청원서를 학부대신에게 보내 국내에 도착하고 이를 보도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국내에 알려진 것보다는 일본 유학생들이 먼저 알았을 것은 분명하다.

1907년 1월 현재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가 파견했던 일본 유학생 중 32명이 남아 있었고, 이 중 21명이 단지동맹에 참여하였다. 동학교단이 파견한 유학생 28명 중 7명이, (합동)일진회 시기에 파견한 유학생 24명 중 14명이 단지동맹에 참여한 것이다.

<표> 단지동맹 유학생 조사(1907년 1월 현재)

|   | 이름  | 거주       | 나이 | 일본 학교              | 유학생단체   | 행적                 | 계열 |
|---|-----|----------|----|--------------------|---|--------------------|----|
| 1 | 金潤英 | 평북<br>선천 | 25 | 사립 日本醫學校 입학(07.12) | 태극학회·대한학회·대한홍학회 회원(07.5~09.4)   | 醫生 免許 취득<br>(15.2) | 일  |
| 2 | 金昌河 | 평북<br>가산 | 24 |                    | 태극학회·대한학회·대한홍학회 회원(07.7~09.4)   |                    | 일  |
| 3 | 金致鍊 | 평북<br>용천 | 20 |                    | 태극학회·대한학회 회원(06.12~08.4), 대한홍학회 회원 및 간사원(09.4), 『商學界』 편찬원 및 간사원(09.10)·토론후장(10.4)       |                    | 일  |
| 4 | 閔在賢 | 경기<br>파주 | 27 | 명치대학 입학(07.7~9)    | 태극학회·대한학회·대한홍학회 회원(07.4~09.7)   |                    | 일  |
| 5 | 朴允喆 | 평남<br>은산 | 24 |                    | 태극학회·대한학회 회원(07.6~08.4), 대한홍학회 회원 및 서기원(09.4)·출판부원(09.10)·사무원 피선(10.3), 대한홍학보 인쇄인(10.4) |                    | 일  |
| 6 | 白宗洽 | 평북<br>태천 | 21 |                    | 태극학회·대한학회·대한홍학회 회원(07.6~09.7)   |                    | 東  |

|    |              |          |            |  |  |   |   |
|----|--------------|----------|------------|--|--|---|---|
| 7  | 徐允京<br>(徐允卿) | 평북<br>의주 | 20         |  | 태극학회·대한학회·대한홍학회<br>회원(07.5~09.4)   |   | 東 |
| 8  | 安希貞          | 평남<br>은산 | 21<br>(22) | 日本工科學校 건축과 졸업(10.봄)  | 태극학회 회원(07.6), 대한학회 회원(08.4)<br>및 운동부(08.6), 대한홍학회 운동부(09.1~4)                   |   | 일 |
| 9  | 梁大卿          | 평남<br>순천 | 20<br>(24) | 경도부립제이중학교 보통과 입학<br>(03.2~), 明治大學 법률과 입학·<br>졸업(05.9~08.7) | 태극학회 회원(07.3), 대한학회 運動部員<br>(08.2) 및 특별 회원(08.10)                                | 귀국 후 法官養成所<br>助教授(08.7~9), 조<br>선총독부 판사<br>(14.10~19.1) | 東 |
| 10 | 劉永熙          | 서울       | 22<br>(27) | 畝産學校 졸업(09.3~4)  | 대한학회·대한홍학회 일반회원(08.11~09.4)  |   | 일 |
| 11 | 李善暉<br>(李善燦) | 황해<br>안악 | 22<br>(23) | 경도부립제이중학교 보통과 입<br>학(03.2~), 명치대학 법률과 입<br>학·졸업(05.9~08.7) | 태극학회·대한학회 회원(07.3~08.10)   | 귀국 후 법무 주사,<br>조선총독부 판사<br>(10.10~12.9)                 | 東 |
| 12 | 李允燦          | 평북<br>광산 | 19         | 조도전대학 입학(07.7~9)   | 태극학회 회원 및 査察員(06.11~07.9), 대<br>한학회 회원 및 간사원(08.4~6), 대한홍학<br>회 회원 및 토론부(09.4)   | 警部(11.6~9)  | 일 |
| 13 | 李熙澈<br>(李熙徹) | 평남<br>성천 | 26<br>(27) | 경도부립제이중학교 보통과 입<br>학(03.2~), 명치대학 법률과 입<br>학·졸업(05.9~08.7) | 태극학회 회원(06.11), 대한학회 討論部員<br>(08.2) 및 특별회원(08.10)                                | 조선총독부 판사<br>(10.10~11.3)                                | 東 |
| 14 | 張景洛          | 평북<br>의주 | 22         |  | 태극학회·대한학회·대한홍학회 회원(07.5~<br>09.7)  |   | 東 |
| 15 | 張雲龍          | 평북<br>정주 | 21         |  |  |   | 일 |
| 16 | 鄭利泰          | 평북<br>철산 | 20         | 일본樂學校 졸업(10.봄)   | 대한학회·대한홍학회 회원(08.4~09.7)   |   | 일 |
| 17 | 崔昌祚<br>(崔昌祚) | 평북<br>회천 | 28         | 中央大學 법과 3年級 우등생<br>(09.7)                                  | 대한학회 總務員(08.2) 및 評議員(08.6), 대<br>한홍학회 總務員(09.1~10) 및 規則改正委<br>員(09.5) 및 회장(10.4) | 조선총독부 판사<br>(17.4~20.9), 중추원<br>참의(33.6~36.6)           | 東 |
| 18 | 崔忠昊          | 평북<br>의주 | 20         |  | 태극학회·대한학회·대한홍학회 회원(07.6~<br>09.4)  |   | 일 |
| 19 | 韓文善          | 평북<br>의주 | 20         | 일본대학 사범부 입학(07.12월)  | 태극학회·대학학회 회원(07.5~08.4), 대한<br>홍학회 임시간사원(09.1)                                   | 경찰관통역생(12.6~<br>14.5)                                   | 일 |
| 20 | 韓文彦          | 평북<br>안주 | 23         |  | 대한학회·대한홍학회 회원(08.4~09.7)   | 달성군수(31.12~12)  | 일 |
| 21 | 咸俊灑<br>(咸俊浩) | 서울       | 22<br>(27) |  | 대한홍학회 회원(09.7)   |   | 일 |

자료: 『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四, 1907.1.14, 6~7쪽 ; 『梅泉野錄』 제5권, 光武 10년 丙午(1906년), '日本留學生의 學費補助' ; 『大韓每日申報』 1907년 1월 17일자 잡보 『斫指同盟』 ; 『皇城新聞』 1907년 2월 4일 寄書 ; 『太極學報』 제6호(1907.2), 51~53쪽, 「雜報: 悲壯하다 天道教學生」 ; 『大韓留學生會學報』 제1호(1907.3), 86~88쪽, 「學界彙報: 學生界의 一大慘報」 ; 『西友』 제4호(1907.3), 3~6쪽, 「喜悲」.

비고 : 한자 이름과 지역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학력·유학시기활동·경력은 일본 유학생단체가 발간한 잡지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이외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여러 자료를 활용해 작성하였다.

한편 단지동맹 사건을 전해들은 고종과 한국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일진회에 자세한 전말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합동)일진회는 학생의 수와 이름·나이·거주와 入送年月, 학비 지출, 중간에 학비를 보내지 않은 이유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보고하였다.<sup>43)</sup> 이에 1월 16일 侍從武官 李會臣이 고종의 명으로 일진회 사무실로 찾아가 특별히 經理院에서 우선 5,310원을 주도록 하여 당장 부족함을 해결하도록 하고, 1907년 1월부터 관비생으로 하여 아무런 지장 없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정부에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하였다.<sup>44)</sup> 그러나 1월 17일 시종무관 이회신이 다시 찾아와 어제 전달한 丙下錢과 관련하여 정부회의에서 학생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학부에서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전달하였다.

고종은 자신의 결정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다. 참정대신 朴齊純은 고종이 (합동)일진회에 5,000원을 하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고종에게 入奏한 후 돈을 회수하게 하였으며, 법무대신 李夏榮은 고종에게 “일본 유학생이 700여 명인데 단지한 학생들에게만 特下하시면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고 上奏하였다. 이에 고종은 직접 이 돈을 회수한 후 다시 정부에 1만 원을 하사하면서 官費·私費 유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정부 측의 논의는 고종이 하사한 1만 원 중에서 6,000원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나머지 4,000원은 서적비로 하며 또 단지동맹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정부가 매달 20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원한국일진회역사』에 기록된 단지동맹 학생 21명을 포함해 32명의 미지

| 계적중인 학교 | 인원  | 1개월 금액 | 비고   |
|---------|-----|--------|------|
| 고등학교생   | 1인  | 19圓    |      |
| 대학교생    | 5인  | 19환    | 3.8환 |
| 正則영어학교생 | 1인  | 18환    |      |
| 大成중학교생  | 22인 | 352환   | 16환  |

43) 『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四, 1907.1.14~1.17, 4~9쪽.

44)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이들 만 관비생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皇城新聞』 1907년 2월 1일 잡보 「是何言也」).

|         |     |      |                   |
|---------|-----|------|-------------------|
| 養蠶학교생   | 1인  | 18환  |                   |
| 專門豫備학교생 | 1인  | 16환  |                   |
| 醫學전문학교생 | 1인  | 18환  |                   |
| 합계      | 32인 | 460환 | 4,600환(460환×10개월) |

급 학자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 「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四, 1907.1.14~1.17, 5~6쪽.

비고 : 일진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1개월치 금액이 531환, 이를 10개월로 계산한 총액은 5,310환임.

그런데 위의 내용은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이 내역에는 32명의 1개월 합계를 531환으로 계산하여 10개월치 5,310환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의 <표>대로 계산할 때 1개월 합계는 460환이며, 따라서 10개월의 총액도 4,600환이 맞다. 둘째. 위 내역에는 3월부터 10개월간 미지급했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신문보도 등의 자료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라고 하였다. 6개월인 경우는 2,760원이다. 셋째. 각각의 계산을 틀리게 합한 것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알 수 없다. 어찌되었든 당시 자료를 종합해보면 4,000여 원 내외가 송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위의 계산에서 10개월이면 600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6개월인 경우는 1,300여 원이 모자란다.

때문에 일진회의 보고서를 받은 고종은 위의 내역대로 經理院에서 5,310원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고종이 하사한 금액과 관련해 『황성신문』은 두 차례나 3,610원을 하사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또 『만세보』도 이와 비슷하게 3,000원을 하사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3,000원 내외가 맞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보고서에서 32명 중 60%이상이 대성중학교에 다닌 것으로 볼 때, 단지동맹에 참여한 21명도 모두 대성중학교에 다닌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대한유학생회학보』에도 “(일진회와 천도교가 파견한 60명은)혹 전문학교에서 修習하는 자도 있고,

혹 보통학교에서 수습하는 자도 있는데 그 중 20여 인은 동경 대성중학교에서 勤誠修學하더니 1906년 7월부터 학비를 전혀 받지 아니함으로” 단지동맹을 결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단지동맹에 참여한 21명의 학생들은 1907년 1월 8일자로 천도교주 손병희와 일진회장 이용구에게 편지를 보내 두 사람을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앞으로는 노동으로 고학을 할지언정 의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설령 도움을 준다고 해도 이것은 의로움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단지동맹 학생들이 졸업하고 귀국하면 이용구와 손병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들이 학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며,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와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비판하였다.<sup>45)</sup> 또 이전에는 일진회에서 파견한 유학생이라고 경멸과 모욕을 받았으나, 이번에 단지동맹을 결행한 志氣가 높이 평가되어 동포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 『황성신문』도 가세해 일진회 총무 송병준이 학부대신 이완용을 방문해 단지동맹 학생 문제를 협의했다고 하면서, 일진회도 사회적 비난을 무서워한다고 하였다.

대한자강회는 1월 19일 열린 통상회의에서 연설회 개최를 결정했는데, 尹孝定은 「學生의 指血은 志士의 眼淚」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일진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였다.

단지동맹으로 일본에 유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국 정부도 유학생들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원래 유학생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특정한 업무가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상황에 따라 대처

45) 『大韓每日申報』 1907년 1월 16일 잡보 「□□□□」, 『萬歲報』(1907년 1월 16일 잡보 「天道教와 學生關係」, 1월 17일 논설 「在日本斷指留學生」)는 이번 단지동맹 유학생 사건은 이용구가 발단이 된 것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또 손병희는 유학생 38명을 데려갔다가 점차 귀국하고 3명만 남았다는 것, 이용구가 일본에 유학생 30명을 보낼 때 손병희에게 부탁하기를 이들은 관비생이 될 것이므로 2개월만 학비를 대주도록 하여 5~6개월이나 부담했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해 왔다. 유학생 감독이라는 업무가 있기는 했지만 전문 업무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단지동맹 유학생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체제가 마련하는 조처 중의 하나로 監督部를 신설해 조직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처로 한국 학부 편집국장 申海永을 일본 유학생 감독에 새로 임명해 전문성을 높였다. 신해영은 자신이 유학생감독에 임명된 이유를 묻자 “학부에서 제정한 외국 유학생의 규칙도 알려 실시하고, 보통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은 그 수업에 따라 전문과로 입학할 수 있게 하며, 단지동맹 학생의 방침도 확정하여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몇 가지 변화에 따라 학부는 2월 중순에 외국 유학생 규정을 제정해 유학생 감독이 학생의 품행과 수업 勤慢을 4월·8월·12월 3회에 걸쳐 학부대신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미달하는 학생은 국내로 소환하여 학비까지 상환케 하며 私費生이라도 우수한 학생은 관비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정하였다.<sup>46)</sup> 이어서 3월 중순에는 외국유학생 중 특히 일본 유학생들에게 훈령을 내려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① 감독이 학부소관 일본 유학생 규정에 따라 措辦할 사항은 모두 囑托과 협의할 것, ② 감독을 경유하여 학부대신에게 제출할 문서는 모두 감독이 촉탁에게 出示하여 捺章케 할 것, ③ 학부대신이 발송한 문서로 감독을 경유할 것은 모두 감독이 촉탁에게 출시하여 날장케 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특히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가 파견한 학생 중 단지동맹 학생 21명을 비롯한 32명 전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는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3년을 잡고 1인당 20원씩 보조해 졸업시키면 장래에 유용한 인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보조비 3만 3040원을 특별히 지출하도록 탁지부에 요청하였다. 또 일본유학생 감독 한치유가 3월 초 학부에 보고하여 단지동맹 학생들의 밀린 생활비 등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도 3개월 이상이 지나면

46) 「學部所管日本國留學生規定」(1907년 3월 學部令 第3號)[韓詩俊, 1985 「韓末 日本 留學生에 관한 一考察」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780~786쪽에서 재인용]; 『皇城新聞』 1907년 2월 19일 잡보 「留學勸獎」.

서 생활이 극히 궁핍하니 서둘러 밀린 돈과 학비를 마련해 주도록 요청하자, 학부는 탁지부에 조회하여 국고에서 이들을 보조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목적인 바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예산 이외 항목으로 3,100환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또 일본유학생 감독부에 훈령하여 학부에서 관리하는 일본 유학생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곧 유학생의 입학학교 履修學科와 유학 기간 학자금 액수, 이전 취학 학교와 앞으로 입학할 학교의 수업기간 등과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학부대신의 명의로 된 새로운 사령서를 발급하라는 것 등이다.

## 2) 단지동맹과 국내의 의 반향

매천 황현은 일본 유학생의 단지동맹을 기록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장하게 여겨 전후에 걸쳐 보낸 보조금이 수만 원이나 되었다.”고 하였다.<sup>47)</sup> 실제로 당시 신문에는 단지동맹이 알려진 지 서너 달이 지난 후에도 보조금 모금 보도는 계속되었다. 대한매일신보사는 단지동맹 학생들에 대한 의연금의 계속 신문사로 들어오자 앞으로 총 액수를 광고에 모두 알릴 것이라고 하면서 상세한 보도를 이어갔다. 특히 4월 18일자 광고에는 이때까지 신문사로 돈을 보내온 개인·단체의 이름과 액수를 상세하게 기록해 총 217원이라고 보도하면서, 이것은 태극학회의 의뢰로 모금한 돈이며 이 중 먼저 22원으로 보냈고 이번에 188원을 보낼 것인데 이 중 7원은 광고료임을 밝혔다.

황성신문사는 3월 초까지 신문사로 기부한 의연금이 990여 환에 이른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직접 보내도록 권유하였다. 3월 8일에는 의연금 모집을 발기한 사람들이 金祥演을 수금위원으로 정해 황성신문사에서 모은 新貨 1076환 19전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조만간 단지동맹 학생들에게

47) 『梅泉野錄』 제5권, 光武 10년 丙午(1906년), ‘日本留學生의 學資’.

보낼 것이라고 전하였다. 또 황성신문사에서 두 번째로 모은 136환 28전 5리를 신임 유학생 감독으로 4월 15일에 부임하는 申海永을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5월 2일에는 단지동맹 21명의 대표 최창조·유영희·박윤철은 대한매일신보사에 글을 보내 자신들을 위해 의연금을 모아 준 데 대해 일일이 찾아 고마움을 전하지 못해 광고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국내외 개인·단체의 이름과 금액을 게재하였다. 기부한 내용은 크게 ① 兪星濬·閔健植 등이 모아 학부에 위탁해 학자금으로 보충하게 한 1,980환 31전, ② 단지동맹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한 1,039원 29전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특이한 점은 ②에 당시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귀국하던 安昌浩 등과, 서울의 광무학교에서도 기부했다는 점이다.<sup>48)</sup>

한편 『황성신문』에는 2월 중순부터, 『대한매일신보』에는 3월 중순 이후부터 단지동맹 학생들과 관련한 기사나 의연금 모금 등의 기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황성신문사에는 의연금 모집소가 설치된 후 1월 17일자 광고란부터 3월 30일까지<sup>49)</sup> 이어져 많은 금액이 모아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시기로 볼 때 국채보상운동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던 것과도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이 시기 국내의 각 신문에는 국채보상 의연금 내역이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6월 초 이후에는 단지동맹과 관련한 기사를 찾기 힘들 정도인데, 이 시기가 되면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조약, 이에 따른 군대해산 등 국내의 정치적인 정황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에서는 국내에서 전개된 단체와 개인의 의연금 모금 및 기부, 그리고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외에서 이루어진 개인·단체의 의연금 모금 및 기부 현황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48) 이와 관련하여 『萬歲報』 1907년 2월 22일 ‘광고’에는 광무학교의 의연금과 명단이 확인된다.

49) 『皇城新聞』 1907년 3월 30일 ‘광고’, 『황성신문』에 보도된 마지막 관련 광고인 듯한데, 이 광고에는 ‘瑞川紳士義捐金’ 합계 30원 50전, 金思濬 등 4환 90전, ‘桂洞 敦明義塾義捐金’ 합계 18원 15전 등이 소개되어 있다.

## ○ 국내 단체

尹致旵·李甲·盧伯麟·柳東說·金祥演·金基元·石鎮衡·李敏高·俞承兼·張憲植·申海永·尙灝·劉文煥·申羽均 등이 단지동맹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해 귀국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의하여 개개인이 의연금을 모으는 한편, 이들의 상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연설회를 열어 모금하기로 하였다.

서울에 있는 각 학교 학생들이 의연금을 모금한다는 기사도 보도되었다. 南署 筆洞의 漢南學校 학생들이 의연금 50환을, 남문 밖 柴岩 漢陽學校 학생들이 5圓을, 西署 陽洞 사립 光成商業學校에서 13원 12전을 모아 기부하였다. 또 지방에서는 開城 培義學校 학생들도 일본의 태극학회에 학문을 하는 뜻은 따듯하고 배부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상과 국민의무에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행동을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다.

鄭永澤·李章魯·任謙宰·鄭泰殷 등은 淸州郡 普成中學校 校友會 발기인으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단지동맹 학생들을 위한 의연금 모집을 권유하는 긴급광고를 싣고 의연금은 황성신문사로 보내도록 하였다.

彰信社는 대한매일신보사에 편지를 보내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단지동맹 학생들을 위해 金貨 20원을 기부하였다.

2월 1일~2일 오후 1시 李商在·尹致昊·晦光禪師·鄭雲復·李雋·魚鎔善·金東完·尹晶錫·英國人 목사 李雲林 등이 新門 內 協律社 앞에서 단지학생들의 정황을 널리 알리는 대연설회를 열었다. 이들의 열렬한 연설은 6시까지 이어져 방청인들의 감동을 불러 일으켰는데 중간 중간에 모은 금액이 무려 160~200여 원에 달했다.

三和港 警務署에 근무하는 崔象鎭 등 11명이 편지와 의연금 10환을 대한매일신보사에 보냈다.

東萊府尹 金敎獻과 參書(官) 崔憲, 주사 朴勝玉 등은 대한매일신보사에 취지서를 게재하면서 2월 草梁學校의 기말시험 일자에 관민이 모여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단지동맹 학생들의 학자금을 모집하자고 발기했다는 내용과 함께 각자 구역 내 뜻있는 사람들을 동원할 것, 각 지역에서 돈을 모아 상무회의소로 보내고 영수증을 받을 것, 기한은 2개월로 할 것 등을 정했으며 당시까지 모금에 참여한 인원과 액수를 일일이 소개하고 총액은 318원 70전이라고 밝혔다.

### ○ 국내 개인

徽文義塾 總監 閔泳徽도 단지동맹 학생들을 치하하는 공함과 함께 50원을 보냈다.

前 秘書丞 이필和는 在일본유학생 감독청에 단지동맹 학생들의 참상을 비통하지만 이들이 의기는 매우 기쁘다고 하면서 公函과 함께 100환을 보냈다.

남문 밖 紫岩 漢陽學校에서 교사 金普현은 학생들에게 기부하자고 권유하여 50원 이상을 모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의연금 기부를 권유하였다.

육군 參將 玄暎運도 50환을 기부하였다.

佛敎研究會도 의연금을 내기로 하고 연설회를 열었고, 明進學校 都總務 洪月初는 학생들을 모아 단지동맹 사건에 대해 격렬한 연설을 한 후 의연금을 모았다.

그 동안 영남지역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紳士 柳時萬가 의연금 모집을 주장하고 나섰다. 2월 5일에는 대구 池山洞에 사는 前 議官 李善炯이 황성신문사로 글과 함께 新貨 2환을 보냈다.

全鳳薰이라는 사람은 대한매일신보사와 황성신문사에 글을 보내와 단지동맹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한 미친 사람처럼 神魂을 가늠하기 어려워 一哭一歌에 悲喜를 참지 못해 발기소로 보조금을 보내고 단지학생들에게 글을 쓴다고 하였다.

通津 사립 汾南學校 학생 李建星 등은 대한매일신보사에 편지와 함께 8월 50전을 모아 보냈다.

釜港學校 임원 宋運用은 편지와 함께 新貨 10환을 기부하였다.

대한매일신보사 元山支社長 劉七錫이 보낸 편지에는 원산항 上리에 사는 최씨 부인이 남편 金大根이 사망한 후 아들 金壽榮(11세)을 키우고 있는데, 김수영이 단지동맹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의복비 2원을 의연금으로 내도록 부탁해 직접 신문사로 찾아 왔다는 정황을 전하였다.

단지동맹 학생들을 본받고자 徐午淳은 목덜미를 베어 血誠을 표할 것이고, 李泰樹은 팔을 잘라 성의를 표할 것이라는 기사도 보도되었다.

이외에 여자들도 단지동맹 학생들의 뜻에 동조하는 글과 의연금을 기부하여 눈길을 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부인은 일본 『報知新聞』에 실린 한국 유학생들의 궁핍한 생활 기사를 보고 경과를 상세하게 요약해서 게재하였다.<sup>50)</sup> 洪鳳鉉의 부인 鄭松貞은 여자라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대한매일신보사에 글과 함께 舊銀 1원을 보냈다. 李俊의 부인 이씨도 여자의 몸이지만 단지동맹 학생들의 뜻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순한글로 된 글과 함께 책 한 권이라도 사서 보라고 21환을 보냈다.

국내에서 단지동맹 모금 열기가 식어가던 중에 이동신이 순한글로 된 ‘의연금 모집문’을 3월 31일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매일신보사에 게재하면서 모금이 이어졌다.

## ○ 국외의 단체 및 개인

1907년 1월 14일 일본 유학생 단체인 西友學會는 특별회를 열어 회원과

50) 『皇城新聞』 1907년 1월 23일 잡보 「夫人義俠」, 일본 『報知新聞』에 실린 자세한 기사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제 측 탐문조사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단지학생을 비롯해 한국 유학생들의 궁핍함에 대해 기자 岡本四郎이 유학생 崔錫夏를 방문해 취재해 보도했다는 내용이다(『要視察韓國人舉動』 3, 「韓國留學生ニ關スル件」 [崔錫夏 외 25명의 經濟的 困難] (乙秘第25號, 1907.1.17)). 『萬歲報』(1907년 1월 29일 잡보 「競自義捐」)에는 報知新聞社에서 10환을 기부했다고 하였다.

방청객 30여 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단지동맹 학생들을 위해 의연금을 모아 1주일 내로 보낼 것을 결의했는데 즉석에서 모은 돈이 수백여 원이었다. 이 중 李政秀는 매달 3환씩 기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서우학회 회관에서 고용으로 일하는 崔吉龍은 단지동맹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학회 서기원에게 新貨 10원을 기부하였다.

태극학회는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1월 8일부터 이들을 위해 의연금 모집에 들어가려 하므로 광고비 5원을 보내니 10일 동안 매일 광고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臨時收錢所는 대한매일신보사로 하고, 모집 기간은 2월 10일까지로 정하였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1월 22일자에 21명의 학생들이 손가락을 자르는 광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이들은 모두 왼손의 5번째 손가락을 잘랐는데, 의학을 공부한 후 慈惠病院에서 일하던 유학생 安商浩가 급히 이들을 찾아가 구급치료를 해 주었다고 한다. 이어서 태극학회도 즉시 의연금 30~40환을 모으는 한편 신문에 광고하여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렸으며 神□기독교청년회관에서도 태극학회의 광고를 보고 의연금을 보내 왔다.

大韓留學生會는 회의를 열어 단지동맹 학생들에 대한 영구적인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부회장 朴勝彬을 총대로 정해 서울로 파견해 2월 8일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陸軍 副尉 朴勝俊은 太極學會에 편지와 함께 紙貨 5원을 보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共立協會 河邊支會에서도 보조금 30원 30전을 모아 일본의 태극학회로 보냈으며,51) 뉴욕의 大韓人共濟會도 21환을 모아 대한매일신보사를 통해 태극학회로 보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開拓리에 사는 한국인들도 단지동맹 소식을 듣고 義恤金으로 新貨 52환 50전을 모아 보냈는데, 단지동맹 유학생 중 최창조는 徐相龜 등에게 편지를 보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돈을 모아 보내 준 동포들

51) 『太極學報』 제9호(1907.4.24), 59쪽, '會事要錄'.

에게 감사한다는 답장을 보냈다.

## 5. 맺음말

일본 유학생들이 결행한 단지동맹은 국내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국내에는 단지동맹이 결행된 지 10여 일이 지나 사건의 실체가 자세하게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단지동맹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감독 단체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규모를 넘어 해외에서 까지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렬이 이어졌다. 일본 유학생 사회에서는 단지동맹이 일어난 다음 날 태극학회를 중심으로 회의가 열려 이를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발 빠른 대응이 전개되었다.

단지동맹이 많은 관심을 일으키게 된 것은 당시 대한제국의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지동맹을 결행한 21명은 천도교로 개편되기 이전의 동학교단에서 파견한 유학생 중 귀국하지 않고 남아있던 일부와, (합동)일진회 시기 파견한 유학생 중 다수의 참여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단지동맹 사건이 일어난 1907년 1월의 시점은 천도교(동학)가 (합동)일진회로 존립했던 1년 10개월여 동안의 '친일'의 오명을 청산하고 민족종교로서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고 있던 때였다. 또 일진회도 (합동)일진회 시기에 동학의 전국적인 조직기반을 토대로 세력을 키우던 중 1906년 9월 교단으로부터 핵심인물들이黜敎되면서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던 시기였다.

동학교단과 (합동)일진회가 일본에 파견한 유학생의 규모는 이 글을 통해 대강의 구분을 하였다. 그러나 동학교단 측의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두 차례의 유학생 파견은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무엇보다 일본에 유학했던 인물들의 유학과정에 대한 행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합동)일진회 시기에 파견된 유학생의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 대부분은 光武學校 출신이거나 일진회 회원의 자제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앞으로 동학교단 시기(1902.3~1904.3~4)의 유학생 파견과 (합동)일진회 시기(1905.8.이후)의 유학생 파견에 대한 추가 조사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구명되어야 할 것은 의암 손병희의 일본에서의 동향과 행적이다. 손병희와 일본 유학생, 나아가 국사범으로 일본에 망명한 한국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추적된다면 위에서 지적한 동학교단 시기나 (합동)일진회 시기에 파견했던 유학생들의 전모도 온전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단지동맹이 결행된 후 국내의 사회의 반향과 관계하여 이 사건에 대한 조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마무리되었는지, 이에 따라 단지동맹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을 보완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제6주제 토론





## 동학학회 학술대회 개최 연혁 since 1998

1. 동학학회 창립 중회 및 제1회 학술 세미나 (1998-10-28 / 전도교 중앙대교당)  
=> 발표자수 4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2. 제2회 학술 세미나 (1998-11-27 / 전도교 중앙대교당)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문예진흥원
3. 제3회 1999년도 준계 학술 세미나 (1998-05-28/ 성신여대 수정관 4층)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4. 제4회 1999년도 주계 학술 세미나 (1999-11-19 / 부산예술문학대학 대강당)  
=> 발표자수 4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5. 제5회 2000년도 준계 학술 세미나 (2000-06-24 / 전도교 중앙대교당)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6. 제6회 2000년도 주계 학술 세미나 (2000-10-26 인천대 본관 7층 세미나실)  
=> 발표자수 4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7. 제7회 2001년 주계 학술 세미나 (2001-5-24 / 전남대 인문대 강당)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8. 제8회 2001년 추계 학술 세미나 (2001-10-15 / 전도교 대강당)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9. 2002년도 3월 월례발표회 (2002-3-15 / 전도교 대교당)  
=>발표자수 1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10. 2002년도 4월 월례발표회 (2002-04-19 / 전도교 중앙총부)  
=> 발표자수 1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11.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갑진개화운동의 재조명 (2002-05-17 / 성신여대)  
=>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12. 2002년도 6월 월례발표회 (2002-06-21/ 전도교 중앙총부)  
=>발표자수 1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13.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2002-10-28 / 상명대학 회의실)  
=>발표자수 3명, 지원기관: 상명대학교
  
14. 2003년 4월 월례발표회 (2003-4-19 / 성신여대 수정관)  
=>발표자수 2명
  
15.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동학과 전통사상 (2003-05-16 / 한국프레스센터)  
=>발표자수 4명, 공동개최 기관명: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6. 2003년 5월 월례발표회 (2003-05-29/ 인하대 6호관 회의실)  
=> 발표자수 1명, 공동개최 기관명: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17.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동학과 서학 (2003-10-19 / 서강대학교 다산관)  
=> 발표자수 5명, 지원기관: 문화관광부
18. 2003년도 11월 월례발표회 (2003-11-08 / 성신여대 수정관)  
=> 발표자수 2명
19. 2004년도 3월 월례발표회 (2004-03-13/ 성신여대 수정관)  
=> 발표자수 2명
20. 2004년도 4월 월례발표회 (2004-4-10 / 성신여대 수정관)  
=> 발표자수 2명
21. 2004년도 6월 월례발표회 (2004-06-19 / 성신여대 수정관)  
=>발표자수 2명
22. 감진개화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학술대회 (2004-09-10)  
=> 발표자수 4명
23. 2004년도 기획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과 전통준 (전북 고장문화원)  
=> 발표자수 3명
24.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한.중.일.러 국제학술회의  
: 종교와 사회변혁 - 동학을 중심으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 발표자수 4명

25. 2005년도 준계학술대회: 동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2005-05-28)  
=> 발표자수 8명
26. 2005년도 주계학술대회 (서울역사박물관)  
=> 발표자수 6명, 지원기관: 문화관광부
27. 2005년도 특별학술회의 (2005-11-26/ 프레스센터 20층)  
=> 발표자수 6명, 지원기관: 전도교 중앙총부
28. 2006년도 준계학술회의 (2006-5-25/ 순천향대 회의실)  
=> 발표자수 100
29. 2006년도 국제학술회의 (2006-09-12 /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  
=> 발표자수 8명(한국 3, 국제 5),  
지원기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30. 2007년 주계학술대회 (2007-11-23 / 대우재단 제2세미나실 )  
=> 발표자수 4명, 지원기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31. 2008년 주계학술대회 (2008-10-24 / 전도교 중앙총부 대교당)  
=> 발표자수 4명, 지원기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32. 2009년 3월 월례학술회의  
(2009-03-28 (토) 오후 3시 /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다매체회의실)  
=> 발표자수 2명

사회: 임금복(성신여대)

① 전통사유에 나타난 개제성 논의의 문제

발표: 정예정(숙명여대), 토론: 오문환(서강대)

② 수운 최제우의 종교체험의 비교종교학적 고찰

발표: 성애영(서울대) 토론: 김용휘(고려대)

33. 2009년 동학장도 150년 기념 준계학술대회(2009-04-10/ 전도교 중앙총부)

=> 발표자수 8명, 지원기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 장도 150년 기념 준계학술대회  
- 계열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

◇ 개회식(14:00-14:20)

개회사 : 최민자(동학학회 회장, 성신여대 교수)

축사 : 김동환(전도교 교령)

◇ 제 1 부 학술 발표(14:20-16:30)                    사 회: 이정희(공주대 교수)

제 1 주제: 박인호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발표: 성주현(독립기념관 연구원)

토론: 이현희(성신여대 명예교수)

제 2 주제: 자기식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발표: 엄찬호(강원대 교수)

토론: 배향섭(고려대 교수)

제 3 주제: 최유현 · 임중연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발표: 조규태(한성대 교수)  
토론: 이병규(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 위원회 연구원)

제 4 주제: 김낙절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발표: 박맹수(원광대 교수)  
토론: 황선희(상명대 명예교수)

◇ 휴 식 (16:30-16:50)

◇ 제 2 부 종합토론 (16:50-17:50)      사 회: 김한식(에스라성경대 총장)

◇ 폐회사 (17:50-18:00)

34. 2009년 5월 월례학술회의 (2009-05-23/ 전도교 봉황각-의장수도원)

=> 발표자수 2명

사회: 정예정(동국대)

①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관련 사료 해제

-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사료를 중심으로

발표: 강호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토론: 조규태(한성대)

② 하나님 나라와 시천주 - 수양론의 시각으로

발표: 이길용(서울신학대)

토론: 이호영(서강대)

35. 2009년 6월 월례학술회의 (2009-06-27/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다매체회의실)

=> 발표자수 2명

사회: 임금복(성신여대)

① 先后天 交易과 최수운의 '다시개벽'

- 주역 및 정역과의 비교 검토

발표: 이찬구(수운교 법사원장), 토론: 정혜정(숙명여대)

② 동학의 덕에 대한 연구

발표: 장재봉(한양대), 토론: 오문환(서강대)

36. 2009년 9월 월례학술회의 (2009-09-25/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다매체회의실)

=> 발표자수 2명

사회: 손병옥(경상대)

① 범부 김정설의 '죄제우론'에 대하여

발표 : 죄재묵(영남대)

토론 : 김상일(한신대)

② 동학에 나타난 공공윤리 연구

발표 : 김용환(충북대)

토론 : 남태옥(한국신학대)

37. 2009년 동학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0-16/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  
제1부 동학과 생명사상 / 제2부 동학과 세계화

개회사: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

격려사: 김동환 (전도교 교령)

축사: 이현희 (성신여대 명예교수)

◇ 제 1 부 동학과 생명사상(10:00~12:00)      사 회: 조규태(한성대 교수)

제 1 주제: DONGHAK CONCEPTS OF GOD AND LIFE

- WITH SPECIAL REFERENCE TO YI DON-HWA'S INTERPRETATION

발표: 김용준(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前 교수)

토론: 김태장(일본 궁궁철학공동연구소 소장)

제 2 주제: 동학과 현대 과학의 생명사상

발표: 최민자(성신여대 교수)

토론: YAGYU Makoto(일본 궁궁철학공동연구소 특임연구원)

제 3 주제: 에코페미니즘과 동학의 모성론

발표: 최분영(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토론: 김은실(성신여대 연구교수)

◇ 제 2 부 동학과 세계화(13:00~15:40)      사 회: 김기승 (순천향대 교수)

제 1 주제: 동학의 현대적 의미와 세계화

발표: 김용휘(고려대 연구교수)

토론: 오문환(서강대 강사)

제 2 주제: Donghak Ideology and Democracy of Korean Type

발표: Kurbanov Sergey(러시아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교수)

토론: 김준성(부산예대 교수)

제 3 주제: 东学思想的后现代“倾向性”探析

발표: 방호범(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김용애(서강대 교수)

제 4 주제: 동학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세계화 방안

발표: 김한식(에스라성경대학원대 총장)

토론: 정예정(숙명여대 교수)

◇ 휴 식 (15:40~16:00)

◇ 제 3 부 종합토론 (16:00-17:00)

사 회: 황선희(상명대 명예교수)

◇ 폐 회 (17:00)

38. 2009년 11월 월례학술회의 (2009-09-25/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다매제회의실)

=> 발표자수 2명

사회: 김용휘(고려대)

① 동학농민전쟁과 독일농민전쟁의 비교적 고찰

- 종교적 외피론을 중심으로

발표: 남태욱(서울신대), 토론: 박맹수(원광대)

② 동학의 삼철자 주문과 다시개혁의 함의

발표: 손병욱(경상대), 토론: 정혜정(숙명여대)

39. 2010년 3월 준계학술대회 (2010-03-26/ 수운회관 907호 대회의실)

=> 발표자수 : 5명

동학과 서학의 만남- 동학과 근·현대서양사상의 비교론적 고찰

◇ 개최식(13:10-13:30)

개회사 : 최민자(동학학회 회장, 성신여대 교수)

축사 : 김동환(전도교 교령)

◇ 제 1 부 학술 발표(13:30-17:10)                    사 회: 김기승(순천향대)

제 1 주제: 이돈화의 인내천주주의와 서양근대철학 (13:30-14:10)

발표: 정혜정(인천대), 토론: 허수(한림대)

제 2 주제: 미셀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매월의 향아설위  
(14:10-14:50)

발표: 어경(고려대), 토론: 김용휘(고려대)

제 3 주제: 키에르케고어와 수운의 인간이해 비교 (14:50-15:30)

발표: 홍경실(고려대), 토론: 김용애(서강대)

◇ 휴 식 (15:30-15:50)

제 4 주제: 헤겔의 정신철학과 동학 (15:50-16:30)

발표: 조극훈(동국대), 토론: 김영철(한양대)

제 5 주제: 막스웰러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천주적 인간학

(16:30-17:10)

발표: 임상옥(숙명여대), 토론: 이유선(서울대)

- ◇ 제 2 부 종합토론 (17:10-18:00)      사 회: 황선희(상명대)
- ◇ 폐회

40. 2010년 4월 월례학술회의 (2010-04-30/수운회관 907호 대회의실)

=> 발표자수 2명

사회 : 안희순(한서대)

- ① 일본근대사에서 본 제2차 동학농민전쟁

발표: 강호숙(진실과 화해위원회)

- ② 남북 통일전략과 전봉준에 대한 북한의 해석 - 서구 비폭력전쟁과 관련하여

발표: 노정선(연세대)

41. 2010년 5월 월례학술회의 (2010-05-30/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다매제회의실)

=> 발표자수 2명

- ① 전도교의 생사관

발표 : 오문환(서강대)

- ② 동학의 생명론과 여성

발표 : 김준성(부산여대)

42. 2010년 6월 월례학술회의 (2010-06-30/수운회관 907호 대회의실)

=> 발표자수 2명

- ① 셸리 맥페이그와 해월 사상에서 살펴본 자연과 인간의 소통 불가능성의 가능성

발표: 자옥승 교수 (이화여대)

- ② 전도교의 문화운동론과 서양철학 수용- 이돈화를 중심으로  
발표: 김용휘 교수(고려대)

42. 2010년 9월 월례학술회의 (2010-09-30/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발표자수 2명

- ① 동학 전도교에서의 인간존엄성 근거, 발표: 김용애(서강대)  
② 범부 김정설의 동학관, 발표: 박맹수(원광대)

43. 2010년 10월 동학창도 150주년 기념 추계국제학술대회 (2010-10-28/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발표자수 6명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등록 (9:00-9:30)

◇ 개회식 (9:30-10:30)

개 회 사 :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

축 사 : 임운길 (전도교 교령)

기조강연 : 김태창 (日本 公共哲學研究所 所長)

◇ 제 1 부 학술 발표 (10:30~11:50)

사 회: 신용하(서울

대 명예교수)

제 1 주제: 동학의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  
(10:30~11:10)

발표자 : 최민자(성신여대 교수)

토론자 : 이정희(공주대 교수)

제 2 주제: 동학의 평화윤리 및 그 현대적 가치 (11:10~11:50)

발표자 : 김철수(연변大 교수 겸 東邦哲學研究所 所長)

토론자 : 김한식(에스라성경대학교대학원 총장)

◇ 점심시간 (11:50~13:00)

◇ 제 2 부 학술 발표 (13:00~16:00)  
대 명예교수)

사 회: 황선희(상명

제 3 주제: 일본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 - 동학을 중심으로  
(13:00~13:40)

발표자 : 임병택(日本 삿포로 自由學校 教授)

토론자 : 박맹수(원광대 교수)

제 4 주제: 동학의 개체성과 전체성, 그리고 공존 (13:40~14:20)

발표자 : 박소정(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教授)

토론자 : 김용휘(고려대 연구교수)

◇ 휴식 (14:20-14:40)

제 5 주제: 동학의 민족통일 방안 연구 (14:40~15:20)

발표자 : 임형진(경기대 교수, 동학민족통일회 사무총  
장)

토론자 : 오문환(경희대 연구교수)

제 6 주제: 동학의 생명사상과 동아시아 평화 (15:20~16:00)

발표자 : 주요섭(모심과 살림 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 김준성(부산예대 교수)

◇ 제 3 부 종합토론 (16:00~17:30)  
대 명예교수)

사 회: 황선희(상명

◇ 폐회

44. 2010년 11월 월례학술회의 (2010-11-26/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발표자수 2명

① 함석헌사상과 보편성의 문제 : 동학, 노장, 퀘이커리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성수 기자 (오마이뉴스, 전 진실화해위 국제협력팀장, 함석헌 평전 저자)

② 근세 도교적 관점에서 본 동학 사상, 최수빈 교수(서강대)

45. 2010년 12월 월례학술회의 (2010-12-10/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발표자수 1명

①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인식

발표 : 문병학 교수(원광대)

☆ 2010년 12월 29일 - 『동학학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45. 2011년 3월 월례학술회의 (2011-03-25/ 성신여대 수정관 B-321호)

=> 발표자수 2명

① 수운의 신 이해를 통해서 본 동서교섭의 양태, 자옥승 교수님(이화여대)

② '교훈가'에 나타난 시세계, 나동광 교수님(경성대)

# 동학학회 홈페이지 안내



<http://www.donghaks.org>

학회의 공지사항 및 계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는 동학 학회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회원 가입 및 학회지 검색(2000-2011)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토앨범에서는 학술회의 및 학답사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원님의 수상 및 저서 출판 소식 등을 전해주시면 [회원 동정]란에 올려드립니다.

##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안내

### 동학학회 회원님들께

존경하는 동학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동학학회는 회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힘입어 確實 있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무사히 승격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동학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연회비 납부 회원님들께는 1년에 세 차례 동학학보를 보내드리고, 학회 행사시 초청장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연회비 납부 및 후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학회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51075 , 예금주: 최민자(동학학회)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기관회원 : 연회비 10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 < 회원가입 안내 >

학회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회원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회원서 - 동학학회 홈페이지에도 다운로드 가능)

## 동학학회 개인회원 입회원서

|  |      |            |      |           |      |
|--|------|------------|------|-----------|------|
| 성명   | (한글) | (한자)       | (영문) |           |      |
| 생년월일   |      | 전국 및 관심 분야 |      |           |      |
| 소속   |      | 직위         |      | 연락처       | 직장:  |
| 주소   |      |            |      |           | 주택:  |
| e-mail   |      |            |      |           | 팩스:  |
|  |      |            |      |           | 휴대폰: |
| 최종학위   | 취득년도 | 수여 기관      |      | 취득 학위     |      |
| 학위논문제목   |      |            |      |           |      |
| 주요저서 및 논문  |      |            | 출판년도 | 출판사 및 발표지 |      |
| <p><input type="checkbox"/> 회원가입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학학회 제작본 회비 입금 후, 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회원 등록이 됩니다.<br/>홈페이지(<a href="http://www.donghaks.org">http://www.donghaks.org</a>)에서 입회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br/>입회원서는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학회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61075 , 예금주: 최민자(동학학회)<br/>개인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비 30만원<br/>기관회원 : 연회비 10만원 / 평생회비 50만원</li> <li>○ 회원특전: 연 2회 발간되는 『동학학보』를 보내드립니다.</li> </ul>  |      |            |      |           |      |
| <p><input type="checkbox"/> 사무국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중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608호 동학학회(110-310)</li> <li>○ 연락처 02-739-8605, 010-9970-9160 (Fax 02-739-8304)</li> <li>○ E-mail donghak1998@naver.com</li> </ul>  |      |            |      |           |      |
| <p>본인은 동학학회에 가입하여 (일반 / 평생)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br/>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 <span style="margin-right: 100px;">도</span> <span style="margin-right: 100px;">을</span> <span style="margin-right: 100px;">일</span> <span style="margin-right: 100px;">신</span> <span style="margin-right: 100px;">정</span> <span style="margin-right: 100px;">인</span> <span style="float: right;">서명 ㉠</span> </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동 학 학 회 귀 중</p> |      |            |      |           |      |



# 동학학회 자료집

제46집

2011년 5월 20일 인쇄

2011년 5월 23일 발행

발행인 | 최민자

편집인 | 임유선, 정명지

인쇄처 | 예응기획

발행처 | 동학학회

(110-775)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608호 동학학회

Mobile | 010-9970-9160

E-mail | donghak1998@naver.com

Fax | 02-739-8605

homepage | <http://www.donghaks.org>

